2 0 1 8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간행하였습니다.
(사업명: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

2018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2019년 12월 25일 인쇄
2019년 12월 25일 발행

펴낸곳 ㈔율곡연구원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단
주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124(죽헌동)
전화 033 642 4982 ● 팩스 033 647 4046
홈페이지 www.yulgok.or.kr
전자우편 yulgokee@hanmail.net

* 이 책은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제하실 수 없습니다.
* 비매품

2018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율곡연구원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단

발 간 사

율곡 이이 선생은 한국 유교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문(文) · 사(史) · 철(哲)을 겸비하여 동방의 대현(大賢)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선생은 49년이란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철학, 정치, 교육, 역사 등 각 방면에 걸쳐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한 우리 율곡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한 학술활동과 출판사업 등을 통해 율곡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전담 사업단을 발족하여 율곡학 콘텐츠 개발, 율곡 문집을 활용한 한자 · 한문교육 교재 개발,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대중강연회 실시, 나아가 해외에 율곡의 학문과 사상을 널리 알리는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유교 레포트는 율곡학을 포함한 한국 유교의 연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학계에 보다 풍성한 한국유교 연구 성과가 나

오길 기대하며, 국제적으로는 우리 유교에 대해서 해외학자들이 보다 깊이 있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쪼록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학문과 사상이 재평가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2019년 12월 15일

사단법인 율곡연구원 이사장 윤사순

유학이 처음 한국에 수용된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전인 것만은 분명하며, 유학이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한국사회를 주도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조선 중기 주자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조선성리학이 정립되고 17세기 이후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주자학이 강력한 통치이념으로 작동되면서 유학사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7세기부터 160여 년에 걸쳐 『주자대전』에 대한 주석 작업이 진행되어 19세기 이항로(李恒老)에 의하여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箚疑輯補)』가 집대성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사상은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16세기의 사단칠정논쟁, 18세기의 호락논쟁, 19세기의 심설논쟁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논쟁의 주역들은 자신의 학설을 정당화하고 논적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서오경 등 유교경전과 주자학에 대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재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대 유학연구자들에게 계승되어 한국학계에는 유학사상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논문과 저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 · 비판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각 논문과 저서들은 개별적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몇몇 전공자들에게만 읽힐 뿐, 학계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사업단은 지난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유학 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본 사업단은 개별 논문과 저서라는 구술을 꿰어 한국유학이라는 보배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치열한 논쟁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를 계기로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학계와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어 생산적인 논쟁의 공간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중국어판 발간을 계기로 한국 유학의 현주소

와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15일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사업단 단장

최영진

차 례

발간사 · 윤사순 4

서문 · 최영진 6

제1부 중국유학

제1장 선진 · 한당시기 유학 연구 · 김경희 13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 단윤진 45

제3장 명청대 및 근대 유학 연구 · 선병삼 69

제2부 한국유학

제4장 한국 성리학 연구 · 배제성 등 111

제5장 한국 양명학 연구 · 선병삼 163

제6장 한국 실학 및 근대 연구 · 이행훈 185

제7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 김유곤 227

제8장 한류 관련 연구 · 임태홍 251

제1부 중국유학

제1장

선진·한당시기 유학 연구

김경희

1. 머리말

본보고서는 2018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 · 한당시기 관련 유학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18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전체 논문 중에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에 관련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은 23개의 철학 전문 학술지이다.

2018년도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 · 한당 시기의 유학과 관련된 논문은 총 62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이 4편이고, 일반논문이 58편이다. 총 편수에서는 2016년도 65편, 2017년도 73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선진시기가 총 55편, 진한시기 6편, 당나라시기 1편이다. 2016년에는 선진시기가 55편, 진한시기가 10편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선진시기가 67편, 진한시기가 6편이었다. 이전의 두 해와 같이 선진시기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한시기의 유학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사상을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

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교육, 다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전체 62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한 논문은 모두 35편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공자: 13편, ②맹자: 7편, ③순자: 8편, ④기타인물: 7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와 관련된 논문이 28편이고, 기타 인물은 한대(漢代)의 유가 사상가로서 동중서(董仲舒) · 환담(桓譚) · 중장통(仲長統) · 왕부(王符) · 왕충(王充)과 당대(唐代)의 이고(李翺)등이 관련된 논문은 7편이 있다. 2018년도 인물별 전체 논문은 35편으로 2016년도의 30편과 2017년도 41편과 비교해보면 2017년도 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2016년도 보다는 약간 늘었다. 2017년도에 비해, 공자 관련 논문은 약간 줄었고, 맹자는 거의 비슷하고, 순자관련 논문은 2016년 5편에서 2017년 14편으로 대폭 늘었다가 2018년에는 줄어 8편이다. 2017년도 인물별 분류에서는 공자 관련 박사 논문이 4편, 맹자 2편, 순자 5편으로 모두 11편인데 비하여 2018년에는 공자와 순자 관련 박사 논문이 각각 1편뿐이고 맹자 관련 박사 논문은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다.

한대(漢代)의 유가사상가 관련 논문은 2016년도에는 8편, 2017년도에 6편, 2018년도에는 7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2016년도에는 육가(陸賈) 관련 논문이 5편이고, 가의(賈誼) · 동중서(董仲舒) · 왕충(王充) · 정현(鄭玄)이 각각 1편이었다. 2017년도는 동중서(董仲舒) 2편과 환담(桓譚) · 중장통(仲長統) · 왕부(王符) · 경방(京房) 등

이 각각 1편이었다. 2018년도에는 환담(桓譚) 2편과 동중서(董仲舒) · 중장통(仲長統) · 왕부(王符) · 왕충(王充)이 각각 1편이고, 당대(唐代)에는 유일하게 이고(李翺) 1편이 있다. 한대(漢代)의 유학사상가의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소개되어, 한대(漢代) 사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8년도에는 공자 · 맹자 · 순자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지만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한대(漢代)의 주요 사상가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한대(漢代) 이후부터 宋代(송대) 이전까지의 유학 사상이나 주요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당대(唐代)에 유일하게 이고(李翺) 1편이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연구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민향	치유적 관점에서 본 공자의 '수양적 인간론' 연구 : '감정억압'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한의철학과
2	임태승	"계씨장벌전유(季氏將伐顓臾)"장의 실상(實狀)과 공자 비판의 함의	동양철학연구96	동양철학연구회
3	임태승	"욕거곡삭희양(欲去告朔餼羊)"에 대한 공자 비판의 함의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4	임태승	공자시대 '천승지국(千乘之國)' 실상(實狀)의 재구성	한국유교학회 71	유교사상문화연구
5	김동민	『논어』에 기반한 인성교육 모델의 이론적 기초	한국유교학회 71	유교사상문화연구
6	정용수	공자는 실패한 정치가인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7	김영호	『논어』 '학이불사장(學而不思章)' 고석(考釋) – 특히 수양방법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8	조민환	계씨(季氏) 참월(僭越) 행위에 대한 유가(儒家) 예악론적(禮樂論的) 고찰(考察): '계씨팔일무어정(季氏八佾舞於庭)'등 계씨(季氏) 참월(僭越) 행위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9	윤지원	선진유가전쟁관(先秦儒家戰爭觀)에 대한 소고(小考) – 공자와 맹자의 전쟁관을 중심으로 –	한국유교학회 74	유교사상문화연구
10	전병술	공자의 전인적 리더십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11	이시우	『논어』를 통해 본 유학의 창의성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강경현	『논어』"오여회언(吾與回言)"장(章)에 대한 조선의 주자학적 접근	태동고전연구 40	태동고전연구소
13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 (1) –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018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13편이다. 2016년도 11편, 2017년도 15편으로, 꾸준히 10편에서 15편 정도의 논문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박사논문이 작년의 4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편이다. 그 1편도 공자의 철학이나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아니라, 공자의 '수양적 인간론'과 '감정억압' 문제를 중심으로 치유적 관점에서 한의학과 연계하여 탐구한 논문이다.

윤민향의 논문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신경증의 본질적 요인으로서 '감정–몸–사회질서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완시키는 공자 인간론의 수양론적 성격과 그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 필자는 문명의 억압성 담론을 배경으로 하여 '감정과 질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자 수양론의 전환적 특징을 살폈고, 감정억압 문제에 대하여 한의학과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치유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일반 논문은 모두 11편인데,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임태승의 논문 3편은 『논어』를 도덕철학적 각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정치 · 경제 · 군사 등의 물적 토대를 감안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였으며, 고증학적 및 문헌고고학적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김영호는 『논어』'학이불사장(學而不思章)' 고석(考釋)을 특히 수양방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조민환의 논문은 계씨(季氏)가 팔일무를 추게 한 것과 삼가(三家)가 제사 철상(撤床)에서 옹가(雍歌)를 한 것에 대해 공자가 심질(深疾)한 것을 유가 예악론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고찰하였다.

강경현은 "오여회언"장에서 안회에 대한 공자의 평가가 담긴 이 구절을 주자학적 이해의 지평 위에서 전개된 『논어집주』독해의 변용 지점들을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주자의 입장을 선별하여 확인하고, 조선의 주자학적 『논어』에 대한 해석을 심화시키는 독자성을 검토하였다.

나머지 논문들은 공자의 인성교육, 정치 등에 관한 논문이다. 2018년도 『논어』 연구의 특징은 일반 논문 11편중 5편이 경학을 기반으로 『논어』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 토대 자료 구축의 의미를 갖고 있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홍성민	맹자 사상에서 도덕의 내재성 문제 – 맹자 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2	최영진	욕구에 대한 맹자의 인식과 성리학적 전개(性理學的 展開) –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중심으로 –	동서인문학 54	인문과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신은화	수치심과 인간다움의 이해－누스바움과 맹자의 수치심 개념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8	한국동서철학회
4	진예숙	『맹자』 인용시 연구－성선설(性善說)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이주강	맹자와 깨어있는 자본주의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6	김영민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
7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맹자』 해석 (1)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2018년도 맹자 및 『맹자』 관련 논문은 모두 7편으로, 2016년 · 2017년의 6편에 비해 비슷하게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4년의 13편 이후로 『맹자』 관련 연구는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맹자』에 관한 조선 유학자들의 인성론과 경학 연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경학사상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박사논문은 2016년과 2017년도 동일하게 2편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박사 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일반논문 중에 3편은 맹자의 인성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철학적 의미를 독창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최영진의 논문에서 맹자는 두 가지 욕구를 '이(利)'와 '의(義)', '생(生)'과 '의(義)'에 대한 욕구로서 표현되며, 이것은 양자택일적인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필자는 욕구(欲求)에 대한 맹자의 인식에 대하여 주자 · 퇴계와 율곡 · 남당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중심으로 이론적 기반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맹자 인성론과 조선 유학자들의 실천정신에 대해 이론적 정합성을 도출해내고, 조선 유학사상을 심층화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진예숙의 논문

은『맹자』에 인용된 30편의 시 중에서도 성선설(性善說)과 관련하여 인용된 시를 중심으로 그 사상적 배경과 목적, 의의 등을 조명하고, 이 인용시들이 성선설의 논리구조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주강, 김영민의 논문들은 맹자의 왕도정치를 구현하는 성격을 띤 논문이다. 이 두 논문은 맹자의 인정(仁政)과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복지 등에 기반 하여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논문이다.

신은화의 논문에서 맹자의 수치심은 인간성을 반영하는 감정이자 동시에 인간다움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감정이다. 반면 누스바움에 의하면 수치심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필자는 누스바움과 맹자가 수치심에 대해 매우 다른 의견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누스바움이 지적한 '생산적인 수치심'은 맹자의 수치심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두 철학자의 견해가 양립할 수 있는 공통지대가 발견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수치심에 관한 동서양의 관점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흥미롭게 포착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양쪽의 입장을 대변할 사상가로서 맹자와 누스바움을 주목한 점에서, 맹자 인성론 연구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순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혁	순자사상(荀子思想)의 사회철학적(社會哲學的) 함의(含意)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2	김여진	순자의 조어(造語): 위(僞), 예법(禮法), 후왕(後王)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진함	『성자명출(性自命出)』의 심론(心論)과 『순자』의 심론(心論) 비교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4	이명수	순자철학에서 욕망 처리와 마음의 역할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5	이명수	순자에 보이는 마음의 중층적 양상과 수양 문제의 대두 –「수신편」, 「해폐편」 그리고 「정명편」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73	동양철학연구회
6	이경무	「성악(性惡)」편의 논리와 구조	철학논총 91	새한철학회
7	유영옥	순자 패도론(覇道論)의 층위 분석	대동문화연구 103	대동문화연구원
8	정영수	체화된 감정으로서 정(情)–순자철학을 중심으로–	공자학 34	한국공자학회

2018년도 순자 및 『순자』 관련 논문은 모두 8편으로 2016년 5편보다는 많고, 2017년도 14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지만 10편 내외의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1편으로 순자의 사회철학을 주제로 하였다. 김혁의 박사논문은 순자가 사회 철학적 요소로서의 사회 안정과 질서의 원천은 하늘에 있지 않고, "후천적인, 인위적인 예"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치인지학(治人之學)'의 순자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철학의 한계는 맹자사상과의 조화 및 중용(中庸)에 의한 '수기(修己)' '치인(治人)'의 조화로운 통합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밝히고, 조선 성리학에서 '수기치인'의 이상형으로써 율곡의 삶을 현대인의 모범사례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주체적 의식과 물질지상주의 대처에 바탕을 둔 순자의 사회철학은 현대사회에서의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일반 논문은 7편인데, 심론 · 성악론 · 정치 등 순자철학의 특징을 분석한 논문들이다. 이명수의 논문은 2편인데 모두 심론을 탐색함으로

써 마음의 역할이 가진 순자 철학적 가치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1편은 순자철학에 나타난 마음의 위치, 그 중층 적 양태, 그리고 수양에 대하여 주로 「수신편(修身篇)」, 「해폐편(解蔽篇)」, 「정명편(正名篇)」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다른 1편은 순자철학에서 마음은 내적으로 욕망 발산의 신체기관을 다스려, 욕망을 조절하거나 멈추게 하므로 대외적으로 그것은 사려를 쌓는 인위를 통해 욕망을 조절하고 기르는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을 밝혔다. 이 논문은 순자에 나타난 욕망 처리의 문제에 마음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는 면모를 부각시킨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진함의 논문은『성자명출(性自命出)』의 심론과 『순자』의 심론 비교를 통해 심론의 구조를 모색하였다. 필자는 심과 외물, 그리고 도, 이 삼자 간의 연관성을 증명함으로써 수양론이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정영수의 논문에서는 순자철학의 정(情)이 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념이나 비이성적인 저급한 인식을 의미하는 감정이 아니라 몸의 지각활동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특성들을 체화하여 확장되는 감정으로서 도덕적 행위의 추동력이 되는 것을 밝혔다. 유영옥의 논문에서는 맹자의 왕도정치와 순자의 패도정치를 비교 고찰하면서, 순자 패도론의 층위는 '위정(爲政) · 중법(重法)', '신(信)'이 중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밝히고, 그 층위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순자 패도론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김여진의 논문은 순자 철학의 중요한 조어(造語)들을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은 순자 철학의 심론 · 성악론(性惡論) · 정치 관련 연구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원일	중장통(仲長統)의 정치사상 연구	동서철학연구 90	한국동서철학회
2	조원일	환담(桓譚)의 형신(形神)사상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3	조원일	환담(桓譚)의 신멸론 사상에 대한 연구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조원일	왕부(王符)의 천인관계론(天人關係論) 연구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5	조원일	왕충(王充)의 생사관(生死觀) 연구	중국학논총 59	한국중국문화학회
6	이원석	이고(李翺)의 성선정악설(性善情惡說) 연구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조형근	동중서의 음양천도관(陰陽天道觀)과 자연철학적 세계	새한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새한철학회

2018년도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7편이다. 2016년 8편, 2017년 6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중서(董仲舒)에 대한 연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한당(漢唐)시대 유학자들의 연구는 한정되어 있다. 특히 2016년도에서 2018년까지 조원일이라는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육가 · 가의 · 왕충 · 중장통 · 환담 연구가 꾸준히 진행됨으로써 한(漢) 대의 주요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형근의 논문은 동중서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천인감응설의 합일정신과 그와 관련해서 자연철학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신념,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중화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2018년에 조원일의 논문 중에 「왕부(王符)의 천인관계론(天人關係論) 연구」는 2017년에 발표된 「중장통의 천인관계론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천인관계를 분석하여 국내에서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를 발표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원일의 「왕부(王符)의 천인관

계론(天人關係論) 연구」는 자연현상인 천과 감응의 의미인 천 그리고 천인관계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필자는 왕부의 천인관계론에 대하여 '천이 주재가 됨'과 '인간이 주재가 됨'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필자는 왕부의 잠부론이 당시 사회의 정치 · 철학사상 측면에 끼친 영향과 공헌이 양한 시기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왕충의 그것에 비견된다고 보았다. 한당 유학자들의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조원일 한 사람에 의한 중점적인 연구 보다는 여러 사람의 다각적인 시각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경학사상 21편 ② 철학 26편 ③ 교육 4편 ④ 정치 및 경제 8편 ⑤ 기타 3편이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73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도 경학사상 분야는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박사학위 논문과 철학 분야의 논문은 대폭 줄어들었고, 정치 및 경제 분야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이 11편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논어』 4편, 『맹자』1편, 『춘추』 1편, 『좌전』 1편, 『의례』 1편, 『상서』1편, 『예기』1편이다. 올해는 『주역』이 11편으로 작년의 13편에 비하면 다소 적으나 경학 분야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시경』을 제외하고 작년에는 발표되지 않은 『상서』 · 『의례』 · 『좌전』 등의 연구가 발표되어 경학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출토문헌 관련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춘추』·『의례』·『상서』·『예기』 분야는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2018년도에는 고르게 발표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원용준	상박초간 {주역} 감괘(欽卦) 연구	한국철학논집 56	한국철학사연구회
2	권호용	화택규(火澤睽)의 과학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88	한국동서철학회
3	서정화	『좌전』에서의 묘(廟)·궁(宮) 언급을 통한 주대(周代)의 그 쓰임 사례 일고찰(一考察)-주대(周代)의 (묘수제)廟數制 실재여부에 대한 궁구 과정에서	유교사상문화연구 72	유교문화연구소
4	서정화	『춘추』 경문에서의 묘(廟)·궁(宮) 언급을 통한 주대(周代)의 그 쓰임사례 일고찰 - 주대의 묘수제(廟數制) 실재 여부에 대한 궁구 과정에서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5	윤무학	『의례』와 선진 제자서의 상례 비교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6	김유미	고주소(古注疏)를 근간으로, 신주소(新注疏) 『상서(尙書)』 번역을 위한 제언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7	정병섭	『예기』의 별자(別子)·절종관념(絕宗觀念)에 나타난 사상적(思想的) 특징(特徵)에 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74	유교문화연구소
8	신정원	『주역』의 자연관찰과 과학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주역』에 나타난 현대자연과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1	동양고전학회
9	신정원	『주역』의 고대 자연인식론 연구- 부호체계(괘·효)와 문자체계(괘·효사)를 중심으로-	시대와철학 2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0	신정원	현대 시스템이론에서 본 『주역』의 6효구조 연구-천·지·인 삼재지도(三才之道)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6	인문학연구원
11	이상호	『주역』 건괘(乾卦)의 윤리적 함의(含意)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94	동양철학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2	이규희	『주역』에서의 시중지덕(時中之德)에 대한 고찰–간괘(艮卦)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51	한국고전번역원
13	임병학	『주역』의 '역유태극(易有太極)'절과 선진유학의 마음론 고찰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학연구소
14	정석현	『주역』에 있어서 점서(占筮)의 논리 – 괘(卦)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	범한철학 91	범한철학회
15	이난숙	『주역』 시용괘(時用卦) 해석의 의미와 특징	퇴계학논총 31	퇴계학부산연구원
16	이정희 최정준	『주역』「건괘(乾卦)」의 상반상성(相反相成)의 세계관(世界觀)에 대한 고찰(考察) – 전일 (全一)과 환원(還元)의 관점을 중심으로 –	동양문화연구 28	동양문화연구원
17	김영호	『논어』 '학이불사장(學而不思章)' 고석(考釋) – 특히 수양방법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18	임태승	"계씨장벌전유(季氏將伐顓臾)"장의 실상(實狀)과 공자 비판의 함의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19	임태승	"욕거곡삭희양(欲去告朔3羊)"에 대한 공자 비판의 함의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20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 (1) –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1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맹자』 해석 (1) –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2018년도 경학사상 분야의 연구는 전년도와 같이 『주역』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역』 분야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권호용의 논문은 『주역』의 화택규(火澤睽)괘가 가진 '어긋남'의 이치가 사람이나 동물의 시각경로에 구현되어 있는 자연법칙을 요약하여 논증하였다. 필자는 '보는 수레(見輿)', '본래의 지아비(元夫)'와 같은 괘사(卦辭)와 효사(爻辭)를 구성하는 낯선 표현들이 안구(眼球)와 뇌 속의 시각경로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작용을 가리키는 은유적 선언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필자는 주역의

64괘가 모두 사람의 몸과 자연의 사물이 작용하는 원리로부터 그 요점을 추출한 것이라면, 『주역』은 이제 심법(心法)이 아닌 과학과의 만남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신정원의 「『주역』의 자연관찰과 과학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주역』에서 발견한 과학적 사유의 흔적을 통해 그것이 현대과학의 이론들과 공유될 수 있는 지점을 논하였다. 그 근거는 주역에 제시된 자연관찰과 방법론 등이다. 나아가 『주역』의 주요개념들에 나타난 현대자연 과학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권호용과 신정원은 현대과학과 『주역』 사이에는 이상과 현실만큼이나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으나, 『주역』에 온축된 우주나 생명의 법칙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독창적인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 두 논문은 『주역』과 현대과학을 접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주역』 연구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무학의 논문은 고대 상례에 관련된 가장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문헌인 『의례』의 상복제도에 관하여 선진 제자서의 상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고대 상복제도의 원형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전년도에 서정화는 『춘추』의 왕력(王曆)을 몇 편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발표하였으며, 2018년에는 『춘추』 경문에서의 묘(廟) · 궁(宮)에 대한 주대(周代)의 쓰임 사례를 연속적으로 고찰하였다. 필자는 『춘추』 경문에 보이는 묘와 궁의 언급들 속에서 그것들은 일정 부분 사당(祠堂)의 기능이 있긴 하였지만, '천자7묘'나 '제후5묘'라는 사당으로서의 묘수제 규정에 의한 그 기능만을 갖추기 위해 조성한 건축물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필자는 『좌전』에서 묘 · 궁에 대한 집중적

인 고찰을 하였다. 기존의 『춘추』 연구에서는 주로 『춘추』의 기록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과 철학적인 담론을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전년도에 왕력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고 2018년도에는 주대(周代)의 묘(廟)·궁(宮)의 쓰임사례의 실체를 고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혁	순자사상(荀子思想)의 사회철학적(社會哲學的) 함의(含意)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2	김정겸	선진유가(先秦儒家)의 "덕(德)" 사상(思想)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철학과
3	임병식	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 선진유학에서 주희까지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철학과
4	조민환	계씨(季氏) 참월(僭越) 행위에 대한 유가(儒家) 예악론적(禮樂論的) 고찰(考察): '계씨 팔일무어정(季氏八佾舞於庭)'등 계씨(季氏) 참월(僭越) 행위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5	홍성민	맹자 사상에서 도덕의 내재성 문제 – 맹자 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6	최영진	욕구(欲求)에 대한 맹자의 인식과 성리학적(性理學的) 전개 – 인심도심(人心道心說)을 중심으로 –	동서인문학 54	인문과학연구소
7	신은화	수치심과 인간다움의 이해 – 누스바움과 맹자의 수치심 개념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8	한국동서철학회
8	진예숙	『맹자』 인용시 연구 – 성선설(性善說)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김여진	순자의 조어(造語): 위(僞), 예법(禮法), 후왕(後王)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10	진함	『성자명출(性自命出)』의 심론(心論)과 『순자』의 심론(心論) 비교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11	이명수	순자철학에서 욕망 처리와 마음의 역할	동양철학연구 73	동양철학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2	이경무	「성악(性惡)」편의 논리와 구조	철학논총 91	새한철학회
13	정영수	체화된 감정으로서 정(情)－순자철학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3	대동문화연구원
14	조원일	환담(桓譚)의 형신(形神)사상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15	조원일	환담(桓譚)의 신멸론 사상에 대한 연구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조원일	왕부(王符)의 천인관계론(天人關係論) 연구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17	조원일	왕충(王充)의 생사관(生死觀) 연구	중국학논총 59	한국중국문화학회
18	이원석	이고(李翺)의 성선정악설(性善情惡說) 연구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	조형근	동중서의 음양천도관(陰陽天道觀)과 자연철학적 세계	새한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새한철학회
20	황인석	「학기(學記)」와 「대학(大學)」의 연계성 연구	공자학 36	한국공자학회
21	양순자	예악(禮樂)에 의한 화합: 거리두기(別異)와 같아지기(合同) 사이에서	대동철학 84	대동철학회
22	조원일 김종규	중국 유가의 혈연문제와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	퇴계학논총 32	퇴계학부산연구원
23	안승우	『주역』의 죄와 벌(Ⅰ): 개인적 죄와 벌에 대한 윤리적 접근	범한철학 89	범한철학회
24	전광수	유가 천명의 역학적 해석－천명과 인성론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4	대동철학회
25	정병석	금수(禽獸)와 성인(聖人)의 사이'인금지변(人禽之辨)'과 '성아지변(聖我之辨)'을 통해 본 선진유학(先秦儒學)의 인간관	대동철학 85	대동철학회
26	김세종	선진 유가의 지식론 연구－유가 사상의 앎의 유형 고찰－	동양철학연구 95	동양철학연구회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26편으로, 대부분이 선진시대와 공자 · 맹자 · 순자와 관련된 논문이다. 그 외에는 한대(漢代)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동중서 · 환담 · 왕부 · 왕충과 당대(唐代)의 이고 등의 인물을 연구한 논문이고, '덕(德)'이나 '생사관', '성인(聖人)'등과 같이 철학개념을 주제로 삼은 논문 등이 있다. 박사 논문 중에서 김정겸의 논문은 선진유

가(先秦儒家)의 덕(德) 사상을 서주초기(西周初期)로부터 순자에 이르기까지 개괄하여 밝히고 있다. 필자는 덕(德)과 의(義)의 분화와 관련하여 유가(儒家)가 말하는 '덕(德)'의 함의가 처음부터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필자는 선진 유가의 '덕(德)' 사상은 공자에게서 토대가 마련되고, 곽점초간(郭店楚簡)의 『오행(五行)』 등에서 선험적인 덕성(德性)에 기초한 도덕행위를 '덕지행(德之行)'이라 하고, 이러한 덕성(德性)에 기초한 도덕행위를 '행(行)'으로 구분하는 등의 분기가 있고, 이 가운데 '덕지행(德之行)'은 맹자가 계승하였고, '행(行)'은 순자가 계승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가 윤리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도덕의 인성론적 기초를 중심으로 하여 유가의 윤리학을 덕 윤리학의 일종으로 생각한 것에 비해, 『논어』에서 곽점유간(郭店儒間)들에 이르기까지 유가 윤리학은 각색윤리(角色倫理) 즉 역할 윤리학적 성격이 보다 강하며, 비록 맹자에게서 덕성을 기초로 하는 윤리학 건립 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맹자』 전체에서 강조되는 것은 역시 역할 윤리학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논문의 특징은 선진(先秦) 유가(儒家) 윤리학의 분기와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서주초기(西周初期)부터 춘추시기(春秋時期)까지의 '덕(德)' 관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공자의 덕(德) 사상을 고찰하였으며, 공자 이후의 유가(儒家) 덕(德) 사상의 전환과 발전을 고찰하기 위해 곽점유간(郭店儒間)을 분석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세종의 논문은 지식 체계로서의 유가 사상이 전제하고 있는 지식론을 검토하고, 앎의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유가 지식 체계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주목하였다. 필자는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지식의 두 가지 기준, 즉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인식 주체의 상태가

'틀리지 않음'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유가 지식론에 적용하면, 『논어』의 지식론은 앎의 대상을 사람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유가 지식론이 갖는 뚜렷한 특징은 이유 알기의 유형이며, 앎의 유형 분류는 지식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오랜 논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필자의 논지이다. 이 논문은 『논어』에 전제되어 있는 유가 지식체계의 세부 주제를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지식론과 비교하여 선진 유가의 지식론을 구축한 점이 매우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대(漢代) 철학을 주제로 한 논문은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연구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연구의 깊이는 상대적으로 얕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당대(唐代)의 이고(李翺)에 관한 유일한 이원석의 논문은 이고의 성선정악(性善情惡)적 인간 본성 이론을 탐구한 것이다. 성선정악설이란, 만인의 본성은 성(誠)을 내용으로 지녀 맑고 고요하며 지각 능력을 갖고 있는 선한 존재이되, 본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감정은 악하다는 설이다. 필자는 이고가 본성의 내용으로 지목했던 "성(誠)" 개념과 그것이 주로 유래했던 중용 제20장을 분석 하고, 본성과 감정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 그의 마음 개념과 "사(思)"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성선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인간 측의 실천을 강조하려 했던 중용의 입장을 이고가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고가 성선설을 명목상 견지하면서도 순자적 · 도가적 본성 개념을 취하고자한 까닭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예행(禮行)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

가라는 인성의 본질 문제는 중국 철학사상 가장 논란거리가 되어온 문제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이원석의 논문은 이고가 맹자의 성선설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이고 사상 이해의 관건은 본성과 감정의 관계라고 보면서, 그것에 대해 한층 더 발전된 이해를 제시하고자 주력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논어』에 기반한 인성교육 모델의 이론적 기초	한국유교학회 71	유교사상문화연구
2	이시우	『논어』를 통해 본 유학의 창의성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정래	「서괘전」에 비추어 본 교육의 과정 – 건(乾) · 곤괘(坤卦)에서 태괘(泰卦)까지를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4	김정래	「서괘전」에 함의된 공부의 관점 – 태괘(泰卦)에서 이괘(離卦)까지를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년 교육 분야의 연구는 4편으로, 2017년도 7편에 비해서는 대폭 줄었다, 2017년도의 7편은 공자의 교육 방법과 인성교육, 선진유학과 순자, 그리고 『대학』과 관련된 논문이었다. 2018년도에는 공자의 인성교육과 『주역』의 괘와 교육과정을 관련시켜 연구한 논문이다. 김동민은 동양 전통 교육에서 배움의 의미를 『논어』에 기반 하여 인성교육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동양 전통의 교육을 통해 인간은 자기 완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토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인간 본성의 진면목을 찾아 보존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타인과 사회로까지 확장하여 국가와 인류를 위

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정래는 「서괘전」에 비추어 본 교육의 과정을 건(乾) · 곤괘(坤卦)에서 태괘(泰卦)까지를 중심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 여력을 갖추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서괘전」 내용은 서양의 소위 아동중심교육, 진보교육 사상에 의하여 크게 왜곡되어 '교육'이 아닌 '아육(兒育)'이 되어버린 점을 시정 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필자는 「서괘전」 에 함의된 교육 내용은 현대교육 이론도 포함하지 않은 형이상학적 논의를 포함하면서 교육의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절차적 문제, 즉 교수-학습상 성취의 문제, 교사상, 지도자상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서괘전(序卦傳)」의 건 · 곤괘(乾 · 坤卦)에서 태괘(泰卦)에 이르는 역(易)의 전개를 교육의 과정으로 분석한 선행논문을 토대로 『주역』의 상경(上經) 자체를 또 다른 관점에서 커다란 교육의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상경 건괘에서 태괘에 이르는 괘서가 주로 교육의 조건에 관련되는 '작은' 교육의 과정이라면, 태괘에서 이괘(離卦)에 이르는 괘서 (卦序)는 보다 심층적인 공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큰' 교육의 과정이라고 제시하였다. 「서괘전」에 함의된 공부의 태괘(泰卦)에서 이괘(離卦)까지의 관점은 상경을 교육의 '큰' 과정으로 본다는 것은 괘서에 따른 내용이 교육의 내 · 외적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의 공부 즉 '큰 성년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양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가 주로 공자 · 맹자 · 순자 등에 한정 되어 있었는데, 『주역』 「서괘전」에 비추어 동양적 교육의 특징을 밝히려고 시도한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태승	공자시대 '천승지국(千乘之國)' 실상(實狀)의 재구성	한국유교학회 71	유교사상문화연구
2	정용수	공자는 실패한 정치가인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	윤지원	선진유가전쟁관(先秦儒家戰爭觀)에 대한 소고(小考)－공자와 맹자의 전쟁관을 중심으로－	한국유교학회 74	유교사상문화연구
4	전병술	공자의 전인적 리더십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5	이주강	맹자와 깨어있는 자본주의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6	김영민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7	유영옥	순자 패도론(覇道論)의 층위 분석	대동문화연구 103	대동문화연구원
8	조원일	중장통(仲長統)의 정치사상 연구	동서철학연구 90	한국동서철학회

2018년도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모두 8편으로, 2017년도의 3편에 비해서는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7년도에 정치, 경제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도 정치, 경제 분야가 고르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 정용수의 논문은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 주유열국 하는 과정에 현실정치에 실패한 과정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상으로서 대동 사회를 꿈꾸었던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필자는 공자의 정치적 이상이 비록 현실정치에 부딪혀 실패한 정치가가 되고 말았지만 그가 구상한 대동의 이념은 현대의 어느 정치이론이나 국가이론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으로써 공자가 정치적으로는 현실의 벽을 초월해서 자신의 정치이론을 구상한 탁월한 정치이론가라고 주장하였다.

김영민의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필자는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이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

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고 제시하였다.

맹자의 항산 ·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고 필자는 파악하였다. 맹자의 정치 경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왕도정치와 민본사상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한다면,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5) 기타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민향	치유적 관점에서 본 孔子의 '수양적 인간론' 연구 : '감정억압'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한의철학과
2	안승우	『주역』 도덕 체계의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3	방인	『주역』과 인공지능	철학연구 145	대한철학회

2018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3편으로 2017년도 4편과 비슷하다.

안승우의 논문에서는 인간을 은유한 익숙한 타자로서의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주역』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필자는 보편성과 상황성을 아우르는 『주역』의 도덕체계가 인공지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인공

지능의 도덕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실수 보완에 관한 문제,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한 직관적 · 분석적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인간을 은유한 익숙한 타자로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시각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낯선 타자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요한 논지이다. 기타연구 논문들은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하여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논문이다. 이러한 연구 형태는 최근의 학문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기록된 62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된 소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업적이며 동시에 한국 학술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술 조사 보고서에 각각 논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일반논문 2편을 선별하여 그 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임태승의 「"계씨장벌전유(季氏將伐顓臾)"장(章)의 실상(實狀)과 공자 비판의 함의」이다. 이 논문은 계강자(季康子)가 전유(顓臾)를 공격하려 한 일을 두고 공자와 염유(冉有)가 논박을 펼치는 내용이다. 여기서 계강자(季康子)는 전유(顓臾)가 반란을 꾀하므로 노(魯)

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실력자로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염유(冉有)는 현실주의적 시각에 의해 계강자(季康子)의 입장에 동조한다. 이에 대해 공자는 전유(顓臾)라는 나라를 정명(正名)의 각도에서 규정함으로써, 계강자(季康子)를 예악붕괴(禮樂崩壞)를 일삼는 권력자로 비하했고 염유(冉有)의 강변은 겉과 속이 다른 자의 변명으로 폄하했다. 필자는 계강자(季康子), 염유(冉有), 공자 각각의 입장과 의도를 살피고 종합하여 공자와 염유(冉有)의 갈등을 크게 보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양면에 대한 이중적 현실인식은, 그 자체로 공문(孔門)의 본질적 가치라고 파악하였다.

"계씨장벌전유(季氏將伐顓臾)"장(章)에 대한 공자의 입장과 의도는 공자가 주례(周禮)라는 사회정치질서가 천하의 안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보루라 보고 비례(非禮)의 참월행위를 극도로 비난하고 왕도(王道) 정치의 구현을 힘써 설파했다는 점은 별반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계강자(季康子)의 입장과 의도에 대하여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계강자(季康子)가 전유(顓臾)를 공격하려 한 행위는, 공자가 비난한 것처럼 무도(無道)한 행위가 아니라 노(魯)나라 전체의 화평(和平)을 위한 정책 집행이라고 보았다. 즉 '민복(民服)'의 상황 아래라면 이는 단순한 참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계강자가 '민복(民服)'을 얻었다면 공자가 생각하는 '민복(民服)'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자는 애공(哀公)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民服)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굽은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이 복종하고, 굽은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정직한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군주는 사람을 등용함에 공정하게 해야 백성을 의(義)로써 복종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시 노나라 정치는 세 대부의

집안에 의해 전횡되었기 때문에 공자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계강자(季康子)가 노(魯)나라 군주를 대신해 '민복(民服)'을 획득했다면 이는 또한 그가 족민(足民)에 성공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만약 계강자(季康子)가 족민(足民)에 성공하였다면 공자는 왜 염유(冉有)를 성토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공자는 당시 계강자(季康子)가 노나라 정사를 전횡하여 군주의 권한을 빼앗고 백성을 착취함으로써 주공보다 부유하였는데, 염유(冉有)가 계씨의 가신이 되어 그를 위해 세금을 걷어 재산을 더 늘려 준 것을 책망하였다. '민복(民服)'에 관하여 맹자는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속으로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복종자가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다. 덕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부터 기뻐서 진실로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칠십의 제자가 공자에게 심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민복(民服)을 얻은 계강자(季康子)가 무도(無道)한 전유(顓臾)를 토벌한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계강자(季康子)가 권력과 민심을 장악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보면 백성들은 결코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항거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계강자(季康子)의 입장에서 노(魯)나라 군주는 대대로 위신을 잃었고, 계씨는 공을 닦아 노(魯)나라 군주를 돕게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임태승의 논문은 기존의 『논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도덕철학적 각도로만 소재를 다루지 않고, 정치 · 경제 · 군사 · 제도 · 국제관계 · 국가행정 등의 물적 토대를 감안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였고, 고증학적 및 문헌고고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계강자(季康子), 염유(冉有), 공자 각각의 관점에 대한 다면적 조망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해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학술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홍성민의 「맹자 사상에서 도덕의 내재성 문제-맹자 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으로-」이다.

필자의 말처럼, 맹자와 고자의 의외(義外) 논쟁은 고대 중국철학의 연구에서 중요한 테마로 주목받아왔다. 시마다 겐지는 『주자학과 양명학』에서 송학 출현 이후의 사상사는 내와 외의 대립, 투쟁의 역사라고 제시하였다. 물론 송학의 주장은 '내, 외'의 구분 없이 '내, 외'를 합치시킨다는 것이다.

필자는 고자가 인간의 지각에 도덕적 인지 기능은 없고 단지 외재 사물을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고, 그 지각기능이 외재적 도덕규범을 일방적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반면 맹자는 그와 반대로 외재적 대상 자체에 도덕적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도덕 지각이 대상에서 도덕적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대상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고자와 맹자의 의외(義外) 논쟁은 인간의 지각 기능에 도덕적 능력이 내장하는가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고자와 맹자의 차이는 지각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했느냐에 달려 있는데, 고자가 대상의 속성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수동적 지각 기능을 주장했다면, 맹자는 대상으로부터 도덕적 의미를 파악하는 주체의 능동적 도덕지각기능을 강조했다. 이점에서 고자와 맹자의 의외(義外)/의내(義內)의 윤리학적 입장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필자는 나아가 맹자의 도덕지각(양지)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부단히 확장되어야 하며, 양지(良知)의 확장을 위해 현실의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공부, 즉 궁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주희의 맹자 독해를 고찰하였다. 이 독법에 따르면, 도덕이 자기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에만 천착하여 현실 사태로 양지를 확장하지 않는다면, 양지는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그 실천적 의미를 상실해버릴 것이고 의내(義內)로 말하고자 했던 도덕 주체의 의의도 소실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양지가 현실에서 실현되고 현실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궁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희의 생각이자 맹자의 생각이었다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의문점을 제기해 보겠다. 맹자는 양지양능에 대하여 "웃을 줄 알고 손을 잡고 다닐 만한 아이가 그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할 리 없으며, 그 자람에 미쳐서 그 형을 공경하는 것을 알지 못할 리 없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인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의이니, 다른 까닭이 아니라 천하에 달(達)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마음은 바깥에서 이르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내 성품의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내 성품의 의이니, 이것이 바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천하에 달(達)하는 것이다. '달(達)'은 천하에 통하는 것으로 곧 확충을 말한다. 별도로 양지(良知)의 확장을 위해 현실의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공부, 즉 궁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주희의 관점이 곧바로 맹자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주희는 인식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실천을 못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여겨 궁리의 공부를 강조하였다. 즉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양지를 확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실천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맹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양지를 확충하여 인의의 덕을 이루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렇다면 양지가 현실에서 실현되고 현실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궁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희의 생각이자 맹자의 생각이라고 한 필자의 관점은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부동심〉장에 나타난 고자와 맹자의 사상적 차이점을 재조명하면서 맹자 도덕지각론의 궁극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필자는 〈부동심〉장에 대한 퀑로이슌(Kwong-loi Shun, 信廣來)의 독법에 반대하고 주희의 이해를 따라, 고자는 윤리적 교리에 대한 이해를 거부한 도덕부정론자였던 반면 맹자는 외부의 교리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내면의 도덕지각에 조응함으로써 내외의 도덕적 융합을 이루려했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맹자에 있어 도덕의 근거와 기준이 주체의 내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로부터 확장되고 외부의 도덕적 이치를 포괄하는 도덕지각은 내외를 조응하고 융합하는 전체론적 도덕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이해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로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퀑로이슌의 독법에 의하면 맹자의 관점에서는 의가 외재적이라는 고자의 주장은 의가 심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며, 내재적이라는 말로 표현한 의는 심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퀑로이슌은 맹자의 논평을 통해 맹자가 고자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폈을 뿐 고자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고, 도덕외재론으로는 보았지만 필자의 말대로 고자를 도덕부정론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둘째, 맹자는 호연지기를 설명하면서 "그 기가 의와 도에 짝하니, 이것이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고 말하였는데, 학자의 관점에 따라 논란이 많은 구절이다. 필자는 도덕적 만족감이 없다면 호연지기는 도의(道

義)의 도움을 얻지 못하여 스스로 축소되고, 이러한 맹자의 발언은 주희의 설명과 잘 부합된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주희의 생각은 호연지기가 없으면 몸이 주리게 된다는 뜻이고, 주희 당시 여자약(呂子約)은 도의가 없으면 기가 주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호연지기와 도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맹자의 본래의 뜻이 주희의 설명과 반드시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논문은 맹자와 고자의 의외(義外) 논쟁을 도덕지각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나아가 맹자의 윤리학을 주제로 도덕 내재성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였다. 필자는 고자의 사상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에 대비되는 맹자사상의 특징을 조명하였다. 맹자 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으로 윤리학의 독자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맹자 윤리학 연구의 지평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5. 평가와 전망

2018년도의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문 편수는 모두 62편이다. 2016년도 65편, 2017년도 73편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시대별로는 선진시대가 전체 62편 중 55편으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했고, 진한시기 6편으로 예년과 같으며 당나라시기 1편이 있다. 올해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62편의 논문 중에 박사논문이 4편으로 2017년도 전체 73편의 논문 중에 18편에 비하여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특히 박사 논

문은 학문 후속 세대가 꾸준히 배출되어야 하는데, 박사 논문이 대폭 줄었다는 점은 향후 이들 신진 학자의 역할과 활약을 기대할 수 없어 학문의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진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물별 연구 특징은 2018년에도 공자에 대한 연구가 13편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13편중 1편이 박사논문이지만 일반 논문은 공자 철학의 사상사적 의미를 밝힌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동중서로 대표되는 한대와 당대의 이고 유학사상가들의 연구가 끊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당 연구 분야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경학사상, 교육 분야가 예년과 비슷하고, 정치 및 경제 분야가 작년의 3편에 비해 8편으로 대폭 늘었고, 철학 분야는 작년의 36편에서 26편으로 줄었다.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 관련 연구가 작년의 13편과 비슷한 11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도 『주역』의 괘효와 과학적 사유의 흔적을 통해 그것이 현대과학의 이론들과 공유될 수 있는 연구나, 『주역』관련 출토 문헌을 분석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역』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2018년도 경학 연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춘추』·『좌전』·『의례』·『예기』등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선진 유학의

경전 등과 인공지능의 접목을 통하여 융복합적 지식 축적과 내외 조화의 인격형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장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학사상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발전 할 수 있도록 연구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단윤진

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2018년 한국유교 레포트』의 한 부분으로 2018년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 중국 송대 유학인 중국 성리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과 각 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2018년에 발표된 송대유학 관련 논문은 박사논문 6편, 일반 학술지 논문 39편으로 총 45편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여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강절, 1011~1077), 주돈이(염계, 1017~1073), 왕안석(반산, 1021~1086), 정이(이천, 1033~1107)와 남송의 이동(연평, 1093~1163), 호굉(오봉, 1105~1161), 주희(회암, 1130~1200), 장식(남헌, 1133~1180), 여조겸(동래, 1137~1181), 육구연(상산, 1139~1192), 진덕수(서산, 1178~1235)까지 총 11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별도로 추가 하였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여 1)경학 2)역학, 3)이기심성론, 4)수양론,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분석하고 소개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로 분류는 총 46편의 논문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 주돈이, 정이와 호굉, 왕안석 그리고 남송의 이동, 주희, 육구현, 여조겸, 장식, 진덕수까지 총 11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소옹에 관한 논문은 일반 학술지 논문 3편과 박사학위 논문 1편으로 총 4편이다. 주돈이는 일반 학술지 논문 3편이 있다. 왕안석은 1편, 정이천은 3편이 호굉은 1편이 있으며 이동은 1편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은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 23편 박사학위논문 4편으로 총 27편이 있다. 장식 1편, 육구현 2편, 여조겸 1편, 진덕수 1편이 있다. 인물분류에 따른 논문은 총 46편다. 그 중 박사학위 논문은 총 6편이 있는데 별도로 정리하였다.

1) 소옹(강절, 1011~1077)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희영	「邵康節 數學이 15-16세기 조선 音韻學에 끼친 영향-『訓民正音』과 徐敬德의 『聲音解』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Shaoyong(邵雍)'s mathematics on the Phonology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Centered on Hunminjeongum (『훈민정음』) and Seok Kyung Deok's shēngyīnjiě(徐敬德의 聲音解)」	밈녹문화연구 Vol.7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	조희영	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왕부지역학(王夫之易學)의 비교분석 — 괘(卦) 생성구조(生成構造) 비교와 동이점(同異點) 모색을 중심으로 = Comparison Analysis of Shao Yong'I-ching and Wang Fuchih'I-ching -Focused on Structural Comparison of Produce of the Trigrams and Seeking of Same and Different Point	대동문화연구 Vol.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정환희	소강절의 심성론과 수양론 연구 = ShaoYong's theory of xinxing and cultivation	선도문화 Vol.24	국제뇌교육 조합대학원 국학연구원
4	황성남	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Shaokangjie(邵康節) Xiangshuxue(象數學)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소강절에 관한 논문은 일반 학술지 논문 3편, 박사논문 1편, 총 4편이다. 조희영의「邵康節 數學이 15~16세기 조선 音韻學에 끼친 영향-『訓民正音』과 徐敬德의『聲音解』를 중심으로-」『民族文化硏究』Vol.78, 과「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왕부지역학(王夫之易學)의 비교분석-괘(卦) 생성구조(生成構造) 비교와 동이점(同異點) 모색을 중심으로」『大東文化硏究』Vol.103 의 2편이 있다. 그리고 정환희의「소강절의 심성론과 수양론 연구」『선도문화』Vol.24가 있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는 황성남의「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에 관한 硏究」(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논문이 있다.

2) 주돈이(염계, 1017~107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정근	주렴계의 생태 사상 = Ecological Thoughts of Zhou Lian-xi	철학 Vol.137	한국철학회
2	주광호	주돈이의 '태극동정(太極動靜)'은 주희의 '天命流行'인가? =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Quiescence of the Supreme Ultimate and the realization of Heaven's command	철학연구 Vol.58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3	장경화	周濂溪手書石刻眞蹟 = On Zhou Dunyi's Cliff Stone Carving Handwriting	율곡학연구 Vol.36	율곡학회

주돈이에 대한 논문은 3편이 있다. 신정근의 「주렴계의 생태 사상」 『哲學』Vol.137, 주광호의 「주돈이의 '태극동정(太極動靜)'은 주희의 '天命流行'인가?」 『철학연구』Vol.58, 장경화의 「周濂溪手書石刻眞蹟」『율곡학연구』Vol.36 등이 있다.

3) 왕안석(반산, 1021~1086)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인호	북송 왕안석과 남송 주희, 한국의 박대장과 이세규 의원(장군)	선비문화 Vol.33	남명학연구원

왕안석의 논문은 권인호의 「북송 왕안석과 남송 주희, 한국의 박대장과 이세규 의원(장군)」 『선비문화』Vol.33 논문이 1편 있다.

4) 정이(이천, 1033~1107)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상래	정이(程伊) 성인론(聖人論)의 특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distinctive view of Cheng I's the sage–theory	Vol.56	한국철학사 연구회
2	정종모	정이천의 권도(權道) 개념과 유학의 시대 적응= Cheng Yichuan(程伊川)'s Concept of Quan(權) and the Changes of the Times	유학연구, Vol.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황태현	북송 도학(道學)과 도통(道統)– 정이천과 도학군체를 중심으로– = Dao Xue and Confucian Orthodoxy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 With a focus on Cheng–yi–chuan and the Dao Xue Colony –	유교사상문화연구, 73집	한국유교학회

정이천의 논문은 일반 학술지 논문 3편이 있다. 정종모의 「정이천의 권도(權道) 개념과 유학의 시대 적응」 『儒學硏究』Vol.43, 황태현의

「북송 도학(道學)과 도통(道統)-정이천과 도학군체를 중심으로-」『유교사상문화연구』No.73, 그리고 김상래의 「정이(程頤) 성인론(聖人論)의 특징에 관한 고찰 」『한국철학논집』 Vol.56 등이 있다.

5) 이동(연평, 1093~116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민재	연평(延平)이 제시한 정좌법의 도덕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방안 = Study on the Moral Educational Utilization and Plan for Jingzuo Method suggested by Yan Ping	철학논총, Vol.94	새한철학회

이동에 대한 논문은 김민재의 「연평(延平)이 제시한정좌법의 도덕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방안」『哲學論叢』Vol.94, 논문이 1편이 있다.

6) 호굉(오봉, 1105~1161)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병환 정경훈	호굉의 성론재론	공자학 34	한국공자학회

호굉에 대한 논문은 김병환, 정경훈의 공저인 「호굉(胡宏)의 성론재론(性論再論)」『孔子學』Vol.34 논문이 1편 있다.

7) 주희(회암,1130~1200)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방원	朱熹의 氣感應論 硏究 = A Study on the Chi Sympathy Theory of Chushi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	윤석영	주희 도덕철학의'자연주의적 오류'문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3	임병식	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 선진유학에서 주희까지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4	최경훈	『朱子大全』選集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thologies of Jujadaejeon(朱子大全)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5	강경헌	한국 주자학 연구의 두 시선-철학자 주희 혹은 유학자 주희- = Two Viewpoints on the study of Zhu-Xi in Korea	한국학연구, No.4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6	권인호	북송 왕안석과 남송 주희, 한국의 박대장과 이세규 의원(장군)	선비문화, Vol.33	남명학연구원
7	김범수	거경과 심미의 상호작용에 기초한『주자대전』의 인성함양론 = The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of『Zhujadaejeon』based on Co-operative Interaction of Geogyung and Aesthetic Activity	유학연구, ol.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김우형	주희의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에 나타난 만년 사상 연구- 연단술의 재해석과 새로운 영생관의 모색-	유학연구, Vol.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김재화	주희의 '格物致知' 개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Zhu-Xi(朱熹)'s Concept of Gewuzhizhi(格物致知)	동아문화, Vol.5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0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理一分殊'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Unitary and the Divided Principle" in Zhu Xi's Yi-ology	철학, Vol.134	한국철학회
11	김조영	仁義禮智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朱子, 茶山, 戴震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s of 仁, 義, 禮, 智 of Zhu Xi, Dasan, and Dai Zhen	한문고전연구, Vol.37	한국한문고전학회
12	김태완	朱熹 格物致知論의 사상사적 意義 = The Significance of Zhu-xi's Kyeokmool-chizi(格物致知, ge-wu-zhi-zhi) in the intellectual history	동양철학연구, Vol.95	동양철학연구회
13	김한상	體用論과 朱熹 철학의 太極 개념에 대한 고찰 = The Theory of Ti-Yong and Taiji in Zhu Xi's Philosophy	유교사상문화연구, Vol.74	한국유교학회
14	박정숙	朱熹의『詩經』론에 대한 許學夷의 비평 고찰 = A study on Xu-Xueyi's criticism of Zhuxi's Shijing theory	세계문학비교연구 NO.63	세계문학비교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5	박준철	주희(朱熹)의 지행공부론(知行工夫論)에 관한 소고(小考)-토대 공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u Hsi's Knowledge and Practice Learning Theory-Focusing on Foundation of Learning-	윤리연구, ol.123	한국국민윤리학회
16	박찬영	주자의 '居敬'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신체론적 해석 = Zhuzi's JuJing from the perspective of Merleau-Ponty on the body	동양철학, No.50	한국동양철학회
17	방경훈	주희(朱熹)의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원리개념과 자아전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rinciple concept and the Confucian Self-expanding of Zhu Xi's I · IL-Bunsu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6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8	신상후	주희(朱熹) 철학에서 이순(耳順)의 형이상학적 의미-『논어(論語)』'지우학(志于學)' 장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으로 = The Metaphysical Meaning of Isoon(耳順) in Zhu Xi's Philosophy based on Zhu Xi's analysis on 'Jiwoohak(志于學)' in Confucian Analects	대동철학, Vol.85	대동철학회
19	안재호	朱熹의 理는 本體인가? = Is ZhuXi's Li[理] the Benti[本體]?	유교사상문화연구, Vol.71	한국유교학회
20	이연정	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공부론 = A study on Lü Zuqian's cultivation by Zhu Xi and Lujiuyuan's compromise	중국학논총, No.57	고려대학교 중국학 연구소
21	이재훈	주희(朱熹) ≪시집전(詩集傳)≫ 〈정풍(鄭風)〉 〈청인(淸人)〉 · 〈고구〉 · 〈준대로(遵大路)〉 신구전(新舊傳)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nnotations of "Zhengfeng" "Qingren", "Gaoqiu" and "Zundalu" in the Old and New Versions of Zhu Xi's Shi jizhuan	중국어문논총 Vol.86	중국어문연구회
22	이혜영 김원명	원효(元曉)의 일심이문(一心二門)과 주희(朱熹)의 심통성정(心統性情)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Wonhyo's 'One mind two aspects(一心二門)' and Zhu Xi's 'The Theory that Mind Controls Human Nature and Emotion(心統性情)'	철학논총, Vol.93	새한철학회
23	임헌규	주자의 〈논어집주〉에서 仁개념 주석 = The Reinterpretation of Jen(仁)-concept in Confucian analects on Chu-Hsi (朱熹)	온지논총, No.54	온지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4	정석도	주희의 기론(氣論)과 '기상(氣象)'의 미학－주자어류(朱子語類)를 중심으로－= Aesthetics of Zhu Xi's Theory of Qi(氣) and Qixiang(氣象)－Focusing on the Zhuziyulei 朱子語類－	유학연구, Vol.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5	최정준	주자의 괘변이론 연구－『본의』의 괘변설과 『역학계몽』의 괘변도를 중심으로－	동방문화와 사상, Vol.4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26	홍성민	주자 철학에서 의(義) 개념의 다층적 함의－처물위의(處物爲義)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The Multiple Meanings of "Righteousness" in Zhu Xi's Philosophy	유학연구, Vol.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7	홍성민	맹자 사상에서 도덕의 내재성 문제 — 맹자(孟子) 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朱熹)의 해석을 중심으로 — = The Interpretation of Mencius' Moral Internalism from the Viewpoint of Zhu Xi	동양철학연구, Vol.94	동양철학연구회

주희에 대한 논문은 총 27편으로 그 중 일반 논문 23편, 박사논문 4편이 있다. 주희에 대한 논문은 송대 성리학 논문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제도 다양 하여 경학, 역학, 이기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에 골고루 분포 되어있다. 주희에 대한 매우 다양한 주제의 새로운 논문들이 게재되어 새로운 각도에서 주희를 조망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8) 장식(남헌, 1133~1180)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연정	남헌 장식의 수양론연구–호상학과 주자학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장남헌에 대한 논문은 이연정의 「남헌(南軒)장식(張栻)의 수양론 연

구-호상학과 주자학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f Nan xian(南軒) Zhangshi(張栻)'s cultivation - Focusing on the mutual influence of Huxiangxue and Zhuzixue」『철학논집』Vol.58 논문이 1편 있다.

9) 여조겸(동래, 1137~1181)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연정	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공부	중국학논총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여조겸에 대한 논문은 이연정의「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공부론 = A study on Lü Zuqian's cultivation by Zhu Xi and Lujiuyuan's compromise」『中國學論叢』No.57 논문이 1편있다.

10) 육구현(상산, 1139~1192)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재호	육구연의 "실학(實學)" 체계 천석(淺析)(Ⅰ)-이론 기반인 "심즉리(心卽理)"를 중심으로 = A Shallow Analysis on the System of LuJiuYuan[陸九淵]'s Practical Learning[實學]	공자학, Vol.36	한국공자학회
2	이연정	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공부론 = A study on Lü Zuqian's cultivation by Zhu Xi and Lujiuyuan's compromise	중국학논총 No.57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육구현에 관한 논문은 안재호의「육구연의 "실학(實學)" 체계 천석(淺析)(Ⅰ) - 이론 기반인 "심즉리(心卽理)"를 중심으로 = A Shallow Analysis on the System of LuJiuYuan[陸九淵]'s Practical Learning[實學]」『孔子學』Vol.36, 이연정의「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공부론

= A study on Lü Zuqian's cultivation by Zhu Xi and Lujiuyuan's compromise」『中國學論叢』No.57 등 2편의 논문이 있다.

11) 진덕수(서산, 1178~1235)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지훈	진덕수의 태극설로 본 남송후기 리학사상의 경향	유교사상문화연구 No.72	한국유교학회

진덕수의 논문은 박지훈의 「眞德秀의 "太極"설로 본 南宋後期 理學思想의 경향 = A Study on a Tendency of the Latter Part of Southern Song Dynasty 理學思想 Lixue Sixiang through」『유교사상문화연구』 No.72, 가 1편 있다.

12) 송대 유학 관련

번호	저자	논문 제목	발행기관
1	최경훈	『朱子大全』 選集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thologies of Jujadaejeon(朱子大全)	경북대학교 대학원
2	서방원	朱熹의 氣感應論 硏究 = A Study on the Chi Sympathy Theory of Chushi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3	임병식	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 선진유학에서 주희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4	윤석영	주희 도덕철학의'자연주의적 오류'문제에 관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5	정환희	도남학파의 심성수양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6	황성남	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Shaokangjie(邵康節)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년 송대 유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총 6편이다.

최경훈의 「『朱子大全』 選集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thologies of Jujadaejeon(朱子大全)」(경북대학교 대학원), 서방원의 「朱熹의 氣感應

論 硏究 = A Study on the Chi Sympathy Theory of Chushi」(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임병식의「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 선진유학에서 주희까지」(고려대학교 대학원), 윤석영의「주희 도덕철학의 '자연주의적 오류'문제에 관한 연구」(韓國學中央硏究院), 정환희의「도남학파의 심성수양론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황성남의「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Shaokangjie(邵康節) Xiangshuxue(象數學)」(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등이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역학, 3)이기론, 4)수양론,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인물별 분류에 중복되지만 그 외의 논문을 포함하면 51편이다. 많은 논문들이 각각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렵고 또한 주제별로 중복 되는 부분도 많아서 한 가지 범주로 넣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당 부분의 논문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각 주재별 분류 논문의 편수는 경학 6편, 역학 5편, 이기심성론 12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3편, 비교연구 4편, 기타 11편이다.

1) 경학[역학, 춘추, 사서]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정숙	朱熹의『詩經』론에 대한 許學夷의 비평 고찰 = A study on Xu-Xueyi's criticism of Zhuxi's Shijing theory	세계문학비교연구, No.63	세계문학비교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	신상후	주희(朱熹) 철학에서 이순(耳順)의 형이상학적 의미-『논어(論語)』 '지우학(志于學)'장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으로=The Metaphysical Meaning of Isoon(耳順) in Zhu Xi's Philosophy based on Zhu Xi's analysis on 'Jiwoohak(志于學)' in Confucian Analects	대동철학, Vol.85	대동철학회
3	이재훈	주희(朱熹) ≪시집전(詩集傳)≫ 〈정풍(鄭風)〉 〈청인(淸人)〉·〈고구〉·〈준대로(遵大路)〉 신구전(新舊傳)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the Annotations of "Zhengfeng" Qingren", "Gaoqiu" and "Zundalu" in the Old and New Versions of Zhu Xi's Shi jizhuan	중국어문논총, Vol.86	중국어문연구회
4	임헌규	주자의 〈논어집주〉에서 仁개념 주석=The Reinterpretation of Jen(仁)-concept in Confucian analects on Chu-Hsi (朱熹)	온지논총 No.54	온지학회
5	홍성민	맹자 사상에서 도덕의 내재성 문제-맹자(孟子) 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朱熹)의 해석을 중심으로--=The Interpretation of Mencius' Moral Internalism from the Viewpoint of Zhu Xi	동양철학연구, Vol.94	동양철학연구회

경학을 보자면 『시경』과 『논어』 『맹자』등의 연구가 주로 주희의 해석에 의해서 연구한 것을 알 수 있다.

2) 역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주희의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에 나타난 만년 사상 연구- 연단술의 재해석과 새로운 영생관의 모색-	유학연구 Vol.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理一分殊'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Unitary and the Divided Principle" in Zhu Xi's Yi-ology	철학 No.134	한국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조희영	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왕부지역학(王夫之易學)의 비교분석 — 괘(卦) 생성구조(生成構造) 비교와 동이점(同異點) 모색을 중심으로 = Comparison Analysis of Shao Yong'I-ching and Wang Fuchih'I-ching — Focused on Structural Comparison of Produce of the Trigrams and Seeking of Same and Different Point	대동문화연구, Vol.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최정준	주자의 괘변이론 연구 - 『본의』의 괘변설과 『역학계몽』의 괘변도를 중심으로 -	동방문화와 사상, Vol.4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동양문화 연구소

역학은 모두 5편으로 주희와 소강절 역학에 대한 연구이다. 주희 역학에서 이일분수에 대한 연구와 또 소강절 역학과 왕부지의 역학을 비교한 논문이 있다.

3) 이기심성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지훈	「眞德秀의 "太極"설로 본 南宋後期 理學思想의 경향 = A Study on a Tendency of the Latter Part of Southern Song Dynasty 理學思想 Lixue Sixiang through」	유교사상문화연구, Vol.72	한국유교학회
2	방경훈	주희(朱熹)의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원리개념과 자아전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rinciple concept and the Confucian Self-expanding of Zhu Xi's I · IL-Bunsu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6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 연구원
3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理一分殊'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Unitary and the Divided Principle" in Zhu Xi's Yi-ology	철학 Vol.134	한국철학회
4	김병환 정경훈	胡宏의 性論 再論 = The reargument on Hu Hong's Xing Theory(性論)	공자학, No.34	한국공자학회
5	김진무 류화송	도생(道生)의 '리(理)'와 이학(理學)의 '이일분수(理一分殊)' = Daosheng(道生)'s 'Li' and Neo-Confucianism's 'One Principle and Its Many Manifestations(理一分殊)'	동아시아불교문화 Vol.33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金漢相	體用論과 朱熹 철학의 太極 개념에 대한 고찰 = The Theory of Ti-Yong and Taiji in Zhu Xi's Philosophy	유교사상문화연구, Vol.74	한국유교학회
7	서방원	朱熹의 氣感應論 硏究 = A Study on the Chi Sympathy Theory of Chushi	박사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8	안재호	朱熹의 理는 本體인가? - 리 개념의 여러 문제 정리 - = Is ZhuXi's Li[理] the Benti[本體]?	유교사상문화연구, Vol.71	한국유교학회
9	정석도	주희의 기론(氣論)과 '기상(氣象)'의 미학 -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중심으로 - = Aesthetics of Zhu Xi's Theory of Qi(氣) and Qixiang(氣象) - Focusing on the Zhuziyulei 朱子語類 -	유학연구 Vol.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주광호	주돈이의 '태극동정(太極動靜)'은 주희의 '天命流行'인가? =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Quiescence of the Supreme Ultimate and the realization of Heaven's command	철학연구 Vol.58	대한철학회
11	이승환	리일분수(理一分殊) 담론의 사회 · 현실적 의미와 기능 - 성리학의 신분제 정당화 문제를 중심으로 = Social Philosophical Analysis of li-yi-fen-shu(理一分殊)	철학연구 Vol.57	대한철학회
12	이혜영 김원명	원효(元曉)의 일심이문(一心二門)과 주희(朱熹)의 심통성정(心統性情)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Wonhyo's 'One mind two aspects(一心二門)' and Zhu Xi's 'The Theory that Mind Controls Human Nature and Emotion(心統性情)	철학논총 Vol.93	새한철학회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모두 12편이다. 이것은 주제별 분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 리일분수에 대한 논문이 4편이며 태극에 대한 논문도 3편이다. 그 외 이기 체용 성론에 관한 논문 등이 있다.

4) 수양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민재	연평(延平)이 제시한 정좌법의 도덕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방안 = Study on the Moral Educational Utilization and Plan for Jingzuo Method suggested by Yan Ping	철학논총 Vol.94	새한철학회
2	김범수	거경과 심미의 상호작용에 기초한『주자대전』의 인성함양론 = The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of『Zhujadaejeon』based on Co-operative Interaction of Geogyung and Aesthetic Activity	유학연구 Vol.45	충남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3	김상래	정이(程頤) 성인론(聖人論)의 특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distinctive view of Cheng I's the sage-theory	한국철학논집, No.58	한국철학사연구회
4	문종하	신유학의 생생(生生)의 인(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Benevolence(仁, ren)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生生, shengsheng) of Neo-Confucianism	유학연구 Vol.44	충남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5	박준철	주희(朱熹)의 지행공부론(知行工夫論)에 관한 소고(小考)-토대 공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u Hsi's Knowledge and Practice Learning Theory-Focusing on Foundation of Learning-	윤리연구 Vol.123	한국국민윤리학회
6	박찬영	주자의 '居敬'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신체론적 해석 = Zhuzi's JuJing from the perspective of Merleau-Ponty on the body	동양철학 No.50	한국동양철학회
7	이연정	남헌(南軒)장식(張栻)의 수양론 연구- 호상학과 주자학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f Nan xian(南軒) Zhangshi(張栻)'s cultivation-Focusing on the mutual influence of Huxiangxue and Zhuzixue	한국철학논집 No.58	한국철학사연구회
8	이연정	육구연과 주희의 절충을 통한 여조겸의 수양공부론 = A study on Lü Zuqian's cultivation by Zhu Xi and Lujiuyuan's compromise	중국학논총 Vol.57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9	정환희	소강절의 심성론과 수양론 연구 = ShaoYong's theory of xinxing and cultivation	선도문화, Vol.2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10	정환희	도남학파의 심성수양론 연구	박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양론은 10편이 있다. 도남학파의 심성수양론을 비롯하여 소강절, 육구연, 여조겸, 장식, 정이, 주희, 이동까지 다양한 인물의 수양론에 관한 연구가 있다. 특히 주자의 居敬에 대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메를로 퐁티의 신체론적 해석은 흥미로운 시도이다.

5) 인식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재화	주희의 '格物致知' 개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Zhu-Xi(朱熹)'s Concept of Gewuzhizhi(格物致知)	동아문화 Vol.5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	김태완	朱熹 格物致知論의 사상사적 意義 = The Significance of Zhu-xi's Kyeokmool-chizi(格物致知,ge-wu-zhi-zhi) in the intellectual history	동양철학연구 Vol.95	동양철학연구회
3	홍성민	주자 철학에서 의(義) 개념의 다층적 함의 - 처물위의(處物爲義)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 The Multiple Meanings of "Righteousness" in Zhu Xi's Philosophy	유학연구 Vol.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 비교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조영	仁義禮智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 - 朱子, 茶山, 戴震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s of 仁, 義, 禮, 智 of Zhu Xi, Dasan, and Dai Zhen	한문고전연구 Vol.37	한국한문고전학회
2	조희영	소강절역학(邵康節易學)과 왕부지역학(王夫之易學)의 비교분석 - 괘(卦) 생성구조(生成構造) 비교와 동이점(同異點) 모색을 중심으로 = Comparison Analysis of Shao Yong'I-ching and Wang Fuchih'I-ching — Focused on Structural Comparison of Produce of the Trigrams and Seeking of Same and Different Point	대동문화연구, Vol.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이재훈	주희(朱熹) ≪시집전(詩集傳)≫ 〈정풍(鄭風)〉 〈청인(淸人)〉 · 〈고구〉 · 〈준대로(遵大路)〉 신구전(新舊傳)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nnotations of "Zhengfeng" Qingren", "Gaoqiu" and "Zundalu" in the Old and New Versions of Zhu Xi's Shi jizhuan	중국어문논총 Vol.86	중국어문연구회
4	이혜영 김원명	원효(元曉)의 일심이문(一心二門)과 주희(朱熹)의 심통성정(心統性情)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Wonhyo's 'One mind two aspects(一心二門)' and Zhu Xi's 'The Theory that Mind Controls Human Nature and Emotion(心統性情)'	철학논총, Vol.93	새한철학회

비교논문은 4편이 있다. 소강절 역학과 왕부지 역학의 비교와 원효의 일심이문과 주희의 심통성정등을 비교한 논문 등이 있다.

7)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경현	한국 주자학 연구의 두 시선-철학자 주희 혹은 유학자 주희- = Two Viewpoints on the study of Zhu-Xi in Korea	한국학연구 No.4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	권인호	북송 왕안석과 남송 주희, 한국의 박대장과 이세규 의원(장군)	선비문화 No.33	남명학연구원
3	신정근	주렴계의 생태 사상 = Ecological Thoughts of Zhou Lian-xi	철학, No.137	한국철학회
4	안재호	육구연의 "실학(實學)" 체계 천석(淺析)(Ⅰ) — 이론 기반인 "심즉리(心卽理)"를 중심으로 = A Shallow Analysis on the System of LuJiuYuan[陸九淵]'s Practical Learning[實學]	공자학 Vol.36	한국공자학회
5	윤석영	주희 도덕철학의'자연주의적 오류'문제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韓國學中央研究院
6	임병식	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 선진유학에서 주희까지	박사논문	고려대학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7	장경화	周濂溪手書石刻眞蹟 = On Zhou Dunyi's Cliff Stone Carving Handwriting	율곡학연구 Vol.36	율곡학회
8	정종모	생명권 담론으로서 송명유학의 가능성: 인권을 넘어 동물권으로 = Possibility of Confucianism as animal rights discourse	생명연구 Vol.48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9	정종모	정이천의 권도(權道) 개념과 유학의 시대 적응 = Cheng Yichuan(程伊川)'s Concept of Quan(權) and the Changes of the Times	유학연구 Vol.43	충남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10	황성남	邵康節 象數學의 淵源과 特徵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haokangjie(邵康節) Xiangshuxue(象數學)	박사논문	대구한의대학교
11	황태현	북송 도학(道學)과 도통(道統) = Dao Xue and Confucian Orthodoxy in the Northern Song Dynasty－With a focus on Cheng–yi–chuan and the Dao Xue Colony－	유교사상문화연구, Vol.73	한국유교학회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진덕수(眞德秀)의 "태극(太極)"설로 본 남송후기 이학사상의 경향」(박지훈)

이 논문은 진덕수의 태극설로 본 남송후기의 이학사상의 경향에 관한 것이다. 박지훈은 그의 논문에서 주희의 재전 제자인 진덕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진덕수는 남송말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태극'은 '리(理)', '도(道)의 개념과 더불어 성리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남송시대 학자인 주희에 이르러서 중요시된다. 진덕수는 주희와 같이 '태극'을 '리'와 같은 존재로서 천지만물의 생성의 근거인 동시에 천지만물 가운데에 내재된 존재로서 이해하였다. 또한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마음속에 구비되어 '성'이 되는데 '성'을 '태극'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덕수는 '태극'을 완전한 존재로서 천지만물을

총괄해서 말해도 '하나의 태극'이고 천지만물을 구분해서 말해도 각각 '하나의 태극'으로 보았다. 진덕수는 소옹(邵雍)의 '심위태극'에 대하여 그 마음을 '태극'이라 하여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 혹은 도덕적 기준이 보편적이며 절대적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마음 수양을 통해 다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진덕수는 이것을 통해 임금의 마음 즉 '태극'이 내재된 마음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임금의 마음수양을 강조하여 『대학연의』를 저술하였으며 『서경』「대우모」편의 열여섯 글자에 대해 주자의 제자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심학(心學)'의 개념을 사용하여 '만세 심학의 연원'으로 규정하였다. 진덕수가 '태극'을 통하여 마음수양의 근거를 제시하고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남송후기 성리학의 특징이다.

「주희의 리(理)는 본체(本體인)가? – 리 개념의 여러 문제 정리 –」(안재호)

이 논문은 주희의 리 개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안재호에 의하면 주희의 철학체계에서 리 개념은 본체론에서 뿐만 아니라 심성론과 수양론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희의 리 개념에는 또한 표면적으로 보기에 양립 불가능한 몇 가지 주장들이 혼재한다. 안재호의 작업은 주희를 도와 보다 유의미한, 나름의 가치를 지닌 정합적 철학체계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주희는 현실의 악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매진했고, 그가 선택한 해결의 방식은 분석적이요 인식적이었다. 그래서 리를 형이상의 초월 본체로 상정하여 도덕실천을 위한 절대불변의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대로 따라야 하는

공부를 강조했다. 그는 주희의 학술목표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이해의 맥락에서 그의 본체 개념 - 리를 분석했다. 주희가 말하는 리는 '초월적 형식규정'이고, 그 발용은 '추상적 형식 작용'이다. 그리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는 천지만물의 보편성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세계에서는 리가 기에 제한되어 각이한 개체성을 표현하게 된다. 이런 이론체계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정적으로 이해할 때, 주희의 리는 본체로 인정할 수 있다.

「주자의 괘변이론 연구 – 『본의』의 괘변설과 『역학계몽』의 괘변도를 중심으로 –」(최정준)

주자는 『본의』에서 卦變을 『주역』』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주역』』의 19괘에 대해 구체적인 괘변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주자는 왕필에서 이천으로 이어지는 의리역 계열에서의 卦變에 관한 인식에 비판적이었다.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괘변이론을 펼친 주진의 괘변이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래서 독자적인 괘변이론을 구상하였고, 그 결과 19괘에 관한 괘변이 론을 주장하였다. 주자의 괘변이론은 의리적으로는 「단전」에 근거하고 상수적으로는 인접한 효들끼리의 교환이였다. 이 두 가지 원칙가운데 상수적 원리인 인접한 효들끼리의 변화라는 점을 『역학계몽』 괘변도와 연관해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자의 괘변이론의 의리적 근거는 『주역』의 「단전」이라 할 수 있으며 상수학적으로 「역학계몽」의 괘변도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주렴계의 생태 사상」(신정근)

유교는 일찍이 지구 생태계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 위기와 생명의 대멸종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교사상 중 '만물일체(萬物一體)'설은 인간 중심주의와 대척 지점에 서있는 사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한 생명체의 고통은 공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감은 지구 생태계에 대해 인간 중심주의(anthropocentrism)가 관철하는 상황과 다른 대응과 책임을 요구한다. 주렴계의 '창전초부제' 고사는 만물일체를 구현하고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할 만하다.

주렴계의 '창전초불제'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그럼에도 철학과 미학의 역사에 던진 영향은 적지 않다. 정명도도 유사한 체험을 하며 주석을 달았고 주희는 공자의 '무우귀영(舞雩歸詠)'과 주렴계의 '창전초부제'를 독서의 즐거움을 결합시켰다. 왕양명은 아예 "창전초부제 고사에 대한 최고의 주석을 달려고 노력했다. 창전초부제 고사는 사람이 세계를 이해하는 조그만 창을 넘어 형이상학적 체험이자 시적 정취이자 심미적 쾌감을 대변하는 큰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창전초부제 고사는 '연비어약(鳶飛魚躍)'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인간중심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동류이자 동기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18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성리학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주요논문을 소개하고 정리 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 주돈이, 왕안석, 정이, 호굉과 남송의 이동, 주희, 장식, 여조겸, 육구현, 진덕수까지 총 11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 하였다. 인물별 논문은 총 46편이다. 소옹에 관한 논문은 총 5편으로 일반 논문 4편, 박사학위 논문이 1편 있다. 주돈이는 학술 논문이 3편이 있으며 왕안석 1편, 정이는 3편이 있다. 이동에 관한 논문은 일반 논문 1편이 있으며 호굉도 1편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은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 23편 박사학위논문이 4편으로 총 27편이 있다. 특히 주희의 논문은 다른 논문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식 1편, 여조겸 1편, 육구연 2편, 진덕수 1편이 있다.

2017년에는 박사학위 논문 2편과 일반논문 64편으로 총 66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으며 특히 주희에 관한 논문만 총 44편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총 46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으며 주희에 관한 논문도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도 총 27편이다. 전년도에 비해서 논문이 현저하게 급감하였음을 알 수있다. 다만 박사학위 논문은 증가하였다.

둘째, 주제별 분류는 1) 경학, 2) 역학, 3) 이기심성론, 4) 수양론, 5) 인식론, 6) 비교, 7)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매우 많은 논문들이 각각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렵고 또한 주제별로 중복 되는 부분도 많아서 한 가지 범주로 넣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당 부분의 논문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인물별 분류에 중복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논문을 포함하여 52편이다.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6편, 역학 5편, 이기심성론 12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3편, 비교 4편, 기타 11편이다.

2017년에는 경학 10편, 이기론 3편, 심성론 8편, 윤리수양론 22편, 인식론 2편, 비교 10편, 기타 11편으로 총 66편이다. 전년도를 비교하면 주제별 분류에서도 논문의 편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에서는 박지훈, 안재호, 최정준 신정근의 논문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학자들과 현대 사회와 접목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이 있는 논문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제3장

명청대 및 근대 유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8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 · 청대 유학 및 근대〉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개별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연구재단 수록 논문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명 · 청대 유학〉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7편으로 조사되었다. 〈근대〉 시기는 4편이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물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2. 인물별 분류

1) 왕양명 관련 논문(1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태모	양명의 본체와 공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 · 사상 · 문화
2	박길수	왕수인의 감정론 연구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고재석	양명 만물일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4	전상모	양명 심학의 미학적 이해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5	임홍태	왕수인과 손응오의 四書觀 비교 연구 –「傳習錄」과 「四書近語」를 중심으로 –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6	이천일	왕양명 교육론의 교육원리 고찰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7	김세정	양명심학을 통해 본 돌봄과 치유의 효 인성교육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8	선병삼	양명심학과 명대 정치문화: 각민행도(覺民行道)를 중심으로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유교사상문화연구
9	선병삼	구양덕 양지론의 종합적 이해– 천리명각, 시비지심, 적자지심을 중심으로 –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10	박현정	양명후학 섭표 歸寂說의 體用一源 연구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11	신현승	明末浙江禪文化的盛況與儒教的應對—以靜坐爲中心 –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학논집

〈명청대 유학〉 전체 17편의 논문 중에서 양명학 관련 논문이 11편으로 전체 편수의 65%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2017년도에 80%를 상회하는 수치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5년도 9편, 2016년도 12편, 2017년 21편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올해는 다시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명 · 청대 중국 유학 연구는 여전히 양명학 관련 연구가 중심에 있음을 또다시 확인했다.

(1) 안태모의 〈양명의 본체와 공부에 관한 연구〉는 사구교를 중심으로 왕양명의 본체와 공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글이다. 사구교의 시작을 거론하자면 당연히 왕기와 전덕홍의 이른바 천천교문답이다. 후에 동림학파의 영수로 활동한 고헌성이 사구교 제1구를 비판했다. 사구교 논쟁사에서 중요한 한 매듭에 해당한다. 안태모는 이상의 내용을 살핀

후에 양명의 본체와 공부에 대한 이해를 총괄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안태모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다. "왕기는 심의지물(心·意·知·物)이 구조적 연관성에 의거하여 본체의 무선무악(無善無惡)을 깨닫는 것이 공부임을 주장했지만, 습심(習心)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악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전덕홍은 위선거악(爲善去惡) 공부의 당위성에 의거하여 본체를 회복하는 공부를 견지했지만 본체에서의 공부를 부정함으로서 무선무악의 함의를 깨닫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명은 두 사람이 상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체와 공부가 즉체즉용(卽體卽用)임을 강조한다. 고헌성이 무선무악을 두고 성선설을 부정했다는 비판은 양명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고헌성은 무선무악한 본체와 위선거악의 공부는 상호 모순되며, 본체를 무선무악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위선거악의 공부가 위축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유선무악(有善無惡)의 본체를 제시하고 위선거악의 공부를 통해 지선한 본체의 확충을 강조한다. 그러나 양명은 무선무악은 공부의 근거가 아니라 습심에 의한 선악시비(善惡是非)의 분별과 집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면서 자발적인 도덕실천을 강조한다. 본체와 공부가 통일된 경지는 무엇인가? 바로 락(樂)이다."

안태모의 논의는 왕기 본체, 전덕홍 공부라는 도식에 충실한 견해다. 이 관점은 전통적이지만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입장이다. 치양지 공부는 양지대로 하는 공부로 본체의 주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본체와 공부를 둘로 나눌 수 없다.

(2) 박길수의 〈왕수인의 감정론 연구〉는 왕양명의 정감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 의의를 해명하고자 한 글이다. 양명이 성이 아니라 심(良知)를 중심에 둔 이상 필연적으로 심(인지, 정감, 의지의 종합체)의

정감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지는 시비지심이고 사단으로 도덕정감이기 때문이다.

박길수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다. "양명은 심의 본체와 작용을 정감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재구성한다. 체용의 관점에서 심의 즐거움, 호오, 감정의 상관관계를 위상학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학 이념으로 제시한 심신지학(心身之學) 공부론의 토대를 마련한다. 공부의 핵심은 감정의 중절을 성취하는데 있으며, 그 목적은 심의 본체인 즐거움을 체인하기 위해서이다. 양명이 정감에 근거하여 심성론을 새롭게 건립한 까닭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주자학이 형이상과 형이하의 구도 아래 심과 성을 구분하고, 성즉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감을 심의 본질과 특징에서 배제한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윤리학의 인간학적 토대를 다진 데 있다. 성인의 경계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정감의 함양과 고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박길수의 본 논문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양명의 정감론을 현대의 언어로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표현하려고 시도한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3) 고재석의 〈양명 만물일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는 양명의 만물일체를 논구한 글이다. 만물일체는 양명 심학의 전유물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양명이 자신의 심학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심학의 궁극적 지향으로 만물일체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후 양명 심학 내에서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되었다. 특히 주자가 지성주의를 표방하면서 만물일체 사상을 경계한 태도와 대비되면서 양명 심학의 특징으로 부상했다.

고재석이 정리한 내용은 이렇다. "양명은 만물에 대한 존재론적 구

조 형식과 일체에 대한 본체론적 의미 규정을 통해 자기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그 의의를 정립하고 만물과 일체를 실현하는 수양공부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영명한 마음은 만물을 주재하는 주체로 만물은 영명한 마음에 의존하여 그 가치와 의의를 획득한다. 동시에 영명한 마음은 만물과의 감응 속에서 인식 대상에 따라 자기 모습을 새롭게 규정한다. 만물이 없으면 영명한 마음도 존재할 수 없다. 영명한 마음과 만물은 주객의 구분이 없고 본래 합일되어 있는 관계다. 만물은 인식 이전에 하나의 기(氣)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유행하고 감통한다. 다만 존재론적 합일은 영명한 마음에 기초했을 때 성립 가능하다. 마음의 본체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형이상학적 본성이 아니라 세계 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시되는 공감의 감정이다."

고재석의 본 논문은 기존의 만물일체 논의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한 글이다. 육상산 심학 전공자인 필자가 연구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해의 심화를 도모한 글로 사료된다.

(4) 전상모의 〈양명 심학의 미학적 이해〉는 양명 심학을 미학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미학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학과 심학을 단순 비교한다면 심학에서 풍부한 미학적 자원을 살필 수 있다. 아름다움 자체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학 체험을 중심에 둔 다면 심학과의 연관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상모가 서술한 내용은 이렇다. "양명의 3대 학설을 각각 심물동체(心物同體)의 본체미학(本體美學), 사상공부(事上工夫)의 실천미학(實踐美學), 심상공부(心上工夫)의 체인미학(體認美學)으로 정의하고 양명 심학을 미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양명의 '심즉리설'로 보면, 가치의 주체를 벗어나서는 그것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주객관이 통일된 의상(意象)이다. 주체의 관조를 떠난다면 대상세계의 존재는 다만 하나의 자연의 존재일 뿐이고, 주체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물동체의 본체미학이라 하겠다. 양명의 '지행합일'설은 '지'와 '행'이 본래 하나의 공부이고, 그것들은 하나의 과정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식이나 도(道, 곧 美)의 획득은 실천 공부로부터 오고, 진정한 지식도 단지 모든 행동이 있어야만 비로소 의의를 가진다. 심미활동이 일종의 정신활동일 뿐만 아니라 실천 속에서 인격 완선을 목표로 한다. 유가 실천미학의 전통을 자각적인 경지로 끌어 올린 사상공부의 실천미학이다. 양명의 치양지설은 사람들이 물욕을 제거하고 양지를 체득하는 것이다. 양명은 양지를 명백하게 깨달아 오직 습속에서 만들어진 의미의 세계를 없애야만 비로소 치양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다. 마음의 본체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직 마음으로만 '도'('미')의 파악할 수 있고 '도'('미')의 자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여겼다. 양명의 직각적 관조 방식은 이성적 분석을 배제하고 전체적 깨달음과 파악을 중시하는 심상공부의 체인미학이라 하겠다."

전상모의 본 논문은 아마도 논자의 기존 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설계가 큰 그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전제를 상세하게 밝혔을 것이다. 체인미학을 논하는 대목에서 '양지를 체득한다.', '이성적 분석을 배제한다.'는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5) 임홍태의 〈왕수인과 손응오의 사서관(四書觀) 비교 연구: 「傳習錄」과 「四書近語」를 중심으로〉는 귀주지역 양명후학을 연구한 글이다. 최근 중국에서 양명학 연구가 활발한 지역이 귀주성이다. 귀주 용장은

양명이 용장오도를 한 곳이다. 황종희는 〈명유학안〉에 귀주 지역의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근래 귀주성에서 양명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검중왕문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검중왕문의 대표적인 학자인 손응오의 〈사서근어〉와 왕양명의 〈전습록〉을 비교하면서 검중학문의 학문적 특성을 고찰한 글이다.

임홍태의 서술은 이렇다. "손응오는 어린 시절부터 간접적으로 양명 심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양명학단의 학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그들의 사상을 수용 발전시킨다. 손응오는 양명의 근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양명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검중왕문이라는 학파를 형성한다. 손응오 사상의 핵심은 인을 추구하는 것을 종지로 삼고 성의신독을 공부의 요점으로 삼고 있다. 손응오가 성의신독을 강조한 태도는 양명학단에서 본체에 대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분파에서 나타나는 폐단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격물 해석에 있어서도 주자의 궁리와 양명의 정심과는 달리 왕간의 회남격물설을 수용하였다."

최근 귀주 지역 연구자들의 성과를 보면 검중왕학은 왕기, 왕간 등 현성양지설을 주장하는 양명후학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손응오가 왕간의 회남격물설을 수용하는 입장은 근래 검중왕학의 정체성으로 제기하는 주장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의를 소상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6) 이천일의 〈왕양명 교육론의 교육원리 고찰〉은 양명심학을 교육론의 시각으로 해석한 글이다. 심학과 교육론을 결합한 연구도 매년 발표되고 있다. 양명심학이 심을 강조하면서 주체성과 자율성을 주자학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시켰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천일의 연구 또한 동일한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천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왕양명의 교육목적은 양지 실현이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재하고 있는 선천적 도덕원리로서의 본심인 양지 실현 즉 치양지를 뜻한다. 인간은 양지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치양지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면서 교육적 존재이기에 양명이 바라보는 교육은 학습자가 내재하고 있는 자가준칙으로서의 도덕 원리인 양지를 내적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보존하고 생활 속 모든 일에서 실천을 통해 양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 보았다. 치양지를 목적으로 하는 양명의 교육론은 연구자는 심신을 올바르게 하여 학습자 스스로 배움의 의지를 세우는 자발성의 원리, 학습자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욕을 제거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하여 능동적으로 터득하는 능동성의 원리, 개개 학습자의 개성과 흥미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지는 개별화의 원리, 학습자의 통합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덕(德) 지(知) 체(體)의 통합을 추구하는 전인성의 원리 등을 찾을 수 있다. 양명 교육론의 이러한 교육원리는 창의적인 사고력 및 융합적인 문제해결력 성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현대교육의 이론적 바탕인 구성주의 교육의 원리와 교육내용 면에서 일맥상통한다."

이천일의 본 논문은 양명심학 교육론의 기본 이해 도식을 답습하고 있다. 현대 교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구성주의 교육과 비교하면서 어떤 시사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적인 의의를 본 논문에서 찾을 수는 없었다.

(7) 김세정의 〈양명심학을 통해 본 돌봄과 치유의 효 인성교육〉은

효의 측면에서 양명학을 고찰한 글이다. 실천성을 강조하는 양명학의 특징을 염두에 둔다면 양명이 인을 실천하는 근거인 효제를 중시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당연하다. 주자학과 대비하여 양명학은 위계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봉건적이고 수직적이라는 효와 대한 부정적 이해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인성교육을 훈육으로 폄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기능을 한다.

김세정의 입장은 이렇다. "효(孝)가 현대 우리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봉건적이고 수직적인 가치이며,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입한 덕목으로 자율성과 실천성 확보가 어려운 덕목이라는 비판이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양명심학에서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 · 능동적 · 자발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는 물론 다른 사람과 자연물에 대해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본성과 마음과 능력을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심학에서는 효와 관련된 덕목과 절목들에 대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물론 교사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교화시키는 수직적, 수동적, 타율적 인성교육은 반대한다. 구체적 교육 내용으로 '이기적 개체 욕망의 제거와 자기반성의 효 인성교육'과 '지행합일의 효 인성교육'이다. 기존의 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양명 심학에서 이야기하는 돌봄과 치유로서의 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자기반성에 근거한 자율성과 능동성과 실천성을 증진시켜주는 효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8) 선병삼의 〈양명심학과 명대 정치문화: 각민행도(覺民行道)를 중심으로〉는 양명학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논문이다. 양명심학의 발생과 발전을 당시의 정치문화와 연관 지어 논의를 전개한다.

선병삼의 주장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주자의 성즉리(性卽理)와 양명의 심즉리(心卽理) 명제를 가지고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同異)를 따지는데 이를 학술적 혹은 철학적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학이 현실 정치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으로 갈리는 근거로 송나라와 명나라의 정치문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영시(余英時)는 송대는 득군행도(得君行道), 명대(청대)는 각민행도(覺民行道)로 구분하였다. 여영시가 제시한 각민행도의 도식은 양명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양명학을 겨냥한 임정종욕(任情縱慾), 창광방자(猖狂放恣), 방기공부(放棄工夫), 엽등공부(躐等工夫) 등등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선병삼의 주장은 아래에서 자세히 따져보겠다.

(9) 박현정의 〈양명후학 섭표 귀적설(歸寂說)의 체용일원(體用一源) 연구〉는 섭표 양지론 연구다. 섭표는 허적 양지론과 귀적 치양지론을 주장했다. 섭표는 이른바 양명우파로 현성양지를 주장하는 좌파를 공격하면서 귀적 공부론을 강조했다. 주자학은 천리를 성이라고 하면 양명학은 천리의 명각을 양지라고 한다. 양지를 본체로 삼은 이상 양지 활발에 근거를 둔 현성양지는 양지학의 본령에 가깝다. 양명후학들 중에서 현성양지를 주장한 왕기는 물론이고 전덕홍이나 추수익도 섭표의 귀적 치양지설을 반대했다. 섭표는 선체후용의 체용론을 동원하여 자신의 귀적 치양지설을 옹호한다.

박현정은 이렇게 말한다. "섭표 귀적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체의 의식 활동을 벗어나 양지본체를 구하는 공부를 강조한 점과 본체와 작용 사이에 미묘한 시간적 차이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섭표의 귀적설은 작용, 즉 이미 발한 현상을 통해서는 본체를 구할

수 없고, 본체가 먼저 확보되면 작용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 현실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본체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섭표의 귀적설은 양명의 즉체즉용(卽體卽用), 즉용즉체(卽用卽體)의 체용일원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고, 양명의 종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철학사라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섭표의 귀적설은 양명후학의 사상 중 양지본체를 향한 희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이후 작용 자체를 양지본체로 여기는 극단적 경향으로 흘러간 양명후학의 폐해에 대해 일찌감치 예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양지학의 본령에서 보자면, 섭표의 귀적설은 주자의 성본체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는 당시 양명후학자들에 국한하지 않는다. 당장에 모종삼의 평가를 들어봐도 그렇다. 그러나 실제적인 공부 측면에서 섭표의 귀적 치양지설은 양지학의 본령 안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현성양지를 비판하면서 귀적설을 옹호한 양명후학들이 모두 주자학으로 경도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루겠다.

⑽ 선병삼의 〈구양덕 양지론의 종합적 고찰〉은 양명의 적전으로 평가받는 구양덕의 양지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구양덕 양지학 이해는 한국에서 양명후학 연구자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 강전무언의 3파설 구도를 보완할 수 있다. 강전무언은 양명후학을 수증파(우파), 현성파(좌파), 정통파(중도파)로 나눈다. 수증파는 공부를 중심에 두었고, 현성파는 본체를 중심에 두었고, 정통파는 본체와 공부를 겸장했다고 한다. 우파로는 섭표, 좌파로는 왕기, 정통파로는 구양덕을 배치했다. 따라서 정통파와 현성파의 본체 구별, 정통파와 수증파의 공부 구별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다.

⑾ 신현승의 〈명말 절강 선불교 문화의 성황과 유교의 대응: 정좌를 중심으로(明末浙江禅文化的盛况与儒教的应对:以静坐为中心〉은 유종주의 신독공부를 다루고 있다. 유종주 사상은 신독성의설(愼獨誠意說)로 압축된다. 성의설은 왕기를 위주로 한 현성양지론을 보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유종주는 자신의 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이 발동한 것이 의'라는 기존 이해를 뒤집고 '마음에 보존된 것이 의'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상은 비교적 잘 알려진 내용이다. 신현승은 새롭게 정좌를 중심으로 유종주 신독설을 검토한다.

신현승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 명대 말기 강남 지역은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합일 사상이 성행했다. 비록 그 시대는 혼란과 분열,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해 왕조(王朝) 교체라는 비극적 장면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학계에서는 조화와 화합의 사상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유종주는 이와 같은 시공간적 배경 하에서 불교에 대항하여 그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유교 자체의 정좌법을 주장한다. 우선 중국 명대 말기의 삼교합일 사상의 성행, 절강 지역 선(禪) 문화의 유행에 따른 각종 선회(善會) 활동의 양상 등을 고찰하고, 유종주의 정좌법을 고찰한다."

2) 왕부지(2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진성수	王夫之 四書學의 특징과 淸代 實學으로의 전환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2	이향준	왕부지王夫之: 욕망의 서恕	한국공자학회	孔子學

2014년 리포트를 작성한 이래로 왕부지 연구는 매년 1편 이상이 학계에 보고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명말 청조의 대유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인물이다.

(1) 진성수 〈왕부지(王夫之) 사서학(四書學)의 특징과 청대(淸代) 실학(實學)으로의 전환〉은 왕부지 사서학을 중심으로 청대 실학적 전개를 고찰한다. 왕부지는 장재의 기 철학을 계승한 것으로 유명하다. 왕부지가 장재의 기 철학을 계승한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가? 왕부지는 양명학과 주자학의 공리공담을 기 철학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다.

진성수는 이렇게 정리한다. "명조(明朝)의 유신(遺臣)이었던 왕부지의 철학사상은 대의명분(大義名分)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의 경세론은 강한 민족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치용(經世致用)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염원이 담겨있다. 왕부지는 새로운 세계관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장재(張載)의 기 철학(氣哲學)을 계승하여 기일원론(氣一元論을 완성했다. 기일원론을 토대로 왕부지는 송명이학과 노불을 비판하고, 유학의 오래된 과제였던 '도덕과 경세'의 합일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왕부지는 '존재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우주'라는 정주학의 본체론을 비판하고, '움직이는 우주 본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왕부지는 지식보다 실천을 강조한 새로운 경학방법론과 수양론을 완성하였다. 현실개혁에서 출발한 왕부지의 비판의식은 결국 송명이학에 대한 비판을 거쳐 인간의 능동적 실천을 강조하는 경세론과 수양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왕부지의 사서학은 실용성을 강조한 청대 실학으로의 전환기 사상이다." 진성수의 본 논문은 학계에서 공인된 입장을 가지고 꼼꼼하게 정리한 글이다.

(2) 이향준의 〈왕부지(王夫之): 욕망의 서(恕)〉는 진성수의 글과 같은 듯 다른 빛깔을 갖고 있다. 실학이라고 하면 실용적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근대를 떠올리게 된다. 근대는 전체와 집단 문화에서 개인과 욕망의

발견으로 길을 건넌 것을 의미한다. 진성수의 글이 실용적이고 경세적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향준의 글은 개인과 욕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향준의 입장은 이렇다. "서의 개념사에서 왕부지의 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글은 왕부지의 서를 욕망의 동질성과 차이에 근거를 둔 '욕망의 서'로 명명하려고 한다. 이것은 성리학적 서가 인간 마음의 동질성 가설에 기초를 두고 자신들의 서를 양식화하려는 시도와 대조된다. 성리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당위의 서'를 주장했다. 반면에 왕부지는 성리학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서의 배후에 자리 잡은 '인간 마음이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는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왕부지는 우리가 타인과 완전하게 같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동질성에 근거를 둔 행동 양식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 근거를 둔 행동 양식의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결국 우리는 자기가 그것을 원한다는 이유로 타인도 그것을 원할 것이라는 동질성 가설을 포기해야 한다. 그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에게 베풀 수 없다는 인간적 사실의 확인이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타인의 욕망이 나와 겹치지 않는 다른 것일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욕망의 서'라고 부른다면, 왕부지는 송명시대로부터 청대로 이행하는 학술사적 전환의 과정에서 서의 개념체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욕망하는 인간을 서의 개념사에서 전면에 주제화시킨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욕망하는 인간이 동양의 근대사적 전환을 거치면서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나아갔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철학적 질문 가운데 하나다."

이향준의 논의를 읽으면서 〈국부론〉을 지은 아담 스미스를 떠올렸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국부론〉의 가장 잘 알려진 테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도덕철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사욕 긍정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의 합리성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풀었다. 욕망하는 개인이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체제다. 이향준의 왕부지 해석을 빌리면 '욕망의 서'라고 할 수 있다.

3) 옹방강(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양원석(楊沅錫)	翁方綱의 詩經學 — '漢宋兼采'의 경향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양원석의 〈옹방강(翁方綱)의 시경학(詩經學): 한송겸채(漢宋兼采)의 경향을 중심으로〉는 본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이래로 처음 설명하는 학자인 옹방강을 다룬 글이다. 옹방강 하면 추사 김정희가 떠오른다. 한국에서는 추사와 관련하여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작 옹방강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 이름값에 비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양원석은 이렇게 정리한다. "청대 건가(乾嘉) 시기 학자인 옹방강(翁方綱)은 한학(漢學)과 송학(宋學) 연구 방법의 장점을 동시에 채용한 경학 연구를 제창한 한송겸채(漢宋兼采)를 주장했다. 〈시경〉에서 시서(詩序)를 존신하고, 모전(毛傳) 해석을 신뢰하고, 고훈(古訓)을 중시하고, 의경(疑經) 풍조를 반대하는 한학적(漢學的) 경향을 갖고 있다. 또한 정현(鄭玄)과 공영달(孔穎達)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주자의 입장을 긍정적으

로 취하는 송학적(宋學的) 경향도 보인다.”

주자 경학을 집대성한 사서 주석이 과거 교재로 채택되어 막강한 영향을 미친 데에는 한 대의 훈고와 송대의 의리 전통을 녹여 객관성과 철학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저작이기 때문이다. 한송겸채의 경학 전통은 주자를 정점으로 삼는다.

4) 위원(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노병렬 천병돈	李恒老와 魏源의 時中之道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노병렬 · 천병돈의 〈이항로(李恒老)와 위원(魏源)의 시중지도(時中之道)〉는 19세기 서세동점의 파고를 맞닥뜨린 동양 지식인의 반응을 탐색한다. 조선의 이항로는 위정척사운동의 거두로 활약했고 위원은 〈해국도지〉를 지었다. 이항로의 위정척사에 반영된 태도와 위원의 〈해국도지〉작성에 반영된 태도는 대비된다. 이항로는 쇄국의 방향으로, 위원은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노병렬 · 천병돈의 주장은 이렇다. “조선과 청나라는 서양의 압력에 의해 문호를 개방했다. 피동적으로 개방된 국가는 사회 문화적 혼란을 겪는다. 전통적 사회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전혀 다른 가치들이 전통적인 문화체계와 가치들을 위협할 때, 그 압박감은 더욱 가중된다. 이항로는 서구문물의 수용을 일체 거부하는 척사위정(斥邪衛正)론으로, 위원은 중체서용(中體西用)론으로 전통적 체제를 수호하고자 했다. 이항로는 불변의 리가 우주의 근본이라고 여겼다. 불변의 리는 주자학(中

華)을 계승한 조선(小中華)으로 대체된다. 중화를 대체한 불변의 리인 조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항로가 지키고자 했던 조선은 국가로서의 조선이 아니라, 주자학을 계승한 '소중화의 조선'이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은 이항로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였다. 결국 이항로가 주장한 위정척사 운동은 배타적이고 보수적이며 반근대적이고 반서양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위원은 세계는 쉬지 않고 변한다고 보았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위원은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주목했다. 서양 제국주의의 압박 또한 변화하는 세계의 한 단면이라고 파악한 위원은 서양의 장점 특히 과학기술, 정치제도,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자는 태도를 취했다. 위원의 이러한 정책들이 청나라 정부에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훗날 양무(洋務)·변법(變法)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항로와 위원이 당시를 진단하고 내린 처방을 후대의 시각으로 단순히 우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이들의 시대의식과 대처 방식을 그들의 철학사상까지 소급하여 규명하는 방식은 사상사 연구의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5) 기타(2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상우	왕대여(王垈與)의 三一論 – 이슬람의 유학적 해석–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2	전홍석	명말 예수회 '천학·선교신학'의 분화: 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2015년도부터 리포트를 작성한 이래로 다음 2편에서 다룬 내용은

처음 분석한다. 권상우의 글은 이슬람교와 유교를, 전홍석의 글은 천주교와 유교를 대비적으로 살핀 글이다. 전통사회에서 유학은 서양의 기독교와 이슬람교처럼 사회 이념으로 작동했다. 유학의 종교성을 따지는 문제는 유학의 본질을 다루게 된다. 특히 다음 두 편의 글은 이슬람교, 천주교와 대비하여 송명이학의 특징을 보여준다.

(1) 권상우의 〈왕대여(王岱與)의 삼일론(三一論): 이슬람의 유학적 해석〉은 동북아 이슬람에 대한 연구다. 왕대여는 이슬람교를 유학의 용어와 사상으로 해석을 시도한 최초의 무슬림 학자다.

권상우는 이렇게 정리한다. "왕대여는 알라신, 세계 그리고 인식론을 언급하면서 유교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 알라신을 우주만물의 근원인 一로 해석하고, 세계를 무극과 태극, 음양과 사상의 도식으로 해석하고, 진주에 대한 인식 또한 심여리(心與理)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유학은 현세의 도덕철학과 자연 법칙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주의 기원과 종말에 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본다. 유학의 한계를 이슬람의 종교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권상우는 왕대여의 작업을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경전을 유학의 용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유학과 융합되는 특징을 갖게 되고, 유학은 타 종교와의 만남을 통한 이론지평을 확장했다고 평가한다.

(2) 전홍석의 〈명말 예수회 '천학-선교신학'의 분화: 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은 천주교 중국 선교에서 마테오리치 노선과 롱고바르디 노선을 소개한다. 마테오리치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선교사이지만 롱고바르디는 생소한 이름에 속한다. 롱고바르디는 마테오리치 사후 중국 선교 책임자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전홍석이 착안한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마테오리치와 롱고바르디를 양편의 대립적 노선으로 보지 않

고 마테오리치의 후임자인 롱고바르디는 리치 노선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입장이다.

전홍석의 설명은 이렇다. "명대 말기 재화 예수회 내부에서 발화된 '중국전례논쟁'은 가톨릭선교사 '천학 · 선교신학'이 분화되는 시발점이자 외재형식인 점은 특기할 만하다. 예수회 천학의 분화요인에 관한 쟁점은 리치의 '적응노선' 과 롱고바르디의 '보수(비적응)노선' 간의 관계설정이 문제의 핵심이다. 양자 간의 '단절' 혹은 '계승'이라는 상대적 편향성에 기대어 도출한 기존의 이론들은 본래적 천학체계에 내재된 '역사분화법칙'을 적확하게 읽어낼 수 없다. 리치와 롱고바르디의 선교학적 갈림길은 엄밀히 말해서 문화 · 복음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인식의 경계선상에서 촉발된 것이다. 리치가 무게 중심을 '연속성'에 두어 '문화적응주의적 상층학술노선'을 확정했다면 롱고바르디는 '불연속성'에 치중해 '신학(복음)보수주의적 평민영성노선'으로 나아갔다. 이 논단을 재차 두 노선 간의 관계설정에 대입해보면 단절성과 계승성이 동반하는 역사변증법적 천학의 분화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

6) 근대(4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종모	소수자 담론으로서 유학의 가능성: 강유위 〈대동서〉를 중심으로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2	황종원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 –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3	김영진	章太炎 齊物論釋의 '成心' 해석과 종자설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이철승	양수명철학에 나타난 인심관 문제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유교사상문화연구

근대는 통상 청말부터 민국 시기까지를 꼽는다. 중국 학술사에서 명인과 명작이 많이 나온 시기로는 단연 춘추전국 시기와 민국 시기를 든다. 혼란의 시대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중국이 새로운 사회로 변환하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시대에 빛을 던지는 작품들이 나온 것이다. 이 시기를 활동한 인물 중에 한국 학계에서 관심을 보이는 인물로는 연구 논문 편수로 보건대 강유위, 양계초를 위시하여 장태염, 양수명 등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네 인물에 관한 논문들이 주요 학술지에 보인다.

정종모의 〈소수자 담론으로서 유학의 가능성: 강유위 〈대동서〉를 중심으로〉는 강유위의 대동서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글이다. 강유위가 누구인가? 1888년에는 황제에게 정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상서를 올려서 정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1890년에는 광주에 만목초당을 열고 서구의 학문도 도입한 새로운 교육내용에 의해서 인재 육성을 도모하면서 금문경서(今文經書)만이 공자의 미언대의(微言大義)를 전한 것이고 고문경서(古文經書)는 전한 말의 유흠의 위작이라고 논단한 『신학위경고』 14권(1891)을 출판해서 보수파의 탄압을 불러 일으켰다. 1997년 상소가 광서제에게 인정받아, 다음해에 변법이 개시되고 광서제의 참모가 되어서 백일유신의 개혁 계획을 계속 입안했다. 그러나 개혁방법이 급격해서 서태후 등 보수파의 쿠데타로 겨우 3개월로 진압되고 강유위는 처음에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세계 각지를 유력하였으며 입헌군주정제의 실현을 기대해서 보황회(保皇會)의 설립에 노력하였다. 이

런 와중에서 1902년 오랫동안 구상해 온 〈대동서〉를 완성했는데 국가, 사유제, 가족, 남녀차이, 인종차이 등을 폐기한 후에 완전히 자유평등한 대동세계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유토피아론을 담고 있다.

정종모는 현대 윤리학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소수자 윤리학 담론을 매개로 강유위의 〈대동서〉를 적극적으로 풀어간다. "강유위는 〈대동서〉에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유가 인학(仁學) 체계의 핵심으로 삼고, 고통 받는 타자에 대한 윤리를 전개하였다. 강유위의 인학(仁學) 체계는 공맹(孔孟) 유학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예기』「예운」의 '대동(大同)' 개념에서 피력된 인정(仁政)의 이상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대동서〉를 급진적 사회공학의 아류로서 비판하였다. 그러나 유학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과제 하에서 우리는 '타자 윤리학', '소수자 윤리학'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유위 인학(仁學)의 실천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망 속에서 강유위의 『대동서』를 소수자 윤리학으로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자 한다."

강유위는 신해혁명 후 권력을 잡은 원세개의 복벽을 지지하면서 변법이 지향한 정신에서 벗어나 과거 봉건체제를 옹호한 보수주의자로 종말을 고하지만 〈대동서〉는 파격적인 내용만큼 시대의 고전으로 재음미되고 있다. 간재 전우가 강유위를 극심하게 비판한 데서도 〈대동서〉의 급진성이 드러난다.

황종원의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는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에 두고 양계초와 박은식의 견해를 비교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다. "유교의 근대화에 대한 양계초의 견해는 박은식에게 대부

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유교의 종교화에 관해서는 중요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양계초가 주로 근대화에의 유용성을 준거로 종교화의 가치를 판단한 반면, 박은식은 도덕종교로서 유교의 이상이 근대에도 여전히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박은식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지만 박은식과 다른 양계초의 여정을 황종원은 이렇게 묘사한다. "무술변법 직후까지 양계초는 강유위의 강한 영향 속에서 맹자의 민본주의와 인정사상, 그리고 공자가 세웠다고 믿은 대동의 이상을근대의 민주, 평등, 평화의 이상과 일치시켰고 공자교 운동에 적극 찬동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구국이 공자교의 보전보다 시급하다고 여기면서 강유위와 자신을 비판했다. 유교가 기독교나 불교 등의 기성 종교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종교화하는 것, 공자 사상을 견강부회하여 근대 사상과 합치된다고 주장해온 것을 비판했다. 그렇다고 그가 유교의 근대적 의의 및 종교화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유교의 보편적 가치를 긍정했고 유교가 타 종교와 개방적이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자신을 지양하기를 희망했다. 나아가 종교가 가진 실천적 힘을 높이 평가했다."

양계초가 유교의 보편적 가치를 긍정했고 유교가 타 종교와 개방적이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자신을 지양하기를 희망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다루겠다.

민국시기 국학대사(國學大師)로 불린 인물이 있다. 바로 장태염이다. 그는 학문과 혁명을 같이 했다. 박학하고 심중한 학문을 현실에 투영한 그와 교류하고 배운 이들 중에 민국 시기 문학사, 정치사, 철학사에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즐비하다. 심지어는 이른바 상하이방이라는 암흑가의 인물들과도 교분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김영진의 〈장태염(章太炎) 제물논석(齊物論釋)의 '성심(成心)' 해석과 종자설〉은 장태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그의 제물론 주석을 분석한 글이다. 장태염은 비록 파문당하기는 했지만 청대 고증학 전통의 대미를 장식한 유월(兪樾)의 수제자였다. 장태염은 고증학자로 정치가로 불학가(佛學家)로 활동했다. 장태염은 불교의 유식학을 이론 도구로 하여 『장자』「제물론」을 분석했다. 이 저작은 불교 이론과 서양 철학을 동원하여 전통 사상을 독특하게 해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장태염이 〈제물론〉 개념 가운데 주목한 것이 '성심(成心)'이다. 장태염은 유식학의 종자설과 서양 철학의 범주론을 동원하여 이 '성심'을 해석했다. 그는 성심을 일종의 인식 틀로 이해했는데, 인간은 이를 근거로 자신과 세계를 인식한다고 파악했다.

김영진은 장태염의 성심론을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의 역대 〈장자〉 주석가들은 성심을 편견 아니면 진심(眞心)으로 이해했다. 장태염은 그것을 원형관념이자 종자로 이해했는데, 일종의 인식 틀로 이해한다. 유식학에서는 이런 인식 틀을 분별(分別, vikalpa)이라고 명명했다. 장태염이 이런 분별이 일상적 삶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그것이 하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확대한다고 보았다. 장태염은 '전통과 근대' 혹은 '중국과 서구'라는 긴장 구도를 주목했다. 따라서 그는 당시 많은 지식인이 보인 '전통 고수'나 '서구 추수'가 실은 모두 분별에서 기인했음을 지적했다."

이철승의 〈양수명철학에 나타난 인심관 문제〉은 양수명의 인심관을 다루고 있다. 양수명은 신유가의 대부와 같은 존재다. 향촌운동과 49년 중국공산화 이후 본토에 남아 지식인의 비판정신을 발휘한 인물이다. 그의 철학에는 실천정신이 넘쳐흐른다.

양수명이 중학(중고등학교가 통합된 과정) 졸업의 학력으로 당시 북경대학 총장이었던 채원배의 초빙을 받아 25세에 북경대학에서 강의하기 시작하였으나, 1924년 여름 7년간의 교수생활을 청산하고 사회운동에 투신했다. 양수명은 현실과 거리를 유지한 채 불교에 심취하여 불경을 연구하고 자신의 견해를 글로 발표하였는데, 이때 발표한 〈구원결의론(究元決疑論)〉이라는 논문이 채원배의 주목을 받아 북경대학 교수로 초빙되었다.

한편 천진 남개중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웅십력이 독후감을 적어 보내 불교에 관한 토론을 제안함으로써, 〈구원결의론〉은 현대 신유학 제1세대의 대표적 인물의 교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나중에 양수명은 웅십력을 추천하여 북경대학에서 강의하게 하였고, 만년에는 웅십력과 교류하게 된 내력과 웅십력의 철학사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웅십력의 3대 제자가 모종삼, 당군의, 서복관이다.

이철승은 양수명의 인심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인심은 도심과 대비되는 인심이 아니라 마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양수명은 말년 저작인 〈인심과 인생〉에서 인심관을 종합하였다. 그는 인심을 진화의 과정 및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본능과 이지와 도덕성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생명의 본성을 구현하는 활력소로 여긴다. 그는 인심을 기원의 측면에서 비록 몸으로부터 형성되었을지라도, 형성된 이후에 몸에 대해 반작용하며 몸을 주재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자율적이고 주동적이며 영활하고 계획성을 갖춘 자각능동성을 인심의 주요한 특징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능동성의 활동은 외적 요인에 의하지 않고, 그 자체의 내적인 역량에 의해서다. 양수명은

마음과 도덕적 삶을 긴밀하게 관계시키고, 도덕의 참됨을 자각과 자율에 맡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일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도덕의식이 그 사회의 보편적인 풍속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풍속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의식의 필요에 의해 기존 질서에 대해 변화, 개혁, 혁명 등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양수명은 도덕성의 구현을 생명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삶은 타율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마음의 자각능동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다. 마음과 생명과 도덕성의 연계에 관한 그의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 전통 유학 가운데 기철학적 계열을 계승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모택동의 주관능동성에 관한 이론을 계승한 것이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국내 명청대 유학 연구는 앞에서 밝혔듯이 양명학을 중심에 둔다. 양명학은 송명이학이라는 말처럼 주자학과 뗄 수 없는 관계망을 형성한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같음과 다름을 따지는 문제는 송명이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양명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주자학 측에서 제기하는 임정종욕(任情縱慾), 창광방자(猖狂放恣), 방기공부(放棄工夫), 엽등공부(躐等工夫) 등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선병삼의 〈양명심학과 명대 정치문화: 각민행도(覺民行道)를 중심으로〉는 바로 여기에 착안한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자의 성즉리(性卽理)와 양명의 심즉리(心卽理) 명제를 가지고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同異)를 따지는데 이를 학술적 혹은 철학적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유학이 현실 정치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으로 갈리는 근거로 송나라와 명나라의 정치문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인 여영시(余英時)는 이에 착안하여 송대는 득군행도(得君行道), 명대(청대)는 각민행도(覺民行道)로 구분하였다.

선병삼은 여영시가 제시한 각민행도의 도식을 통해 양명학을 겨냥한 임정종욕(任情縱慾), 창광방자(猖狂放恣), 방기공부(放棄工夫), 엽등공부(躐等工夫) 등등의 비판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중 고헌성이 사구교를 비판한 내용을 분석하면서 선병삼은 이렇게 말한다. "동림학파의 영수인 고헌성은 천하의 교법이 무너진 것이 바로 심체를 무선무악이라고 한 사구교 첫 구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양명이 위선거악을 말하기는 했지만 심체를 무선무악이라고 한 이상 위선거악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극렬히 비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선무악한 심체는 확고한 도덕적 기준을 세울 여지를 없앤다. 고헌성의 표현을 따르자면 절의(節義)를 논할 터전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의를 중시한 송대 도학자들에 비하여 작금의 도학자들은 절의를 중시하지 않는다. 절의를 무시하게 되면 자연스레 부귀공명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속학(俗學)으로 전락하게 된다. 바로 이런 학문 경향이 세상을 망치는 것이다. 당시 명대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헌성의 비판은 준엄하다. 양명학을 두고 창광방자(猖狂放恣) 또는 임정종욕(任情縱慾) 하다고 비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는 양명학자 개인이 저질은 일탈 행위를 두고 창광방자 하다든지 임정종욕 하다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어찌 학문을 논할 수 있겠으며, 후대에 까지 이름을 전해 시비곡직을 묻는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비판의 말들은 명

교(곧 당시의 예법)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욕망을 긍정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양명이 양지를 시비지심으로 풀었을 때부터 창광방자와 임정종욕의 싹이 움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시비 판단을 할 적에 전통적이거나 권위적인 기존의 준거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개인 스스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명이 심체를 무선무악이라고 하면서부터는 기존의 공적 준거를 아예 무화시켜 버리는 급진적인 경향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죽어가는 명나라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 도덕강상을 붙들고 안간힘을 썼던 고헌성이 보기에 양명심학은 죽어가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 내려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명유학안』에 수록된 그의 글들을 읽어 보면 이런 심사가 절절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과연 양명학은 고헌성의 비판대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마지막 생명줄을 잘라 버린 것일까? 명교를 훼손함으로써. 만주족의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명말의 유로들은 망국의 암울한 그림자가 양명학이라는 망령으로부터 드리워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가들 중에는 근대의 좌절이니 혹은 근대의 굴절이니 하여 그 의의를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현대 연구자들의 견해는 본 논문에서 다룬 각민행도의 프레임을 통해 상당 부분 지지된다."

양명후학 연구는 양명학 연구에서 역시 중요 주제다. 양명후학 연구는 양명후학 개인 연구와 더불어 분화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국내 학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양명후학 분화는 강전무언의 도식이다. 그는 양명후학을 정통파, 수증파(우파), 현성파(좌파)로 나눈다. 강전무언 도식의 가장 큰 약점은 현성파와 정통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는 현성파는 본체를 중시하고 공부를 무시했으며,

정통파는 본체를 중시하고 공부를 중시했다고 한다.

현성파의 대표인물은 왕기와 왕간 등이고, 정통파의 대표인물은 전서산, 구양덕 등이다. 수증파의 허적 양지 본체론과 귀적 치양지 공부론에 대해 현성파와 정통파는 공히 반대한다. 우파에 대해 정통파와 좌파가 공동전선을 편 데에는 양지 본체와 치양지 공부에 대한 공통의 입장이 작용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지 본체는 미발과 이발을 불문하고 활발하다는 현성론을 공유하며, 치양지 공부는 양지대로 실천한다는 순종양지(循從良知)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강전무언이 현성파와 정통파를 구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실증이다.

그렇다면 현성파와 정통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선병삼의 〈구양덕 양지론의 종합적 이해〉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어간다. "현성양지설을 옹호하게 되면 치양지 공부론은 이른바 보임양지(保任良知)의 치양지 공부론을 강조하게 된다. …… 보임양지의 치양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오직 양지 본체만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원칙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양지 본체에 순종하고 인위적인 노력을 철저히 배제하는 치양지 공부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바로 자연(自然)과 계신공구(戒愼恐懼)의 문제다. …… 양지 본체는 지선지악(知善知惡) 하고 지시지비(知是知非) 해서, 양지 본체에 순종하는 치양지 공부는 선악을 판단하고 시비를 분별한 양지 본체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위선거악(爲善去惡) 하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실천하는 것이다." 현성양지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양지 자연을 추숭하면서 계신공구를 양지 자연의 길항으로 상정한다. 구양덕의 치양지론은 이 점을 바로 잡고자 했다.

박현정의 〈섭표 귀적설의 체용일원 연구〉는 섭표 귀적설을 체용일

원에 대한 섭표식 이해라는 방식으로 변호한다. 양명학은 즉체즉용의 체용일원인데 섭표는 선체후용의 체용일원을 긍정했기 때문에 귀적설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섭표가 자신의 귀적설을 제창하면서 그 정당화의 논거로 선체후용의 체용일원론을 원용했다는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

섭표는 왜 귀적설을 제장했던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다룬 것처럼 현성양지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도출되었다. 현성양지설은 미발과 이발은 통관하여 양지 현성을 주장하다보니, 양지가 아닌 정식(情識)도 양지라고 하여 이른바 창광방자적인 병폐를 갖고 있었다. 박현정이 "섭표가 선후가 있는 체용관을 택하였던 것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 즉, 그는 지각을 양지로 오인하는 기존 양명학파 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선후관계를 전제하는 체용일원을 제시하였다. 그는 당시 양명학 내에 성행하던 이미 발현된 의식을 통해 본체를 구하는 경향을 지각을 본체로 여기는 것이라 비판하며 경계하였다."는 말이 이것이다.

최종적으로 박현정은 섭표 귀적설의 의의를 다음으로 정리한다. "섭표의 귀적설은 본체 확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현실적인 작용은 비교적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섭표의 귀적설은 양명의 체와 용을 혼연일체로 파악하는 즉체즉용(卽體卽用), 즉용즉체(卽用卽體)의 체용일원의 의미와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고, 때문에 양명의 종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러나 섭표의 귀적설은 양명학의 시대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창조적 계승의 의의를 가진다. 그는 당시에 만연했던 작용을 통해 본체를 파악하는 경향이 곧 작용 자체를 본체로 착각하는 오류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의 귀적설은 바로 이 치명적 오류를 피하기 위해 본체를 확보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분명 섭표의 귀적설은 철학사라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양명후학의 사상 중 양지본체를 향한 희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귀적설은 이후 작용 자체를 본체로 여기는 극단적 경향으로 흘러간 양명후학의 폐해에 대해 일찌감치 예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박현정과는 다른 각도에서 섭표의 귀적설을 옹호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황종희가 섭표와 나홍선의 공부론을 긍정한 이유를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

간재 전우는 한말 심설논쟁에서 성즉리(性卽理), 심시기(心是氣)를 주장하면서 명덕을 리로 풀고자 하는 모든 경향들을 심학(心學)으로 규정하고 이단 학문으로 비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성사심제(性師心弟)의 명제를 제시하면서 마음으로 성을 공부한다는 성사심제(以心學性) 공부론을 제시한다. 간재는 양명학을 이단의 학문으로 평가하면서 양지를 공부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 창광방자의 병폐를 노정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간재는 이심학성과 치양지를 길항으로 설정했다. 치양지는 창광방자로 가는 샛길이고 이심학성은 성학(聖學)으로 가는 정로라고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심학성과 치양지는 서로 닮았다. 해괴하지만 사실이다.

치양지는 양지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른 생각, 틀린 생각으로 나눈다면 양지는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양명의 말을 빌리면 천리(天理)의 명각(明覺)이다. 개인은 양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

다. 치양지는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 양지에 부합하는 지를 따진다. 곧 양심을 따른다. 양지는 생각이면서도 생각의 기준이 되는 바른 생각이다. 바로 선병삼이 〈양명심학과 명대 정치문화: 각민행도(覺民行道)를 중심으로〉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다. "사구교 중에서 무선무악의 심체와 지선지악의 양지는 동격이다. 양지가 바로 마음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선지악(知善知惡) 하면서도 무선무악(無善無惡) 한 심체(곧 良知)는 개인의 어떠한 주관적 판단(典要 혹은 格套)을 용납하지 않는 오직 양지만이 주재하는 심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교회에서 올바른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인데, 이때 성령님이 내 마음의 기도를 주재하는 영으로서 내 마음에 내주하면서 내 마음과는 또 다른 존재로 이해되는 메커니즘이다."

신현승의 〈명말 절강 선불교 문화의 성황과 유교의 대응: 정좌를 중심으로(明末浙江禪文化的盛況與儒教的應對:以靜坐爲中心)〉는 유종주 신독성의설이 정좌 공부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유학에서는 정좌라는 말보다는 경 공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말이다. 황종희가 유종주의 수제자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황종희가 섭표의 귀적설이 양명학의 양지설 본의에서 위배된 경향이 있다할지라도 양지학의 일종으로 긍정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치양지는 양지대로 하는 공부이고 양지의 명령을 듣기 위해 늘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공부가 섭표가 말한 귀적 공부론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유종주가 신독성의설을 주장하는 배경에 자리한 정좌 공부도 동일한 맥락이다.

조선성리학에서 사칠논쟁 이래로 리동설(理動說)은 중요한 철학 주제다. 퇴계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하면서 리동설을 주장했고, 율곡은 기발리승일도설을 주장하면서 리동설을 부정했다. 간재는 성학과 심학

을 정통과 이단으로 구분하면서 심학은 리동설에 기반 한다고 하여 철저하게 리동을 반대했다. 한편 리동설을 옹호하는 입장은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면서 리동설을 부정하는 입장을 비판한다. 이슬람교나 기독교(천주교)는 알라신과 야훼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지고의 존재로 섬긴다. 알라신이나 야훼 하나님은 모두 인격자이다. 리동설에 견주어 보면 리동 중에서도 리동이다.

전홍석의 〈명말 예수회 '천학 · 선교신학'의 분화: 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는 리치가 평가하는 유학의 종교 관념을 서술한다. "리치는 선유 · 후유, 진유(眞儒) · 속유(俗儒), 경전 · 주석으로 양분해 경서인 원시유학(儒家, Confucianism)의 종교성은 긍정한 반면, 주석인 신유학(理學, Neo-Confucianism)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원시유가의 천, 상제 관념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신' 개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신유학의 '리'는 실체(自立者, substantia)가 아니라 속성(依賴者, accidens)에 불과해 '신' 관념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당대의 신유학이 외래적 악영향(佛 · 道敎)으로 진유 고교眞儒古敎의 신성(하느님 숭배)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고대의 중국인들은 초자연적실체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당대의 중국인들이 그러한 관념을 잃어버렸다는 '후고박금'의 사유형식에 토대한다." "원시유학을 대응자, 신유학을 배제인자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을 확인시키고자 했다. 특히 고대 유학을 전략적 제휴자로 보는 수준을 넘어 그 전통 속의 신의 이미지와 언설을 추출해 그리스도교적 신이라고 선언한다."

전홍석의 분석에 의하면 리치는 송명이학은 기독교적 신 개념을 철저하게 탈각했다고 본다. 신 개념이 탈각된 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

로 "원시유가의 천, 상제 관념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신' 개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신유학의 '리'는 실체(自立者, substantia)가 아니라 속성(依賴者, accidens)에 불과해 '신' 관념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주자는 리기의 불상리와 불상잡을 동시에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기가 없더라도 리가 있다는 리선기후의 입장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실체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속성은 실체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때, 리를 속성이라고 하는 리치의 입장은 신유학의 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인격적 유일신을 인정했는가 물으면 신유학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자는 리선기후를 말하면서도 논리적 선후이지 경험적 선후가 아니라고 하며, 경험세계에서 리는 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리는 무정의, 무조작, 무계탁한 존재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경험 세계를 주관하는 인격적 신의 존재를 용납한다. 언제나 리선기후이고, 리동이다.

황종원의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에서는 유학의 종교성과 근대성을 피력한 양계초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양계초는 서양이 오늘날의 문명을 이룩한 데에는 종교혁명으로부터 고학(古學)이 부흥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구의 근대문명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서 그 정신적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주목한다. 동일선상에서 중국도 근대화되려면 유학을 종교화하고 선진시대의 학술사상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양계초는 강유위가 제창한 공교(孔敎)를 다음 6가지로 정리한다. "강유위가 공교(孔敎)를 세우면서 내세운 공자의 이념적 지향을 다음 6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공자교는 상고시대를 이상적으로 보는 복고적 역사관이 아니라 춘추공양전의 삼세설에 근거해 발전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 둘째 공자교가 전제정치를 적극 옹호하는 순자의 학통과는 달리 백성을 귀히 여기는 맹자의 학통을 이어받아 평등을 지향한다. 소강은 전제의 정치이고 대동은 평등의 정치이다. 맹자는 대동의 학을 전했으므로 그 책에서는 모두 민권을 주의로 했다. 셋째 송 대 이후 유자들이 자신을 단속해 잘못을 적게 하고 삼가 조심하는 것을 종지로 삼는 거경(居敬)의 수양에 치우쳐 있었던 것과는 달리 공자교는 사회개혁의 구세정신을 지닌다는 것이다. 넷째 공자교는 사회문제에 유약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적극 대처하여 해결하려 하는 사회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다섯째 한 대 이후 유자들이 편협하게 문호(門戶)의 대립을 일삼았던 것과는 달리 공자교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추구한다. 여섯째 공자교는 육신을 지닌 '나'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정신을 중시한다." 후에 양계초는 공교운동에서 떠나 자신의 길을 가지만 그가 설명한 공교 정신 6가지는 현대 사회에서 유학의 가치와 역할을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안내 지침이 될 것이다.

유학은 불교와 노불이 출세인데 비해 입세와 경세를 주장한 학문이다. 유학자들은 우리야말로 현실에서 이상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자기정체성을 내세운다. 소위 수기치인(修己治人), 수기안인(修己安人), 성기성물(成己成物), 내성외왕(內聖外王)이다. 저 노불은 수기, 성기, 내성의 측면에서는 논할 만한 것이 있지만 안인, 치인, 성물, 외왕의 측면에서는 유학에 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유학자들이 노불을 비판하는 교판론의 핵심이다.

왕부지는 이민족인 만주족에게 명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몸소 겪은 사람이다. 젊어서는 남명정권(南明正權)에 참여하여 명조의 부흥을 꿈꾸기도 했었다. 그의 학문이 지향하는 방향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의 폐단으로 망국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학문적 임무는 명확하다.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의 폐해를 일소하여 실학을 부흥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재의 기학과 역학을 학문의 종지로 삼는다.

진성수의 〈왕부지(王夫之) 사서학(四書學)의 특징과 청대(淸代) 실학(實學)으로의 전환〉에서 이를 비교적 소상하게 서술한다. 신유학은 노불을 허학이라고 하여 비판하고 수기안인의 실학을 표방했는데, 이제 왕부지는 송명이학은 다시 허학이라고 비판을 한다. 실학을 표방했던 신유학이 허학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왕부지는 이렇게 설명한다. "송대에 주자(周子)가 출현한 이후 비로소 성인의 도가 연원하는 바를 드러내 밝혔는데 모두 태극 · 음양 · 인도(人道) · 생화(生化)의 끝과 처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정자(二程子)가 그것을 끌어와 전개하여 고요하고 한결같은 성실함과 공경함의 공부를 실(實)로 삼았다. 그러나 유씨[游酢]와 사씨[謝良佐]의 무리가 또 갈라져 나와 부처의 샛길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주자는 격물궁리(格物窮理)로써 가르침의 기초로 삼아 학자를 뚜렷한 도의 가운데로 바로 잡아 묶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두 번 전해진 이후에는 쌍봉[饒雙峯]과 물헌[熊勿軒] 등의 제유가 흔적을 쫓고 그림자를 밟아 훈고에 탐닉하는 곳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백사(白沙, 陳獻章)가 일어나 그것을 싫어하여 버렸으나, 결국 겉으로는 유가지만 속으로는 불가인 요강(姚江) 왕씨(王陽明)가 성인의 도를 속이는 사악한 학설을 열었다. …… 그리하여 무선무악(無善無惡)과 이사(理事)를 통합한

다는 속임수로 가득 채웠다. 그 피해가 서로 더욱 커져서 중도(中道)가 서지 않게 되었고, 굽은 것을 바로 잡다가 올바름을 넘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열게 되었다."

왕부지의 평은 신유학의 큰 흐름을 서술한다. 주자가 격물치지를 즉물궁리로 풀이한 데에는 불교가 표방한 명심견성(明心見性)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명대 심학이 나온 데에는 훈고와 지식추구로 전락한 주자학 아류가 있었다. 양명학은 주자학 아류를 교정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주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왕부지는 안재호의 평처럼 정주학에서 '단지 존재할 뿐 움직이지 않는[只存有無活動]' 리체(理體)와 육왕학에서 '존재를 소홀히 하고 활동만 중시하는[忽存有重活動]' 심체(心體)를 비판하며, '존재하는 동시에 활동하는[既存有亦活動]' 기체(氣體)를 강조한다.(안재호, 〈왕부지철학〉, 문사철, 2011, 45쪽)

왕부지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도기론(道器論)에서 구체화된다. 다시 한 번 진성수의 말을 들어보자. "도기(道器) 개념은 주역의 '형이상의 것을 도라고 하며, 형이하의 것을 기(器)라고 한다'에서 처음 보이는데, 주자는 '괘효(卦爻)의 음양은 모두 형이하이고, 그 이치는 도이다.' 하고 해석하며 형이하의 세계와 형이상의 도를 엄격히 구분한다. 왕부지는 반면에 '~라고 한다(謂之)'라는 것은 그 일컫는 것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상하라는 말은 애초부터 정해진 어떠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의논하는 것에 따라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하에 특별한 경계선이 없으니, 도기(道器)에는 다른 본체가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천하에는 오직 기(器)일 뿐이다. 도(道)란 기(器)의 도이지, 기(器)를 도의 기(器)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상세계[氣]

와 그 배후의 본질[理]을 엄격히 구분하여 이원적(二元的)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정주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주학의 이원적 입장은 왕부지만이 아니라 양명학도 반대한다. 그렇다면 본체론의 근간을 이루는 이기론에서 왕부지와 양명학은 차별을 보이지 않는다. 왕부지가 양명학을 비판한 이상 이기론에서는 공통의 이해 지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점을 밝혀준다면 논의가 더욱 주밀해질 것이다.

4. 평가와 전망

〈명청대 유학〉 총17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로는 왕양명(양명학) 연구가 11편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물론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15년도부터(14년 발표 논문 기준) 왕양명에 대한 연구는 늘 수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학계에서 명청대 유학사 연구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한편 18년도에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이 새롭게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다.

명청대를 기준으로 선별한 17편의 논문은 작년에 26편으로 폭발적인 증가세 이후 예년 추세를 회복한 수량이면서 여전히 명대 양명학(심학)에 국한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다양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한국내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 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총 17편의 논문들 중에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문제의식이

있는 논문들이 다수 등장했다. 그 중 한 편을 꼭 고르자면 전홍석의 〈명말 예수회 '천학 · 선교신학'의 분화: 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를 명말 천주교 분화를 살피는 데 참고할 만한 논문으로 추천하고 싶다.

제2부 한국유학

제4장

한국 성리학 연구

배제성 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8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유교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1] 검토 범위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한국성리학 관련 학술지 논문(132편), 박사학위논문(10편)으로 총 142편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연구 현황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다음, 몇 편의 주요 논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동일한 논문이 복수(複數)의 인물이나 주제에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 모두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퇴계 이황(李滉, 退溪 1501-1570)에 관한 논문이 26편으로 가장 많았고, 율곡 이이(李珥, 栗谷 1536-1584)에 대한 논문이 19편으로 뒤를 이었다. 퇴계와 율곡에 대한 논문은 전체 편수가 45개로 비율 면에서 전체 검색 논문의 32%를 차지하여 여전히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대략 절반(약 45%)을 차지했던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또 퇴계와 율곡이 나란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퇴계가 율곡의 2배에 이르렀던 2014년도 이래의 경향에 비해서는 퇴계와 율곡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1 이 보고서는 배제성, 오진솔, 유한성, 이원준이 함께 집필하였다.

이외에는 남당 한원진(6편), 갈암 이현일(5편), 포저 조익(4편) 순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성리학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 한해 목록에 넣은 다산 정약용(7편)의 논문도 작년과 비슷한 양이 포함되었다. 이 중 남당 한원진에 대한 연구는 전년도에도 5편이 발표되었으며,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퇴계 · 율곡 · 다산을 제외하면 유일하다. 이 중에서도 정약용의 경우는 성리학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더라도 그 유관성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 · 율을 제외한 성리학자 가운데서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경우이다. 갈암 이현일의 경우 전년도 목록에는 1편만 수록되었지만 올해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포저 조익에 관한 연구는 작년도에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4편이 발표되었다.

한편 기대승에 관한 논문은 전년도에 8편으로 퇴 · 율 다음으로 많은 편수가 발표되었지만 올해에는 조사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주 이진상에 대한 논문도 전년도(6편)에 비해 많이 감소한 편이다(2편). 또한 간재 전우에 관한 연구는 2016년(6편)과 2017(4편)에는 비교적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올해에는 1편만이 확인되었다.

1) 퇴계 이황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추제협	이황과 이이의 정치개혁론과 성학 -「무진육조소」와 「만언봉사」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2	신태수	퇴계 독서시의 지향가치와 그 인성론적 의의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3	이정화	退溪 李滉의 述懷詩 硏究	퇴계학논총 31	퇴계학부산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권봉숙	퇴계의 건강증진 실행력 연구	퇴계학논총 31	퇴계학부산연구원
5	정재권	退溪와 水雲의 心學 考察	퇴계학논총 32	퇴계학부산연구원
6	황금중	퇴계 성리학에서 敬의 의미와 실천법: 敬의 四條說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7	김기호	퇴계의 『숙흥야매잠도』 정좌와 독서, 그리고 경	한국사상과문화 92	한국사상문화학회
8	지준호	퇴계 이황의 도덕교육론 – 『성학십도』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9	신창호	퇴계 언행록의 사제관계에서 탐색한 학습법과그 현대적 이해	한국철학논집 56	한국철학사연구회
10	강보승	퇴계의 虛心遜志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11	김부찬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활인심방(活人心方)에 나타난 심신수양론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임헌규	인공지능시대 유교 심성론의 의미– 공맹과 퇴계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84	대동철학회
13	오진솔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14	김기현	선심의 선과 중절의 선 – 사단칠정 해석 분기의 제1원인 –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5	홍성민	도덕 감정에 관한 퇴계와 율곡의 사유 – 상호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6	김지은	사단에 대한 주리적 해석 – 퇴계와 농암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7	강보승	인성함양의 관점에서 고찰한 퇴계의 리발설과 율곡의 기질변화론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18	이상익	退溪 性理學의 普遍性과 特殊性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19	정도원	退溪와 栗谷의 心學과 外王으로의 轉換論理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20	심형진	유학사상을 통해서 본 인성의 준거 – 퇴계와 다산의 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문화 91	한국사상사문화학회
21	이원진	퇴계의 理自到과 스피노자의 자기원인(causa sui)–퇴계 理의 體用論과 스피노자의 실체/속성론 비교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22	최영성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두 번의 만남 – 대화와 소통을 화두로–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3	김상현	이황은 왜 '리자도'를 말했는가? – 주희 격물론의 수용과 변용 –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24	이원준	퇴계는 '이도'를 어떻게 읽었는가 – '이도' 독법을 통해 본 '활물'로서의 '리'–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25	정주하	이황과 허목의 서예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미술학과
26	권순철	다카하시 도오루의 퇴계관 – 조선유학사 강의록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 이황에 관련된 연구는 26편으로 가장 많았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퇴계 연구 현황의 특징은 그의 사칠론, 이기론 그리고 심성론을 다루는 이론적인 논문의 비중도 매우 높지만, 수양론에 관한 논문도 많은 편이고, 또 문학, 미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두루 포괄된다는 점이다. 올해에는 리도설에 관한 논문이 3편이나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2) 율곡 이이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유경 이상열	율곡의 향약에 보이는 협동조합의 정신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2	김대흥	栗谷 李珥의 實踐倫理的 法制改革論 硏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철학과
3	이경구	'학'에서 '주의'로 이이와 송시열의 경서 이해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김경호	율곡 이이의 여정과 소통의 감성철학적 구상	유학연구 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고명신	율곡시의 주제영역과 미학적 특징	박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	황정희	『격몽요결』을 통한 '주체적인 나'의 자각과 도야 – 「수신장」을 통한 청소년 철학하기 방법론 제시 –	유학연구 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7	이병기	한국 전통 윤리학적 접근을 통한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방안 연구–『성학집요』 수기 상편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9	한국윤리교육학회
8	이천승	人乘馬 비유를 통해 본 율곡 이이의 도덕실천 지향의지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9	최보경	율곡 사상에 나타난 주체의 도덕 판단 의지 – 思 · 慮 · 念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10	김미소	栗谷의 “理” 哲學 硏究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11	손흥철	율곡의 태극론 연구	율곡학연구 36	(사)율국연구원
12	서원혁	栗谷李珥의 理通氣局 哲學硏究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철학과
13	추제협	이황과 이이의 정치개혁론과 성학 –「무진육조소」와 「만언봉사」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4	홍성민	도덕 감정에 관한 퇴계와 율곡의 사유 – 상호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5	강보승	인성함양의 관점에서 고찰한 퇴계의 리발설과 율곡의 기질변화론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16	정도원	退溪와 栗谷의 心學과 外王으로의 轉換 論理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17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율곡학설 비판에 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93	한국사상문화학회
18	최영성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두 번의 만남 – 대화와 소통을 화두로–	퇴계학논집23	영남퇴계학연구원
19	손흥철	龜峯과 栗谷의 學問과交遊	동양철학연구93	동양철학연구회

율곡에 관련된 논문의 수는 19편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퇴계와 더불어 여타의 인물보다 현격하게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올해의 율곡 관련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측면은 다른 학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 논문이 많았다는 점이다. 퇴 · 율의 관계에 중점을 둔 논문이 5편 있었고, 율곡과 구봉 송익필을 함께 다룬 논문이 2편, 송시열과 함께 논의한 논문이 1편 있었다. 또 서원혁(충남대학교 철학과, 「栗谷李珥의 理通氣局 哲學硏究」), 김대홍(강원대학교 철학과, 「栗谷 李珥의 實踐倫理

的 法制改革論 硏究」), 고명신(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栗谷 李珥의 實踐倫理的 法制改革論 硏究」) 등은 율곡 관련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3) 남당 한원진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민황기 이시우	홍주의병의 유교 학맥과 실천정신– 한원진의 사상과 이설 · 김복한 실천정신의 내적연관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조지선	한원진 성삼층설의 인성교육적 함의와 활용가치	양명학51	한국양명학회
3	정연수	「중용」편과 「맹자」편의 순차로 구성된 『주자언론동이고 』 체계에 관한 일고찰 – 한원진의 공부론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배제성	心 · 性 · 氣質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본 南塘 · 巍巖 未發論	양명학49	한국양명학회
5	이창규	人心道心說에서 朱熹와 韓元震의 문제의식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6	정연수	남당 한원진의 사상사적 위상재고–리의 주재성과 미발존양의 기질변화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37	(사)율국연구원

한원진에 대한 연구는 2016년에 이래로 지속적으로 비교적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올해의 연구 성과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호락논변에 중점을 둔 논문이 1편(배제성)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 외의 논문들은 한원진의 인심도심설을 다루거나(이창규), 그의 성삼층설의 인성교육적 함의를 탐구하거나(조지선), 「주자언론동이고」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원진의 공부론의 특징을 규명하고(정연수), 그의 철학적 특징에 기반하여 사상사적 특징을 조명하고(정연수), 한원진 사상과 홍주의병의 연관성을 탐구하는(민황기, 이시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4) 갈암 이현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낙진	〈홍범연의〉의 개혁사상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	정재훈	〈홍범연의〉의 제왕학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3	최영성	『홍범연의』를 통해 본 존재 · 갈암의 학문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4	안유경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사단칠정론 비교 고찰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5	이영호	『서경』『홍범』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이휘일 · 이현일의 『홍범연의』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올해 갈암 이현일에 대한 연구는 5편으로 작년(0편)에 비해 많이 증가한 편이다. 그런데 이 중 4편이 『홍범연의』를 다루고 있다. 즉, 『홍범연의』 관련 연구가 집중된 것이 올해 이현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원인이다. 그 외에 안유경은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사단칠정론을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5) 포저 조익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병기	經學史적 관점에서 본 浦渚 趙翼의 中庸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2	조정은	포저 조익의 경학사상에 나타난 수양관 –논어천설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	남지만	포저 조익의 성의공부로서의 무자기(毋自欺)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7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	임재규	16–17세기 朝鮮 經學에 있어서 朱子 中和說의 수용과 비판 – 趙翼과 朴世堂의 中和說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포저 조익에 관한 논문은 작년에 검토한 학술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었지만 올해에는 4편이 포함되었다. 조익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학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황병기, 조정은, 임재규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남지만은 '무자기(毋自欺)'를 중심으로 조익의 사상을 연구하였다.

6) 다산 정약용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봉규	조선후기 경세서의 예제와 그 성격－목민심서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임헌규	〈논어〉의 공자 '天'개념에 대한 일고찰－古 · 新注와 대비한 茶山 丁若鏞의 주석의 특징	동양고전연구 73	동양고전학회
3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맹자학과 혈기론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4	김윤경	霞谷學과 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試論 — 四德 · 四端論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5	심형진	유학 사상을 통해서 본 인성의 준거–퇴계와 다산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문화 91	한국사상사문화학회

다산 정약용은 주요하게는 실학의 범주로 분류되지만 성리학과 비교적 관련이 높아 보이는 논문들을 목록에 포함시켰다. 심형진은 퇴계와 다산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성론을 탐구하였고, 김윤경은 사단과 사덕을 중심으로 하곡학과 다산학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임헌규는 '천(天)' 개념에 대한 정약용의 주석을 분석하였고, 전성건은 정약용의 혈기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7)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오세현	주희의스승 이통을 바라보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선–『연평답문』의 간행 및 독서와 이통의 문묘종사를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8	한국사상사학회
2	장재천	우암 송시열의 여성교육관	한국사상과문화 95	한국사상문화학회
3	이경구	'학'에서 '주의'로 이이와 송시열의 경서 이해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이영자	구봉송익필의경세사상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5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율곡학설 비판에 대한 연구	한국사상과문화 93	한국사상문화학회
6	손흥철	龜峯과栗谷의學問과交遊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7	서근식	우담 정시한의 [사칠변증]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8	안유경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사단칠정론 비교고찰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9	노병렬, 천병돈	李恒老와 魏源의 時中之道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10	김현우	이항로의 심설과 서학–『벽사록변』·『아언』『양화』를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안유경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연구–한주 이진상과 만구 이종기의 서신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2	이상익	坪浦論爭의 근본 문제	영남학 6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3	서근식	성호 이익의 『사칠신편』에 나타난 사단칠정론 연구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4	오진솔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15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경사상 고찰	한국사상사학 59	한국사상사학회
16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미발론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두 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경우를 위주로 수록하였다. 우암 송시열과 구봉 송

익필에 대한 논문이 각각 3편 씩 발표되었다. 그리고 우담 정시한, 화서 이항로, 한주 이진상, 성호 이익, 대산 이상정에 대한 논문이 각각 2편씩 발표되었다.

3. 주제별 분류

이기론과 심성론이 성리학 이론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이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기 · 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총 56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은 수양론 및 교육론으로 총 21편(약 15%)이다. 그리고 경세론 관련 논문은 20편으로 약 14%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59편(약 42%)으로 단일 범주로서는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성리학 연구 범위와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이기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미소	栗谷의 "理"哲學 硏究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	손흥철	율곡의 태극론 연구	율곡학연구 36	(사)율국연구원
3	정연수	남당 한원진의 사상사적 위상 재고–리의 주재성과 미발존양의 기질변화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4	이상익	'인기위대본'은 오류인가? –『중용』의 '천하지대본'에 대한 재론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이원진	퇴계의 理自到과 스피노자의 자기원인(causa sui)–퇴계 理의 體用論과 스피노자의 실체/속성론 비교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6	김상현	이황은 왜 '리자도'를 말했는가? – 주희 격물론의 수용과 변용 –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7	이원준	퇴계는 '이도'를 어떻게 읽었는가 – '이도' 독법을 통해 본 '활물로서의 리' –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8	서원혁	栗谷李珥의 理通氣局 哲學研究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철학과

이기론에 대한 논문은 7편으로 전년도(16)에 비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이기론과 심성론의 범주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기심성론 전체의 편수와 비율이 더 중요한 변수이다. 이기심성론을 통합할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편수와 비슷한 비율(41%)을 보여주므로, 이기론의 편수가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로는 퇴계의 리도설(理到說)에 대한 연구가 3편 있었다. 김상현은 「이황은 왜 '리자도'(理自到)를 말했는가? - 주희 격물론의 수용과 변용 -」라는 논문에서 인식론과 수양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퇴계가 만년에 '리자도설'을 수용한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이원준(「퇴계는 '이도(理到)'를 어떻게 읽었는가 - '이도' 독법(讀法)을 통해 본 '활물(活物)로서의 리(理)'-」)은 리도(理到)에 대한 독법을 중심으로 퇴계 리도설에 담긴 철학적 함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퇴계의 리도설은 단지 '물격'을 해석하는 문법적 정합성을 넘어서서 리에 대한 그의 이해가 격물 · 물격의 맥락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원진(「퇴계의 理自到과 스피노자의 자기원인(causa sui)-퇴계 理의 體用論과 스피노자의 실체/속성론 비교」)은 다른 관점에

서 '리자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는 퇴계의 '리의 이동성'이 가지는 의미가 스피노자의 자기원인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제안한다. 퇴계의 '리자도'와 스피노자의 '자기원인'이 공통적으로 우주의 원리의 역동적인 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와 스피노자를 비교하고 있다.

김미소의 「栗谷의 "理" 哲學 硏究」는 기존연구에서 율곡의 기(氣)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한 반면, 리에 대한 그의 관점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율곡의 리에 대한 관점을 "형이하의 실재성이 없다"는 측면과 "형이상의 실재"라는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러한 틀 안에서 인간의 도덕 수양을 강조하는 것이 율곡의 취지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한편, 손흥철(「율곡(栗谷)의 태극론(太極論) 연구(硏究)」)은 태극에 대한 율곡의 이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율곡 이전에 있었던 조한보와 이언적의 태극 논변으로부터 율곡의 「역수책(易數策)」, 율곡과 우계의 태극문답, 『성학집요』, 율곡과 사암 박순의 토론 등을 고루 검토하면서 율곡의 태극론이 가진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익은 「'인기위대본(認氣爲大本)'은 오류인가? - 『중용(中庸)』의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에 대한 재론」에서 미발의 대본을 심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성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발의 대본이 성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심을 포함하는 개념인지는 호락논쟁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상익은 대본에 대한 주자의 설명에서 대본을 심으로 보는 관점, 성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심성을 아우르는 관점이 모두 있었다고 제시하며, 기(氣)를 아울러서 대본을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결론짓는다. 마지막으로 정연수

는 남당 한원진의 철학이 가지는 특징을 '리의 주재성 확립'과 '미발존양에 의한 심기의 기질변화론 확립'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주장이 후대에 끼친 사상사적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서원혁은 충남대학교 철학과에서 「栗谷李珥의 理通氣局 哲學硏究」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2) 심성론

2018년 동양철학 관련 학회에서 개제된 심성론 관련 논문은 총 35편이었다. 이 논문들의 내용과 수량을 고려해서 주제별로 분류해본 결과 사단칠정론, 호락논쟁, 심설논쟁 그리고 기타논문으로 나누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제별로 표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사단칠정론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유경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사단칠정론 비교고찰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	김윤경	霞谷學과 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試論－四德 · 四端論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3	홍성민	四七論의 해체와 善의 일원화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4	오진솔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5	이천승	人乘馬 비유를 통해 본 율곡 이이의 도덕실천 지향의지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6	김기현	선심의 선과 중절의 선－사단칠정 해석 분기의 제1원인－	율곡학연구 37	(사)율곡연구원
7	홍성민	도덕 감정에 관한 퇴계와 율곡의 사유－상호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7	(사)율곡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8	김지은	사단에 대한 주리적 해석 – 퇴계와 농암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9	서근식	성호 이익의 『사칠신편』에 나타난 사단칠정론 연구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0	서근식	우담 정시한의 [사칠변증]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심성론에서 기타를 제외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주제는 사단칠정론이었다. 총 12편이 발표되었다. 특히 2017년과 유사하게 이 중 과반수가 퇴계 이후 남인, 구체적으로 우담과 갈암, 성호의 사칠론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 이에 기본적으로 퇴계의 사칠론에 대한 학계의 이해가 성숙되면서, 퇴계 이후 남인에게서 사칠론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을 알 수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논문들로는 우선 오진솔의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다. 오진솔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퇴계와 성호의 사칠론을 다르게만 규정하고 더 분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성호의 의문이 퇴계의 사칠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서술했다. 이 논문은 퇴계의 사칠론과 성호의 사칠론이 논의 맥락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바꿔줄만한 성과라고 본다. 또한 서근식은 「우담 정시한의 [사칠변증(四七辨證)]에 관한 연구 」에서 기존의 우담 사칠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각 선행연구들이 가진 특징과 장단점을 고루 서술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우담 사칠론 연구가 가지는 위상을 재확인 할 수 있고, 후속 연구자들의 문제의식 수립에 있어 좋은 안내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심설논쟁 관련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영성	사상사의 맥락에서 본 19세기 심설논쟁 사칠논쟁에서 심설논쟁까지-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2	유지웅	한말 기호학계와 심설논쟁-기호학계의 상황과 심설논쟁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현우	이항로의 심설과 서학-『벽사록변』·『아언』『양화』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4	안유경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연구 -한주 이진상과 만구 이종기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5	김낙진	주문팔현과 퇴계학자들의 토론에서 드러나는 한주학의 특징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6	안유경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교 연구	영남학 6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7	이상익	坪浦論爭의 근본 문제	영남학 6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8	안유경	양재 권순명의 心論 고찰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2017년 하반기 심설연구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해당 논쟁 관련 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는 2018년 연구성과 분석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관련 연구는 총 8편으로서 대부분의 저자들이 해당 연구팀에 연구원으로 소속된 상태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는 최영성의 「사상사의 맥락에서 본 19세기 심설논쟁(心說論爭)-사칠논쟁(四七論爭)에서 심설논쟁(心說論爭)까지-」를 들 수 있다. 논문에서 저자는 두 가지 관점으로 심설논쟁을 보고 있다. 우선 사칠논쟁과 호락논쟁의 철학적 연장선으로서 심설논쟁을 보고 이 논쟁이 가지는 위상과 특징을 탐색하고 있다. 또한 당시 사대부들의 의병활동과 심설논쟁을 연관해봄으로써 성리설이 가지는 실천적 양상을 분석했다. 논문은 기본적으로 당시 구한말 사대부들의 시대의식을 바탕으로 성리

설과 의병활동이라는 상반된 두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3) 호락논쟁 관련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제성	心 · 性 · 氣質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본 南塘 · 巍巖 未發論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2	이종우	삼연 김창흡의 미발설과 호락논쟁에서 그 위상	열상고전연구 63	열상고전연구회
3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미발론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4	박학래	대산 김매순의 성리설 연구 – 호락논쟁의 주요 쟁점에 유의하여 –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8년에 개제된 호락논쟁 관련 논문은 총 4편이다. 이 중 기존에 가장 많이 다루었던 남당과 외암 관련 논문은 1편이고, 상대적으로 주변인물인 삼연과 대산(臺山)의 논문이 2편이다. 그리고 남인으로 분류되는 대산(大山)에 관한 연구가 1편이다. 이를 보면 사칠론과 마찬가지로 해당 논쟁에 관한 이해가 성숙되었고 그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 돌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주목해볼만한 논문은 배제성의 「心 · 性 · 氣質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본 南塘 · 巍巖 未發論」이다. 저자는 주자의 심성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남당과 외암의 미발론이 각각 다른 맥락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논문에서 남당은 성선의 근거와 심에 관한 수양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단지와 겸지로 성과 심기의 편차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암은 남당의 논리를 수양의 주체인 심을 격하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성선의 실현자인 심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단순

비교 혹은 개념규정상의 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고, 철학적 관점에서 두 논자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분석했다. 때문에 이 글은 해당 주제의 성과들이 집약된 결정체로서, 그리고 조선 성리학 특히 호락논쟁을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이 된다고 생각한다.

(4) 기타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윤경	기묘사화와 中和論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2	심의용	成以心의『人易』과 스피노자의 感情論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	임재규	16–17세기 朝鮮 經學에 있어서 朱子 中和說의 수용과 비판 – 趙翼과 朴世堂의 中和說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4	임헌규	인공지능시대 유교 심성론의 의미 – 공맹과 퇴계를 중심으로 –	대동철학 84	대동철학회
5	최보경	율곡 사상에 나타난 주체의 도덕 판단 의지 – 思 · 慮 · 念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6	고재석	조선 전기 심학의 전개에 관한 연구 – 象山 학문의 수용태도와 비판논점 분석을 중심으로 –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7	전병욱	穌齋 盧守愼의 人心道心 사상	퇴계학논총 32	퇴계학부산연구원
8	이상익	退溪 性理學의 普遍性과 特殊性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9	정도원	退溪와 栗谷의 心學과 外王으로의 轉換論理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10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율곡학설 비판에 대한 연구	한국사상과문화 93	한국사상문화학회
11	심형진	유학사상을 통해서 본 인성의 준거 – 퇴계와 다산의 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문화 91	한국사상사문화학회
12	이창규	人心道心說에서 朱熹와 韓元震의 문제의식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13	강보숭	인성함양의 관점에서 고찰한 퇴계의 리발설과 율곡의 기질변화론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기타 주제들의 연구는 총 13편이다. 주제를 나눠보면 퇴계와 율곡에 관한 논문이 총 6편이고, 중화설에 관련된 논문은 2편이며, 인심도심에 관련된 논문도 2편이다. 2017년도에 비해 기타 논문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점에서 이미 심성론 관련 논문들은 특정 논쟁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퇴계율곡 관련 논문 6편중에서 3편(임헌규, 심형진, 강보승)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철학적 개념규정을 벗어나 현대 인성교육에서 성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임헌규의 「인공지능시대 유교 심성론의 의미- 공맹과 퇴계를 중심으로-」는 심성론 연구의 다양성과 인성교육 강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논문이다. 저자는 AI시대에서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차별점을 성리학에서 찾고자 한다. 기존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자극과 반응이라는 기계적인 존재로 다룬다. 반면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에서 도덕의 근원을 찾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위상을 확립시켜주는데 좋은 철학적 이론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응용을 모색하는 연구 성격상 세부적인 논리의 정밀함에 있어서는 다소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후속 연구자들이 심성론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제안한 논문으로 의미가 있다.

심성론 관련 연구를 분석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면을 볼 수 있었다. 첫째, 여전히 사칠논쟁, 호락논쟁과 같은 주제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전히 심성정의 개념규정, 개념간의 관계 규정이 조선 성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퇴계나 율곡을 넘어서 다른 학자들의 심성론을 분석한 논문이 늘어났다. 때문에 특정 주제에 집중하면서도 그에 대한 자료가 더욱 풍부해

지고, 이를 통해 심성론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었다. 다만 외연이 확장되었음에도 그것이 가진 의의가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또 연구내용들도 기존 선행연구와 크게 차별되지 못했고 그 분석의 질이 크게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타 연구의 양이 늘어났고 그 연구폭도 더욱 넓어졌다. 특히나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교육학과의 연계가능성이 넓어졌다. 때문에 연구자들이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은 고무될만한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다른 학문에서 시작되었음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만약 본 전공의 연구자들이 해당 주제로 논문을 썼다면 훨씬 더 정밀한 성과를 냈을 것이라 본다. 물론 자기 연구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연계가능성이 높고, 실천적인 효과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연구자들 또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 이 외연의 확장에서 심성론이 현대적으로 읽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3) 수양론 및 교육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재목	장계향의 성인관과 교육론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이아름	월천 조목의 교육활동 탐색	교육철학 69	한국교육철학회
3	정대진	『心經發揮』를 통해 본 寒岡 鄭逑의 실천정신	민족문화논총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4	조지선	한원진 성삼층설의 인성교육적 함의와 활용가치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5	권봉숙	퇴계의 건강증진 실행력 연구	퇴계학논총 31	퇴계학부산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황금중	퇴계 성리학에서 敬의 의미와 실천법: 敬의 四條說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7	장재천	우암 송시열의 여성교육관	한국사상과문화 95	한국사상문화학회
8	김기호	퇴계의 『숙흥야매잠도』 정좌와 독서, 그리고 경	한국사상과문화 92	한국사상문화학회
9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경(敬)사상 고찰	한국사상사학 59	한국사상사학회
10	지준호	퇴계 이황의 도덕교육론 – 『성학십도』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신창호	퇴계 {언행록}의 사제관계에서 탐색한 학습법과그 현대적 이해	한국철학논집 56	한국철학사연구회
12	안유경	사미헌 장복추의 『夙興夜寐箴集說』에 대한 고찰	영남학 6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3	강보승	퇴계의 虛心遜志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14	황정희	『격몽요결』을 통한 '주체적인 나'의 자각과 도야 – 「수신장」을 통한 청소년 철학하기 방법론 제시 –	유학연구 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5	정연수	「중용」편과 「맹자」편의 순차로 구성된 『주자언론동이고』 체계에 관한 일고찰 – 한원진의 공부론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김부찬	퇴계이황의 활인심방에 나타난 심신수양론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7	이병기	한국 전통 윤리학적 접근을 통한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방안 연구–『성학집요』 수기 상편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9	한국윤리교육학회

퇴계 본인을 주제로 한 논문은 총 7편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수양론을 다룬 논문이 4편(권봉숙, 김기호, 황금중, 김부찬), 공부론을 다룬 논문이 3편(강보승, 신창호, 지준호)이다.

수양론 논문은 대체로 퇴계 수양론의 핵심 개념어인 경(敬)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순수하게 경(敬) 사상의 내용을 분석한 논문은

황금중의 「퇴계 성리학에서 敬의 의미와 실천법: 敬의 四條說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 편으로, 경에 대한 주요 명제인 '主一無適', '整齊嚴肅', '常惺惺法', '心收斂不容一物'이 '전일(專一)'이라는 동일한 체험의 다양한 풀이로 보고, 이를 인욕적 소음을 비워낸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天理가 드러나고 窮理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김기호의 「퇴계의 『숙흥야매잠도』 정좌와 독서, 그리고 경」에서 경(敬)은 「숙흥야매잠도」에 제시된 정좌수행, 몰입독서를 지탱하고 연결하는 중심으로 제시되어 독서방법론의 측면에서 경(敬) 사상의 기능을 서술하였다.

수양론과 관련된 나머지 두 논문은 각각 간호학, 스포츠과학 계열에서 퇴계 사상을 현대적으로 적용시킬 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권봉숙의 「퇴계의 건강증진 실행력 연구」에서는 퇴계의 저술에서 보건의학 개념인 '건강증진'에 대한 근원과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계 사상 속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담론이 현대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부찬의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활인심방(活人心方)에 나타난 심신수양론」에서는 퇴계의 수양론을 마음수양과 몸수양의 두 갈래로 분석한 뒤 이를 경(敬)과 연관시킨 것으로, 퇴계사상이 상업화와 물신화에 빠져 있는 현대 체육활동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공부론 논문 가운데 강보승의 「퇴계의 虛心遜志: 비우는 공부와 실천 방법」은 '마음을 비움[虛心]' 또는 '마음을 비우고 뜻을 겸손히 함[虛心遜志]'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퇴계의 '비우는 공부'를 고찰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입지(立志)와 물망물조장(勿忘勿助長) '비우는 공부'의

시작과 관건으로 보고, 유유자적과 『소학』의 일상적 실천을 골자로 하는 '자연스럽게 비우기'와 정좌를 골자로 하는 '적극적으로 비우기'를 '비우는 공부'의 실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지준호의 「퇴계 이황의 도덕교육론-『성학십도』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는 성학(聖學)을 목표로 경(敬)을 통하여 인륜(人倫)에 기초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실천적 노력을 기울인 퇴계 이황의 도덕교육론을 탐구한 것으로,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고 전통교육의 측면에서 도덕문화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오늘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신창호의 「퇴계 『언행록』의 사제관계에서 탐색한 학습법과 그 현대적 이해」에서는 퇴계의 사제관계를 통해 퇴계의 교육방법론을 살펴본 것으로, 퇴계의 교육방법론이 인지학습의 측면에서는 잠재학습과 통찰학습, 모방학습과 상통하고, 성인학습의 측면에서는 경험학습과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의사소통학습의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퇴계의 수양론과 공부론 연구성과들은 퇴계 사상 자체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퇴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목표로 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퇴계 사상 자체를 분석한 2편의 논문 가운데 황금중의 논문은 경(敬) 사상과 관련된 제 명제들을 전일(專一)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존에 활발히 연구되던 경(敬) 개념을 재구성하였고, 강보승의 논문은 퇴계의 허심(虛心) 공부법을 분석함으로써 퇴계 공부론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퇴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는 퇴계 교육방법론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김기호, 지준호, 신창호), 철학 외 분야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

(권봉숙, 김부찬)은 각 연구자들의 전공분야에 퇴계 수양론의 내용을 접합함으로써 퇴계사상의 현대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퇴계의 후학 및 퇴계와 관련된 인물을 주제로 한 논문은 총 5편이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인물별로는 퇴계 직전제자를 주제로 한 연구가 2편으로 각각 월천 조목(月川 趙穆, 1524~1606) 과 한강 정구(寒岡 鄭逑, 1543~1620)를 주제로 하였다. 재전 이하 퇴계학파를 주제로 한 연구는 2편으로, 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靖, 1710~1781)과 사미헌 장복추(四未軒 張福樞, 1815~1900)를 주제로 동일한 연구자의 논문이다. 또한 퇴계학파 관련 인물로 경당 장흥효(敬堂 張興孝, 1564~1633)의 딸인 장계향(張桂香, 1598~1680)을 주제로 한 연구가 1편 있다.

이아름의 「월천 조목의 교육활동 탐색」은 조목의 서원건립과 향교중건, 강학활동 등을 토대로 그의 교육자적 면모를 조망하였으며, 그가 퇴계학인이자 교육자로써 스스로 본보기가 되는 형태의 교육활동을 진행했다고 보았다.

정대진의 「『心經發揮』를 통해 본 寒岡 鄭逑의 실천정신」은 정구가 유교적 입장에서의 실천을 확립하고자하는 의도로 『심경발휘』를 편찬하였으며, 「경이직내장」에서 '경(敬)'의 중요성을 여러 범주와 상관적 개념을 분석하고 경의 구체적 과정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입증함으로써, 그가 마음의 내면과 외면을 밝힘에 있어서 '敬'중심의 실천정신을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안유경의 논문 가운데 「대산 이상정의 경(敬)사상 고찰」은 이상정의 경 공부를 내외(內外)와 동정(動靜)의 관계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안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밖으로의 정제엄숙(整齊嚴肅)을 강조하였고, 고요함을 근본으로 삼으면서 일상의 동적인 상황에서 경을 유지할 것을 강

조하였음을 밝혔다. 동시에 이상정이 동정을 지나치게 구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부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動中之靜, 靜中之動'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불교의 좌선(坐禪)과 구분되는 유가 경 공부의 특징이자 이상정의 경 사상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또 다른 논문인 「사미헌 장복추의 『숙흥야매잠집설』에 대한 고찰」은 장복추가 퇴계의 「숙흥야매잠도」의 구성에 근거하여 「숙흥야매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숙흥야매잠집설」을 저술하였고, 여기서 그가 이상정과 같이 내외와 동정의 틀로 경을 해석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장복추의 작업이 정주학 수양론의 중심이 되는 경의 실천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심화시킴으로써 퇴계학파의 수양론적 전통을 계승, 강화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최재목의 「장계향의 성인관(聖人觀)과 교육론」에서는 장계향이 영남 퇴계학파의 '경'의 전통을 계승하는 장흥효의 가르침을 더욱 충실하게 계승하여 '경신'(敬身)을 추구하였다고 본다. 이를 기반으로 장계향의 교육론에서 (1) 경신(敬身)='자기존중' 교육, (2) 섬김-모심으로 타자 대하기, (3) 욕망과 감정의 움직임을 일상 속에서 체크하기, (4) 원만한 긍정적 대화법의 특징으로 나타나며, 이는 '상담, 리딩의 기법'으로서 현대에도 계승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퇴계 본인에 대한 연구성과가 퇴계사상의 현대적 적용과 외연 확장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퇴계학파의 수양론 및 공부론과 관련된 연구성과는 모두 해당 사상가 본인의 사상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아름의 논문을 제외한 모든 연구가 경 사상을 중심에 놓고 각 학자의 저술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퇴계후학의 수양론에 대한 연구가 주로 경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개별 학자에 대한 독자적 연구보다는 퇴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율곡과 율곡학파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5편으로, 구체적으로는 율곡 본인을 주제로 한 연구가 2편(황정희, 이병기), 율곡학파의 학자를 주제로 한 연구가 3편이다. 율곡학파의 경우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여성교육관을 주제로 한 논문이 1편(장재천),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 1682~1751)의 공부론을 주제로 한 논문이 2편(조지선, 정연수)이다.

율곡 본인을 주제로 한 연구 중 황정희의 「『격몽요결』을 통한 '주체적인 나'의 자각과 도야(陶冶)」는 공부행위의 목적과 의의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철학하기'의 과정을 직접 실천해 보는 방법론으로 『격몽요결』을 제시하였다. 해당 논문은 「입지(立志)」, 「혁구습(革舊習)」, 「지신(持身)」, 「독서(讀書)」장을 수신(修身)으로 통합한 뒤 이를 꿈의 자각(입지)과 도야(혁구습, 지신, 독서)로 규정하고, 이것이 능동적, 주체적 '철학하기'가 된다고 보았다.

이병기의 「한국 전통 윤리학적 접근을 통한 도덕과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 『성학집요』 수기 상편을 중심으로」의 경우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 시 한국 전통 윤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성학집요』 〈수기 상〉편에서 고려할 수 있는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성학집요』 〈수기 상〉편에서 志於道, 居敬, 窮理三端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율곡학파를 주제로 한 연구 중 장재천의 「우암 송시열의 여성교육관」은 송시열의 철학이 주자의 교의를 철저히 신봉하였지만 사변적 이

론보다는 실천적인 수양과 사회적인 변용에 더 역점을 두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문제도 전통적인 미덕을 강조한 동시에 주부권과 관련된 경제적 구실도 중시하였으며, 현대인들에게도 일부는 꼭 필요한 성품수양이나 언어생활, 행동예절, 교양생활 등 지극히 윤리 · 도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조지선의 「한원진 성삼층설의 인성교육적 함의와 활용가치」에서는 한원진이 성삼층설에서 기질 변화를 통해 인간다움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보고, 한원진의 사상이 인간본성의 철학적 정의에서부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론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의 본성론과 공부론이 인성교육과 관련해 충분한 철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정연수의 「「중용(中庸)」편과 「맹자(孟子)」편의 순차로 구성된 『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考)』 체계에 관한 일고찰」에서는 한원진이 미발심을 경으로 존양(存養)하는 공부를 주장한 이후에 기질변화의 역행공부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 이에 기반하여 『주자언론동이고』에서 일반적인 사서 학습법인 『대학』–『논어』–『맹자』–『중용』 순이 아닌 『중용』–『맹자』 순으로 구성한 까닭이 존양이후 기질변화를 강조한 그의 공부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율곡 및 율곡학파의 수양론과 공부론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들은 대부분의 논문이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논문이다. 율곡을 주제로 한 연구는 『격몽요결』, 『성학집요』 등 율곡의 저술에서 그의 수신(修身) 관념의 특징을 포착하고, 이러한 율곡 수신관의 현대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문집 외의 저술에서 수양론의 특징을 포착해내는 작업은 율곡학파인 한원진 수양론의 특성을 분석하는 논문(정연수)에

서도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 논문들은 공통으로 기질변화 강조와 강한 실천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기질변화를 기저로 한 실천의 강조를 율곡 및 율곡학파 수양론과 공부론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세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낙진	『홍범연의』의 개혁사상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	김대홍	栗谷 李珥의 實踐倫理的 法制改革論硏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철학과
3	김태희	조선의 '유가적 법치'이념:『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 편찬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4	노병렬 천병돈	李恒老와 魏源의 時中之道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5	안유경 이상열	율곡의 향약에 보이는 협동조합의 정신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6	이영자	구봉 송익필의 경세사상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7	이영호	『서경』「홍범」 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이휘일 · 이현일의 『홍범연의』 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8	이욱근	선조대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 연구	동양고전연구 72	동양고전학회
9	이종수	鄭道傳『朝鮮經國典』法治思想 分析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10	이해임	조선전기 중앙관료의 맹자(孟子)에대한 인식-실록과 경연자료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1	임형택	修堂 李南珪의 사상과 문학	민족문화 51	한국고전번역원
12	정재훈	『홍범연의』의 제왕학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13	최석기	錦溪 黃俊良의 經世意識과 精神志向	영남학 6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4	최연식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경국제세, 그리고 전쟁관리	동양고전연구 73	동양고전학회
15	최영성	『홍범연의』를 통해 본 존재 · 갈암의 학문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6	추제협	이황과 이이의 정치개혁론과 성학 –「무진육조소」와 「만언봉사」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7	(사)율곡연구원

성리학에서 경세론은 말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다루는 이론이다. 경세론에서는 흔히 정치이론 혹은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다룬다. 2018년에 발표된 논문은 총 16편(학술지논문 15편, 박사학위논문 1편)이며, 총 14편의 경세론 관련 논문이 발표된 2017년도보다 출간 논문 수가 증가하였다. 시대별로 주요한 사회문제가 다르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도 또한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경세론 관련 논문들은 대개 인물별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동안 한국 성리학 연구자들의 경세론 주제 연구를 살펴보면, 이이(李珥, 1536~1584) 관련 연구는 매년 전체 연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였다. 2018년에도 이이의 경세론 관련 논문은 총 3편(김대홍, 「栗谷 李珥의 實踐倫理的 法制改革論硏究」; 안유경 · 이상열, 「율곡의 향약에 보이는 협동조합의 정신」; 추제협, 「이황과 이이의 정치개혁론과 성학 –「무진육조소」와 「만언봉사」를 중심으로–」)이 발표되어 전체논문 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경세론 연구의 특이사항이라면 이휘일(李徽逸, 1619~1672)과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저술한 『洪範衍義』와 관련된 논문이 총 4편이라는 점이다. 2018년도 전에는 『홍범연의』를 다루는 연구가 총 4편에 불과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2] 『홍범연의』 연구에 있어서도

2 2018년도 이전 발표된 『홍범연의』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송찬식(宋贊植 1982), 「洪範街義 解題」; 김성윤(金成潤 2006), 「洪範衍義의 토지개혁론과 상업론」, 「『홍범연의』의 정치론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학연구』35에서 『홍범연의』 특집으로 4편의 논문을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학연구』 특집 논문 4편 중 김낙진(「『홍범연의』의 개혁사상」), 정재훈(「『홍범연의』의 제왕학」), 최영성(「『홍범연의(洪範衍義)』를 통해 본 존재存齋 · 갈암葛庵의 학문」) 등 3편의 논문이 경세론을 다루었다.[3] 특집논문 외에도 이영호(「『서경』 「홍범」 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 – 이휘일 · 이현일의 『홍범연의』 분석을 중심으로 –」)의 논문이 『홍범연의』와 관련된 경세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논문은 『홍범연의』의 경세론을 다루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김낙진의 논문은 『홍범연의』에서 토지제도 등의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재훈의 논문은 『홍범연의』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임금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홍범연의』 이전 제왕학과 대조하여 파악하였다. 최영성의 논문은 『홍범연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磻溪隧錄』, 『洪範學記』과 같은 다른 홍범학 혹은 경세학 저술들과 비교하여 조선 경세학 내 『홍범연의』의 위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호의 논문은 『홍범연의』의 내용을 占卜적 경세론이라 분석하며 『홍범연의』를 주자학적 경세학이 아닌 『서경』 시대 경세학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8년 경세론 연구는 또한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조선의 법치 기반에 보다 주목하였다. 조선의 법치 기반과 관련된 논문은 총 2편으로

과 군제개혁론」; 김홍수(金洪水 2014), 「『洪範衍義』의 편찬과 간행」

3 『국학연구』35의 『홍범연의』 특집논문 중 한형주의 「『홍범연의』에 보이는 국가제사」는 경세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본고에서는 제하였다.

김태희(「조선의 '유가적 법치'이념: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 편찬을 중심으로」)와 이종수(「鄭道傳 『朝鮮經國典』 法治思想 分析」)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김태희의 논문은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의 공통 속성으로 禮와 祖宗成憲 강조를 들며 이를 '유가적 법치'의 이념으로 파악하였다. 이종수의 논문은 『조선경국전』에 등장하는 정도전 민본사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도전 민본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규정하였다.

이전 경세론 연구경향에서는 연구의 대상 인물이 다양하였다. 2018년 경세론 연구도 이와 같은 연구 추세가 이어졌다. 앞서 언급한 인물들을 제하고도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송익필(宋翼弼, 1534~1599), 이건방(李建芳, 1861~1939), 이남규(李南珪, 1855~1907), 이원익(李元翼, 1547~1634), 이항로(李恒老, 1792~1868), 황준량(黃俊良, 1517~1563)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다만 시기적으로 16세기와 19세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민황기 이시우	홍주의병의 유교 학맥과 실천정신 – 한원진의 사상과 이설 · 김복한 실천정신의 내적연관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추제협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 – 곽재겸, 서사원, 손처눌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3	최영성	牧隱 李穡의 歷史意識과 民族思想	국학연구 37	한국국학진흥원
4	이현선	정도전의 불교 비판에서 『맹자』의 영향과 성리학에 대한 이해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5	박학래	蘆沙學 硏究의 現況과 課題 – 한국 철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70	동양고전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임헌규	〈논어〉의 공자 '天'개념에 대한 일고찰 – 古 · 新注와 대비한 茶山 丁若鏞의 주석의 특징	동양고전연구 73	동양고전학회
7	이창욱	朝鮮 性理學의 鬼神論 비교연구	동양철학연구 95	동양철학연구회
8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7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9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맹자학과 혈기론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10	하나	16세기 조–명 학자 사이의 학술논쟁 연구 – 주자학–양명학 논쟁을 중심으로 –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11	이철승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와 유가철학	철학연구 145	대한철학회
12	조정은	포저 조익의 경학사상에 나타난 수양관 – 논어천설을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3	권순철	다카하시 도오루의 퇴계관 – 조선유학사 강의록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14	김선희	道, 學, 藝, 術 – 조선후기 서학의 유입과 지적 변동에 관한 하나의 시론 –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15	김세서리아	조선 후기 여성 문집의 유가경전 인용 방식에 대한 여성철학적 고찰: 이사주당의 『태교신기』와 이빙허각의 『규합총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0	한국여성철학회
16	정성식	고려후기 정몽주의 불교이해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7	황광욱	'도죽장, 부채, 거문고'를 통해 본 서경덕의 선비적 풍모와 기철학적 특징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8	이행훈	조선전기 '격치' 개념의 의미화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19	김지은	서구문물 유입에 따른 정재학파와 미토학파의 사상적 대응 비교	영남학 6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	정성식	일두 정여창의 도학사상	온지논총 54	온지학회
21	김경호	율곡 이이의 여정과 소통의 감성철학적 구상	유학연구 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2	고명신	율곡시의 주제영역과 미학적 특징	박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	정환희	조선의 성리학 개념사전, 李植의 『初學者訓增輯』 연구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24	최영성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두 번의 만남 – 대화와 소통을 화두로 –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5	김소희	농산 신득구의 天說에 대한 논쟁 연구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26	손흥철	龜峯과 栗谷의 學問과 交遊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7	이인영	樓亭의 儒風에 나타난 性理學硏究: 朝鮮朝 江原道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철학과
28	인현정	홍대용의 정치철학과 물학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29	정주하	이황과 허목의 서예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미술학과
30	임란경	성재 유중교의 악론과 실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음악학과
31	오세현	주희의 스승 이통을 바라보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선-『연평답문』의 간행 및 독서와 이통의 문묘종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8	한국사상사학회
32	신태수	퇴계 독서시의 지향가치와 그 인성론적 의의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33	이정화	退溪 李滉의 述懷詩 硏究	퇴계학논총 31	퇴계학부산연구원
34	이정화	임윤지당의 문학을 통해 본 마음의 의미	한국사상과문화 94	한국사상문화학회
35	장동우	행례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가례』연구의 특성 및 함의-『사례편람』과『가례집요』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36	도민재	晦齋〈奉先雜儀〉의 禮學史的 意義-16세기 祭禮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2	동양고전학회
37	장동우	變禮書를 통해 본 조선후기『家禮』연구의 특성 및 함의-『禮疑答問分類』와『禮疑類輯』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성리학 연구에서 앞서 살펴본 이기론 · 심성론 · 수양론(및 교육론) · 경세론 등은 가장 전형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리학 연구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기 어렵고 그 외에도 많은 논문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개의 논문들을 아래에 소개하였다.

이행훈의 「조선 전기 '격치' 개념의 의미화」는 격치성정(格致誠正)

의 유기적 연결에 기반한 지행통합을 성리학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본령으로 보고, 조선성리학의 발전 과정에서 포착되는 '격물치지' 개념의 의미화를 통해 지식과 주체가 유리된 현재의 지식 유통에 대해 성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곽신환의 「이색과 이이의 주돈이 이해와 추존」은 유학자이면서 불교를 깊이 이해하였던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과 율곡이 주돈이를 성리학의 비조로 추존하였음을 밝히고, 이색이 주돈이의 정정(靜定)공부를 강조하였다면, 율곡은 그를 천민(天民)으로 규정하고, 그의 태극론을 기반으로 본원탐구의 체계를 확립해 나갔다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정재권의 「退溪와 水雲의 心學 考察」은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의 심학(心學)에 유교의 현실적 세계관, 居敬의 수행방법, 유교적 천인합일의 논리가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퇴계 심학과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학문적 기반과 연계하여 퇴계학과 동학 한국적 유교의 발전과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추제협의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은 괴헌 곽재겸(槐軒 郭再謙, 1547~1615), 악재 서사원(樂齋 徐思遠, 1550~1615), 모당 손처눌(慕堂 孫處訥, 1553~1634) 의 사상을 통해 한강학파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그 특징으로 '심학心學'을 중시하되 경공부(敬工夫)로 일관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이를 의병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았다. 선병삼의 「우리 곁의 유학자 익분 최영대의 삶과 학문」은 간재 전우(艮齋 全愚, 1841~1922)의 재전문인으로 근현대 시기의 성리학자 익분 최영대(益奮 崔永大, 1903-1981)의 성리설을 고찰한 논문으로, 그의 사상을 간재의 성사심제학(性師心弟學)을 계승한 위정벽이(衛正闢異), 존화양이(尊

華攘夷)의 강상론, 보도척속(保道斥俗)으로 보았다.

권오영은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에서 영남지역 여러 퇴계학파의 학문 경향 및 학맥, 주요 논쟁 등을 다루었다. 유범휴(柳範休)·유치명(柳致明) 중심의 호론(虎論), 유상조(柳相祚)·유이좌(柳台佐) 중심의 병론(屛論) 및 경기지역의 학문을 계승한 허전(許傳) 문하를 서로 비교하고 이들 사상의 동이(同異)를 파악하였다. 김세서리아(「조선 후기 여성 문집의 유가경전 인용 방식에 대한 여성철학적 고찰」)는 여성실학자로 명명되는 이사주당(李師朱堂, 1739~1821)의 『태교신기(胎敎新記)』와 이빙허각(李憑虛閣, 1759~1824)의 『규합총서(閨閤叢書)』에 나오는 유교경전 인용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지식인이 어떻게 유교를 인식하고 구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김지은은 「서구문물 유입에 따른 정재학파와 미토학파의 사상적 대응 비교」라는 논문에서 명이 멸망한 뒤 조선과 일본이 가졌던 중화사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와 서양세력에 대해 영남의 정재학파(定齋學派)와 일본의 미토학파가 각 나라의 중화사상과 각 학파의 특성에 근거해서 어떠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는지를 밝혔다.

이현선의 「정도전의 불교 비판에서 『맹자』의 영향과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정도전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불씨잡변』을 저술하였다는 견해에 대해, 정도전이 『맹자』가 유가적 성인의 도를 드러내기 위해 논적들을 상대했던 것처럼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불씨잡변』을 저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에 있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불씨잡변』이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배종석(「도산道山 박재헌朴載憲의 시대인식과 학문 — 「물경천택설변」과 「자유변」을 중심으로」)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살았던 성리학자 박재헌이 그가 저술한 「物競天擇說辨」과 「自由辨」에서 서양의 진화론과 자유 개념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였는지 고찰하고 있다. 박재헌은 서양의 사상이 천리에 반하고 인의예지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크게 비판하였다. 이창욱(「朝鮮 性理學의 鬼神論 비교 연구」)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귀신론에 대한 이해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김경호(「율곡 이이의 여정과 소통의 감성철학적 구상」)는 율곡의 '여정(輿情)'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소통에 대한 그의 태도와 지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① 이상익의 「'인기위대본'은 오류인가? – 『중용』의 '천하지대본'에 대한 재론」

이 논문은 중용에서 기원하는 미발의 중(中), 혹은 '천하지대본'이 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맞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서의 기는 실제로는 미발의 심(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특히 조선의 호락논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이다. 남당 한원진이 대본은 리(理)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심성을 아우르는[心性一致] 것이라는 외암 이간과 대립하였다. 이 논문의 제목에 포함된 '인기위대본'은 사실 남당이 이간을 비판한 내용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주자학의 미발이 심과 성의 두 측면을 포함하고, 또 성 자체를 가리키는가 하면, 공부를 통해 도달한 공효 등의 의미를 포괄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규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자가 정작 이 측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

으며, 또 그래서 '대본'이 성에만 해당하는지, 혹은 심을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주자의 다양한 언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사이의 경중이나 의미를 판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중용』의 주자주(朱子註)를 비롯한 다양한 전거를 참조하여 주자가 대본을 성으로만 본 경우, 마음으로 대본을 설명한 경우, 심성일치를 대본으로 설명한 경우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심성일치를 대본으로 본 것이 주자학의 정론에 더 부합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자가 시도한 논증 전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여지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변별하기 어려운 쟁점에 대해 이처럼 체계적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다는 점만으로도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유의미한 연구이다. 또한 심성일치의 의의에 대한 저자의 설명도 참조할 만 하다. 저자는 심성일치에서 대본의 성이 '규범적 표준'으로서의 본(本)을 의미한다면, 대본의 심은 '실천적 근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주자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하고자 했기 때문에 미발에 관련된 상반되어 보이는 여러 언설들이 나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미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정연수, 「남당 한원진의 사상사적 위상 재고 – 리의 주재성과 미발존양의 기질변화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한원진의 사상사적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이다. 조선 후기 사상사에서 남당 한원진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호락논변의 핵심 당사자로서 호학의

대표자였으며, 『주자언론동이고』나 『경의기문록』같은 조선 성리학사의 중요 문헌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막상, 호락논변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면 그의 사상사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저자는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원진의 주요한 사상사적 기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리의 주재성 확립'과 '미발존양에 의한 심기의 기질변화론 확립'이다. 이 두 주제는 기존의 한원진 연구에서 크게 주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자는 이것이 한원진의 중요한 철학적 기여로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전대의 사상사적 흐름과의 연관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리의 주재성 확립'은 리의 주재성을 강조했지만 무위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던 퇴계의 입장과, 반대로 무위성에 치중하여 주재성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율곡의 입장을 종합할 수 있는 대안을 한원진이 제시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우암 송시열의 입장을 발전시킨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미발존양에 의한 심기의 기질변화론 확립'은 한원진이 미발공부를 통해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율곡이 거경(居敬), 궁리(窮理), 역행(力行)의 세 가지를 공부의 핵심으로 제시한 데 비해, 한원진이 궁리, 역행과 더불어 거경이 아닌 존양(存養)을 제시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한원진이 기질변화공부의 핵심을 미발존양의 공부로 보았다는 것이며, 이것은 변화대상인 기질이 심(心)에 내재한다는 그의 심성론과도 연관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일단 조선 후기의 주요 사상가들의 위치를 탐구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접근을 보여준다는데 장점이 있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들이 전후와 사상사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추측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처럼 보다 구체화 된 철학적 쟁점이나 문제를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실질적인 관계의 파악이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주로 전대의 사상사와 한원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후대와의 관련성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은 후속 연구 성과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안유경,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교 연구」

이 논문에서 저자는 심설논쟁의 주역 중 하나인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기의 사단칠정론을 비교 고찰하고자 했다. 만구는 정재 유치명, 면우는 한주 이진상 계열의 문인으로 저자는 이 둘의 사칠론을 분석하여 구한 말 퇴계학파의 사단칠정론의 양상을 비교하고자 했다. 한국 성리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사칠론이 구한말에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그 변화과정의 최종 모습은 어떤지를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 논문은 가치있다고 본다.

다만 면우와 만구의 사칠론을 병렬적으로 개괄하는 논문의 구성을 통해서 핵심 쟁점이나 비교의 의의를 쉽게 알아차리긴 어렵다. 물론 내용을 재조합하면 저자는 두 학자에게서 칠정을 리발로 규정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저자는 만구가 퇴계와 달리 리기불상리라는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구분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칠정 또한 리가 없을 수 없는 정이기에, 만구가 칠정을 리발로 규정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면우도 기를 경기(經氣)와 위기(緯氣)로 나누고 리가 어떤 기와 만나냐에 따라 사단과 칠정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리와 만난 경기는 사단으로, 리와

만난 위기는 칠정으로 분화하는데 칠정 또한 성에서 발(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면우가 이 점에 주목하여 칠정을 리발로 규정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만구가 사단과 칠정의 공통점인 성에서 발한다는 관점 즉 혼륜설을 보강하는 모습이 보이고, 면우 또한 만구와 같은 혼륜설의 관점을 가지면서도 분개설의 관점 또한 놓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문인 점은 저자의 주된 논지인 '칠정도 성에서 발한다', '칠정도 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칠정이 리발이다'는 말과 동일하게 이해 될 수 있는가이다. 퇴계가 '발어리(發於理)'와 '발어기(發於氣)'를 구분한 것은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는 분개의 관점에서 사용한 논법일 뿐 정말로 칠정이 성에서 발한 것임을, 리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칠정리발의 근거들은 퇴계 또한 자기주장의 완전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했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퇴계가 리기지합(理氣之合)인 칠정을 리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리를 통해 칠정의 가치성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리발과 기발이라는 말은 사단과 칠정이 가지는 가치성에 대한 표현 혹은 소주(所主)에 대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리와 기가 없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저자는 칠정에 리가 있음을 리발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칠론에서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표현의 문제들, 성발위정을 리발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출어성(出於性)을 발어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같은 문제들은 매우 복잡한 맥락 고찰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저자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④ 홍성민, 「사칠론의 해체와 선의 일원화」

이 논문에서 저자는 사단과 칠정의 선의 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점들이 각 학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사단과 칠정의 선을 하나로 합치려 할수록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해체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퇴계는 소종래를 통해 사단과 칠정을 구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단은 절대선한 것, 칠정은 현실적으로 선한 것이 된다. 이 두 선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중절한 칠정은 어떤 것으로 봐야할지가 문제가 된다. 저자가 보기에 퇴계가 칠정을 리발로 규정한다면 기존의 사칠구분이 무너질 것이고, 기발로 규정한다면 겸리기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기에 퇴계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반면 고봉은 중절한 칠정이 곧 사단과 같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해결한 것 같지만 두 정이 어떠한 관계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이에 반해 율곡은 고봉과 같은 구도로 중절칠정과 사단을 보았고, 또한 자세한 도식적 관계를 규정했으므로 고봉보다 진보했다고 본다.

이러한 율곡의 구도에 대해 농암은 경위(經緯)를 통해 사단과 칠정의 구분을 다시 갈라놓았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퇴계를 옹호하고 율곡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반면 남당은 오히려 농암의 '경위'라는 구도로 사단과 칠정은 도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정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선악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단의 수오지심이든, 칠정의 미워하는 마음이든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대상과 상황이라는 것이 남당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성호는 사단과 칠정을 각각 공적인 것, 사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의 중절한 칠정이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이다. 성호는 중절한 칠정이 사적인 것 중에서 공적인 것으로(私中之公)보고 기발에 배속시켰다. 반면 하빈은 사단과 칠정이 각기 다른 두 성(인의예지의 성과 성색취미의 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성인의 칠정은 공적인 리에서 나왔으므로 곧 사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율곡학파이든, 퇴계학파이든 결국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철폐되는 것으로 사칠의 두 선의 관계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다.

이 논문은 지극히 윤리학적인 추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 사칠론 논의가 가질 모습을 가늠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다른 여러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개념과 그 관계에 대한 문제만 성찰할 것을 요구하여 저자와 독자는 사칠론이라는 장에서 스스로 철학해볼 수 있었다. 다만 문제는 이 사칠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념을 사고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논자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주장을 설파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본 논문은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상 논자들이 주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것을 저자는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연구논문으로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저자는 사칠론에서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당시 논자들은 특히나 퇴계에게 있어서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정말로 퇴계가 사칠의 선을 구분하면서 절대적 선과 현실적 선으로 보았는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퇴계는 선이라는 내용상의 측면에서는 사

단과 칠정 모두 동일하지만, 그것이 선이 되어갈 때의 주요 원인 혹은 주된 바가 구분되므로 다르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저자가 상정한 두 다른 선의 관계는 논의에 애당초 적용될 수 없다. 이는 고봉에서부터 논문이 절대적 선, 현실적 선이라는 언급자체가 확연히 줄이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 저자는 진래의 주장을 근거로 두 정이 한 마음에서 나오려면 본연지성, 기질지성에서 각각 사단과 칠정이 발출해야 한다고 보는 이정이성(二情二性)의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것이 하빈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빈이 실제 성을 인의예지의 성과 성색취미의 성으로 나눈 것은 있다. 하지만 이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도를 통해 사칠의 구분을 합리화시켰던, 퇴계부터 사용된 전통적인 논증으로 봐야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경위를 통해 농암이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여 율곡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자가 거론한 인용문에선 오히려 경위를 통해 율곡처럼 사단과 칠정을 도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농암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발동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사칠을 이해하고 모두 기발리승으로 규정했다. 즉 사단과 칠정을 주리주기로 구분하는 모습이 비록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율곡의 논의맥락을 이어받고 있다. 때문에 저자의 그러한 평가가 과연 율곡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사단칠정론을 철학한다는 시도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원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개인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⑤ 김부찬, 「퇴계 이황의 활인심방에 나타난 심신수양론」

이 논문에서는 퇴계의 수양론을 마음수양과 몸수양의 두 갈래로 분석

한 뒤 이를 경(敬)과 연관시킴으로써, 퇴계사상이 상업화와 물신화에 빠져 있는 현대 체육활동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해당 논문은 먼저 『활인심방』에 나타나는 몸 수양과 마음수양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활인심방』에서 나타나는 심신수양론의 특징과 퇴계의 경 사상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전반적인 구성은 무난하며, 결론 부분에서 현대 체육활동에 퇴계 사상을 접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은 한국 성리학에 대한 저변 확대의 측면에서 확실히 의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활인심방』에 나타난 심신수양론이 그대로 퇴계의 심신수양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스러운 접근법이라"(42쪽)고 하고, 또 "퇴계가 제기한 경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 주권의 『활인심』의 영향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43쪽)고 하여, 『활인심방』 자체를 퇴계의 사상으로 보지 않으면서 도가적 색채가 강한 『활인심방』과 경 사상의 유사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후 논지 전개 과정에서 퇴계 『언행록』의 '反諸吾身, 猶未能自盡'[4]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이는 경수행이 마음뿐이 아닌 구체적인 자신의 몸을 통해서도 반성해보니 아직 충분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퇴계에게 있어서 '경'은 마음뿐이 아닌 구체적인 몸의 행위를 통하여 완성됨을 알 수 있

4 해당 문구는 "덕홍에게 敬 공부에 대해 답한 편지를 쓰고, 인하여 한 통을 베껴서 벽에 걸어두었다. 월천 조목이 일찍이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어째서 이처럼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내가 비록 사람들을 가르치키를 이처럼 하였지만 내 자신에게 돌이켜 봄에 아직 스스로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退陶先生言行錄』, 「論持敬」, "答德弘論敬書, 因寫一通, 揭之于壁. 趙月川穆嘗侍左右, 問 何以若是, 曰 我雖敎人如此, 而反諸吾身, 猶未能自盡, 故然耳.")의 내용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다."(45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활인심방』과 퇴계 경 사상의 유사점을 피력하면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수련(수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활인심방』과 퇴계의 경사상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45쪽)라고 결론지었다.

저자는 상술한 원문을 해석하면서 '身'자를 '신체'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저자가 결론에서 "성인을 목표로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닦았던 퇴계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47쪽)을 주장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그러나 상술한 원문을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면 "내 자신에게 돌이켜 봄에 아직 스스로 다하지 못하였다."가 되는데, '신체'와 '자신'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퇴계의 의도는 "경(敬) 공부에서 자신이 미진한 점을 경계한다"는 것이지, 저자의 주장처럼 "내 신체에 미처 수양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퇴계 사상과 『활인심방』의 간접적 상관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원문을 해석하였지만, 저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퇴계의 사상을 접합하기 위해 '身'자를 오역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역은 논문의 결론을 어그러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당초 본격적인 주장에 앞서 성리학적 개념인 퇴계 경 사상과 도가적 색채가 강한 『활인심방』의 직접적인 연결을 부정하였으면서 결론 부분에서 오히려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현대 스포츠의 심신수양적 성격 회복을 위해 퇴계 경 사상을 도입하고자 했던 시도는 학술적 의의가 있지만, 오역으로 인해 논문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⑥ 권봉숙, 「퇴계의 건강증진 실행력 연구」

이 논문에서는 퇴계의 저술에서 포착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담론의 현대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는 퇴계의 건강증진 활동이 긍정적인 건강결정 인자들을 중심으로 신체적인 활동, 정신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근원과 실행력이 있다고 보았다. 먼저 신체적 건강증진의 실행력을 개인적 병고를 물리치기 위한 절박함에 대한 통찰에서 찾았으며, 정신적 건강증진 실행력의 근원을 병을 분명히 인식하는 지각력의 통찰에서 찾았으며, 사회적 건강증진 실행력의 원천은 참된 사회봉사로서 대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통찰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퇴계의 통찰력을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시키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퇴계의 실행력을 간호학적 관점에서 개별화된 건강증진 실행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계의 건강증진 내용을 현대화 시키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저자는 퇴계의 건강증진 실행력의 근원을 신체, 정신, 사회의 세 측면으로 나눈 후 각각 "신체적 건강증진의 실행력의 근원은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자기관찰에 대한 통찰", "정신적 건강증진의 실행력의 근원은 명상을 통해 '내려놓기'와 '이완하기'를 통해 자연과 벗하며 자연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사회적 건강증진의 실행력의 근원은 공직생활에 대한 헌신과 군주에 대한 충성심으로 '지경명의(持敬明義)'에 대한 통찰"로 보았다.(46쪽) 그리고 상술한 세 가지 측면을 언행록의 기록과 퇴계가 겪었던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여기서 저자는 정신적 건강증진과 사회적 건강증진의 측면은 분명 퇴계의 수양론과 연결되는 것처럼 서술하였지만, 사실상 퇴계 사상에 대한 고찰이 결

여된 채 논지를 전개하였다.

일례로, 저자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 하고 머리 빗고 갓을 쓰고 옷을 입고는 엄숙하게 『심경부주』(心經附註)를 정확한 발성법으로 낭독한 후 온 종일 책을 보며, 혹은 향을 피우고 고요히 앉아서 항상 그 마음 살피기를 해가 처음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정신적 건강증진의 측면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였다.(43쪽) 이는 분명 퇴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정좌수련, 독서법 등을 염두에 두고 서술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퇴계사상과의 연결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철학적 측면에 대한 서술의 결여는 결정적으로 경(敬)에 대한 분석의 결여로 나타났다. 저자는 "퇴계의 사회적 건강증진의 근원은 철저하게 공경과 정성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왕권사회에서 왕과 약속한 대의를 지키며 참된 사회봉사를 실천해야 한다는 통찰에 있었다."(39쪽)라고 하여 지경(持敬)을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공경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경(敬)을 일상언어에서의 공경으로 해석한 것으로, 저자의 주장이 퇴계의 경(敬) 사상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채 전개된 것임을 보여준다.

⑦ 이종수, 「鄭道傳『朝鮮經國典』法治思想 分析」

현대인이 잃어버린 이상적인 무엇인가가 이미 과거에 존재하였고, 이를 찾아 현대에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혹은 과거 특정인의 사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상적인 것이었지만 그 당시의 정치 · 경제체제가 받쳐주지 못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관점은 과거 전통사회와 사상을 그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미화시키기만 한다. 이종수의 「鄭道傳『朝鮮經國典』

法治思想 分析」에서도 정도전을 정확하게 평가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화만 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종수의 논문은 정도전의 사상을 "오늘날 우리국민의 대내 · 외적 자주의식사상의 뿌리가 되었다(논문 519쪽)", "현재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520쪽)", "오늘날 새로운 정치, 행정사상의 개발을 논하는데 도움이 된다(520쪽)" 등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에서 정도전의 사상을 현대에도 활용할 것을 주장하며 여러 방법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종수의 논문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정도전의 사상을 논증하는 방식이 다소 허술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정도전의 사상을 현대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선 정도전의 사상을 논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II.『朝鮮經國典』의 構造와 特性'은 그 하위 장절(章節)로 '제1절 조선 건국과 법제, 사상의 정의'(1. 『조선경국전』구조적 특징 2. 후속법제, 3. 삼봉의 융합적 법치사상의 특징과 정의)과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1. 선행연구 2. 內容 分析의 틀)있다. 이미 제1절에서 정도전의 "인문융합 법치사상"을 "수기치인(국가 운영관리의 제도화)의 수단으로 성리학적 철학과 이상의 구현을 위한 고대 전국시대 『書經』, 『周禮』, 事功學, 經世學, 주희의 주자학, 정침의 '義' 사상을 融合하여 조선건국 법제(규)와 한양 도성 등에 투사한 제도 실천의 기반과 이념(521쪽)"으로 정의하였다. 정의 자체도 상당히 모호할뿐더러, 정의 과정에서도 분석은 적고 선행연구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식이어서 논증과정이 엄밀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도전의 사상의 현대적 적용

방법은 비약이 다소 눈에 뜨인다. ‘Ⅳ. 『朝鮮經國典』의 현대적 시사점’은 ‘제1절 삼봉의 融合민본사상’(1. 삼봉의 融合민본사상 2. 민본법치사상의 현대적 의의), ‘제2절 사회적 활용’(1. 활용 측면 2. 현대 인사제도적 활용 3. 삼봉 치인관의 적폐치유 가능성)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절에서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을 설명하면서 ‘융합’의 의미를 다시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깊이 있는 접촉”으로 재정의하고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 학문융합, 통섭 등을 제시한다. 이는 정도전의 사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자의 관점대로 정도전의 사상을 재해석한 뒤 이를 현대에 대두된 개념과 연결시킨 것으로 선후가 바뀐 것이다. 또 제2절에서 다룬 활용 측면에서 ‘삼봉의 거리’ 조성, 세종로에 삼봉 동상 건립, 삼봉재 정좌프로그램 개설, 도성 걷기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을 건의하는데, 거리조성 · 동상건립 등이 어떻게 정도전 사상의 현대적 활용인지 알기 어렵다.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인물별/주제별로 2018년 한국 성리학 관련 연구 전체 동향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주제별 검토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기 · 심성론에 대한 논문의 비중(56편, 약38%)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수양론 및 교육론(21편, 약 14%), 경세론(20편, 약 14%)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범주들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에 소속된 논문의 비중도 매우 높게(59편, 약 40%) 나타났다. 이것은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경향이지만 수양론 및 교육론의 비중이 작년(19%)에 비해 다소 줄고, 경세론의

4%증가하여 다소 늘었다.

인물별 검토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이 여전히 두드러졌다. 이황 · 이이 관련 논문의 수는 2018년도 전체 비율에서는 대략 31%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작년(41%)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고, 또 이황에 관한 연구가 이이를 다룬 논문의 2배 정도로 많았던 예년의 경향에 비해 올해에는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26편/19편). 이것이 기존의 연구경향이 이황과 이이, 그 중에서도 특히 이황에서 편중되었던 동향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주목된다. 이어서 한원진에 관한 연구가 많았는데(6편) 이는 이황과 이이를 제외하면 드물게 최근 몇 년간 꾸준한 비슷한 정도로 연구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한원진이 조선 후가 성리학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을 고려할 때, 이것이 조선 후기 연구의 더 활발한 전개에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외에 갈암 이현일(5편)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주로 『홍범연의』에 관련된 연구로 집중되었다. 한편, 작년도에는 연구 성과를 찾기 어려웠던 포저 조익에 대한 연구가 4편 포함된 것도 한 특징이다.

2018년도 연구성과의 전반적인 경향은 2016년 · 2017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퇴계와 율곡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양상이 다소 달라져서 지속적인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 볼 만하다. 퇴계와 율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한 연구의 집중이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된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면서, 연구의 경향도 호락논쟁의 범위를 완연히 벗어나고 있는 한원진에 대한 연구 동향도 주목할 만

하다. 성리학 연구의 동향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연구 범위와 방법의 다양성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한다. 다양한 분야를 통해 창조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전반적인 연구 성과들 간의 질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성리학 연구의 긍정적인 전망을 실현시켜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한국 양명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8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 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양명학〉 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 19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인물별 분류에 따른 해당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을 했다. 인물별 분류는 편의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강화학파 관련 논문이고, 둘째는 근현대 양명학 관련 논문이고, 셋째는 기타 논문이다.

2. 인물별 분류

1) 강화학파 관련 논문(1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현정	하곡 정제두의 체용관 연구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강보승	하곡 정제두의 『대학』 해석과 격물치지론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유정연	鄭齊斗와 中江藤樹의 『大學』 解釋 比較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4	김윤경	조선후기 주자학과 양명학의 지행논변과 그 함의－정제두와 그 친우들의 지행논변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5	김윤경	霞谷學과 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試論－四德 · 四端論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6	이남옥	하곡 정제두의 인적네트워크－혼인관계와 墓道文字 찬자를 중심으로－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7	진성수	하곡 정제두의 자녀교육－「名兒說」을 중심으로－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8	천병돈	후기 하곡학파의 실천정신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9	김윤경	후기 하곡학파의 진가론(眞假論)과 실학(實學)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김수진	양명학 텍스트의 專有와 流布－정제두 抄集 양명학 문헌의 발굴과 검증－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11	심경호	강화학안 편술의 제안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한국 양명학 관련 전체 19편의 논문 중에서 근현대 양명학으로 분류한 박은식, 정인보, 이건방을 포함하면 강화학파와 관련된 연구는 총 16편으로 전체의 80%를 상회한다. 이는 17년도와 비교하면 편수와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 한국 양명학 연구에서 강화학파의 위상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양명학(양명후학) 연구논문 편수는 감소하고 하곡학 연구 편수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1) 박현정의 「하곡 정제두의 체용관 연구」는 하곡의 체용관을 연구한 글이다. 박현정은 북경대(北京大)에서 양명학으로 학위를 받은 신진 연구자로 양명학자들의 체용론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 정제두는 조선을 대표하는 양명학자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기존 연구 성과를 일별하면,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연구자들은 중국 양명학과 구별되는 점을 주목하는데, 체용론도 그중 하나다. 양지 본체가 천리(天理)와 명각(明覺)의 즉체즉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정제두는 유체유용의 체용선후의 특징을 짓는다는 입장이다. 즉체즉용의 논리는 양지를 정식(情識)으로 오인하고, 창광방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현정의 주장도 결국은 기존 연구 태도와 대동소이하다.

박현정의 주장은 이렇다. "정제두 사상의 특징을 체용론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정제두의 체용관은 왕수인의 기본적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즉체즉용, 즉용즉체(卽體卽用, 卽用卽體)를 기반으로 한다. 둘째, 하곡의 사상적 구조는 즉체즉용의 바탕 위에 다시금 본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을 띤다. 이는 작용에 대한 본체의 우선성과 질적 차별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본체 중심의 체용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곡은 즉체즉용, 즉용즉체를 말하면서도 다시 본체를 중심으로 하는 체용관을 전개하였다. …… 본 연구는 체용론적 분석을 통해 하곡의 사상적 특징을 분석하고 여타 양명학파와 구별되는 정제두 체용관이 가지는 공부론 상에서의 차별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정제두 양명학의 특징을 옹호하기 위한 박현정의 선한 의도가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 다루겠다.

(2) 강보승의 「하곡 정제두의 『대학』 해석과 격물치지론」은 정제두의 『대학』관을 서술한 글이다. 이 글은 정제두의 〈대학설(大學說)〉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정제두의 『대학』관은 『고본대학』을 기반으로 하며 주자의 즉물궁리가 아니라 성의를 중심에 둔 『대학』관으로 요약한

다.

『대학』은 주자 성리학이 표방하는 지성주의를 옹호하는 경전적 근거가 되거니와 양명 심학의 성립을 촉진한 경전이기도 하다. 주자는 『대학』의 핵심이 격물치지에 있다고 보며,「보망장」에서 즉물궁리로 설명한다. 양명은 『고본대학』을 기준으로 삼으며 성의(誠意)가 핵심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강보승이 논문에서 논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정제두 『대학』관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선(至善)과 효제자(孝悌慈)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지선은 양지의 본체(知者心之本體, 卽至善之發也)로 구체적 내용으로 말하자면 인경효자신(仁敬孝慈信者, 此心之至善也)이면서 효제자(孝弟慈)이다. 특히 효제자(孝弟慈)는 『대학』에서 제가(齊家)의 덕목이면서 치국(治國)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제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효제자(孝弟慈)를 부각시켰다. 왜냐하면 지선은 명명덕(내성)과 친민(외왕)이 통일적으로 완성되었을 때에만 진정한 지선이기 때문이다.

(3) 유정연「鄭齊斗와 中江藤樹의 『大學』 解釋 比較」는 17세기 이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상계에서 양명학을 대표하는 정제두와 나카에 토쥬의 『大學』 해석의 同異를 따졌다. 정제두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양명학자인 것처럼 나카에 토쥬는 일본 양명학의 시조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유정연의 주장은 이렇다. "나카에 토쥬는 의(意)를 마음이 기대는 바[心之所倚]로 규정하여, 이를 '나쁜 · 편협된 생각[惡念]'의 근원지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정제두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는 『대학고(大學考)』에서 성의(誠意)를 보다 구체적으로 절의(絶意)와 무의(毋意)의 두 영

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정제두는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이 날줄에 해당하는 경(經)으로 보았고, 지어지선(止於至善)을 씨줄에 해당하는 위(緯)로 보면서, 이들 상호 간의 관계를 경위설(經緯說)로 일축하였다. 나카에 토쥬는 삼강령 가운데 오직 명명덕(明明德)만이 중요할 뿐, '친민'과'지어지선'은 명덕이 구현되는 작용[用]의 세계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정제두와 나카에 토쥬를 비교한 연구는 의의가 높지만 독해와 평가에서는 억측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4) 김윤경의 「조선후기 주자학과 양명학의 지행논변과 그 함의: 정제두와 그 친우들의 지행논변을 중심으로」는 지행론에 관한 글이다. 김윤경은 근래 강화양명학 관련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는 연구자이다. 양명이 지행합일을 제창한 이래로 송명이학에서 지행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논제 중 하나다. 알아도 행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지행합일을 주장한 양명의 입장은 상식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덕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에서 지행합일은 양명학 정신이 온축된 명제이기도 하다.

김윤경의 정리는 이렇다. "당시 지행논변의 쟁점은 선지후행(先知後行)과 지행병진(知行竝進)의 문제에 있었다. 박심, 민이승, 최석정은 도덕활동의 주체는 심(心)이지만 궁리(窮理)와 함양(涵養)을 통해 객관도리와 내면의 도리가 조응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견문지의 습득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주희와 마찬가지로 선지후행(先知後行), 궁리(窮理)와 함양(涵養)의 상수(相須)라는 측면에서 지행병진(知行竝進)을 견지했다. 정제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도덕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양지(良知)에 주목하여, 지행(知行)이란 양지의 체용(體用)이므로 합

일(合一)이라고 주장했다."

(5) 김윤경 「霞谷學과 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試論—四德·四端論을 중심으로」는 정제두와 정약용이 사덕과 사단을 논하는 유사점에 착안한 글이다. 주자학은 성발위정에 근거하여 사덕이 있어 사단지심으로 발현된다는 입장이다. 양명학은 사단지심이 사덕이라는 입장이다. 사단이 없으면 사덕도 없다고 본다. 양지를 천리명각으로 보는 양명학에서는 당연하다. 다산은 성기호설을 주장하면서 역시 사단을 통해 사덕을 본다는 입장이다.

김윤경의 주장은 이렇다. "이들의 공통된 이해는 사덕·사단(四德·四端)의 개념 규정하는 문제와 사단칠정(四端七情)의 선·불선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덕·사단에 대해서 하곡과 다산은 모두 '단(端)'을 곧 '시(始)'로 보고, 사단은 곧 본원의 시작점이며 사덕은 행사(行事)가 이루어진 뒤 사단이 확충된 결과라고 하였다. 이들은 성(性)을 고정적이고 형이상적인 실체로 보는 것을 부정했다. 사단칠정의 선·불선 문제에 대해 하곡과 다산의 결론은 동일하다. 사단도 불선할 수 있고 칠정도 선할 수 있으며, 불선의 원인이 기질에 의한 것은 아니고 매사 천리와 인위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불선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은 인성에 대한 규정차로 인한 상이점이 존재한다. 하곡은 불선의 상태가 성이나 양지의 가려짐이며, 사단의 확충은 도덕판단과 행위 속에서 항상 志에 따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반면 다산은 선·불선은 자주권(自主權)의 선택이며 천리(天理)의 공(公)을 따르는가 인욕(人欲)의 사(私)를 따르는가에 달려있다."

(6) 이남옥의 「하곡 정제두의 인적 네트워크: 혼인관계와 묘도문자(墓道文字) 찬자를 중심으로」 논문은 정제두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양명학적 계보가 형성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7) 진성수의 「하곡 정제두의 자녀교육: 「名兒說」을 중심으로」는 명아설을 중심으로 정제두의 자녀교육을 오늘날의 교육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글이다.

(8) 천병돈의 「후기 하곡학파의 실천정신」은 학곡학의 실심 정신이 역사의 현장에서 드러난 모습을 소묘한다. 영재 이건창, 경재 이건승, 난곡 이건방, 위당 정인보 등을 통해 그들이 실심을 바탕으로 서세동점과 일제 강점기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살핀다.

(9) 김윤경의 「후기 하곡학파의 진가론(眞假論)과 실학(實學)」은 진가론을 따지는 글이다. 한국유학사에서 진가론은 변환의 시기에 등장했다. 여말선초에도 진가론의 논의가 있었다. 김윤경은 하곡학을 규정하는 실심실학에 더해 후기 하곡학파를 일진무가로 표현한다.

김윤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곡학파의 사상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실심실학(實心實學)이라고 한다. 이는 하곡의 직전 · 재전 제자들이 실심(實心)을 중시하고 하곡 철학의 요체를 실(實)의 강조와 실학(實學)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기 하곡학파 이후로는 진가(眞假) 개념이 강조된다. 특히 후기 하곡학파에서는 여전히 실(實)을 중시하지만 진가(眞假) 개념을 더 많이 쓰며, 실학(實學) 개념도 선대 하곡학파가 사

용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초기 하곡학파의 실학은 실심(實心)을 실행하는 학문을 의미했고 그것은 성학(聖學)에 다름 아니었다. 후기 하곡학파는 본래 하곡이 본심의 주체성, 진실성, 완전성을 표현한 진(眞)과 남의 이론과 권위를 빌려오는 가(假) 개념을 계승했으며 양득중의 가도의론(假道義論)과 실사구시론(實事求是論)을 수용하여 실학의 개념을 확대발전시켰다. 이건방은 진(眞)의 의미를 일상의 도리로서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진(眞)의 사회적 의미와 진가론의 사회비판 논리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정인보는 허(虛)를 실(實)로 돌리게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실학이지만, 진정한 실학은 일용상행(日用常行)의 도리로서 민중(民衆)의 복리(福利)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으로 조선 실학의 계보를 수립했다. 정인보의 실학 개념은 전내실기(專內實己)로부터 일진무가(一眞無假)로 정리되는 하곡학의 사상적 계승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정립되었다. 이는 단순히 당대 현실에 부합하여 실용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주체성과 감응성을 지니는 본심의 작용이 필연적으로 민중의 감통을 동반하여 정신적 복리 추구로 귀착된다는 사상적 토대에 기반 한 것이다."

⑽ 김수진의 「양명학 텍스트의 專有와 流布 – 정제두 抄集 양명학 문헌의 발굴과 검증 –」은 2017년에 발굴된 규장각 소장 정제두 초록 양명학 문헌을 조사 보고한 글이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하곡집』은 정식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그 과정에서 유실된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진은 정제두가 왕양명의 글을 정리한 자료를 발견하고 이에 대

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초록을 통해 정제두가 양명학을 이해하는 일단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 초록이 유포되는 과정은 강우들과의 논쟁에도 관여되어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파악된 정제두 관계 양명학 문헌은 필사본으로만 9종이 있는데 크게 『양명학용설(陽明學庸說)』 계열과 『양명학록(陽明學錄)』 계열로 구분된다. 『양명학용설』 계열은 규장각본 종과 국중본 종이 있고 『양명학록』 계열은 규장각본 종 국중본 종 장서각본 종이 있다. 이들 문헌은 공히 『전습록』의 내용을 망라하면서도 편차의 해체와 재배열 부분적 초록 권점의 부여를 통해 기존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세심한 내용 선택과 수록 차서의 조정 생략과 강조를 더해 기존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전유하였다."

(11) 심경호의 「강화학안 편술의 제안」은 강화학안의 편술을 제안하면서 강화학파의 성격을 이렇게 정리한다. "강화학파와 양명학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강화학파 내부의 사유체계도 균질적이거나 계수적(繼受的)이지 않다 하지만 정인보가 『양명학연론』에서 제기한 것과 강화학파 구성원들의 개개의 활동을 살펴보면 강화학파로 언급되거나 연계 관계에 있는 인물들은 첫째 허가의 비판, 둘째 실심의 환성(喚醒), 셋째 측달의 감정인 '아틋'의 발로 등 세 가지 국면에서 교조주의적 주자학 혹은 성리학과는 다른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2) 근현대 양명학 관련(5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용구	白巖 박은식『王陽明先生實記』의 내용과 특징 분석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	황종원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우형	주자학과 양명학, 그리고 '국학'의 형성－주체성과 실심(實心)의 계보학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박태옥	위당 정인보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과 '실심'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한정길	蘭谷 李建芳의 양명학 이해와 현실 대응 논리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김세정	한국근대양명학에 관한 연구 현황과 전망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 김용구의「白巖 박은식『王陽明先生實記』의 내용과 특징 분석」은 박은식의『양명선생실기』를 분석한 글이다.『실기』는 왕양명의 주요 행적과 사상을 편년체 형식으로 서술하면서 박은식이 안설(按說)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 안설이 박은식의 생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김용구는 현행 30개의 안설에 자신이 더 찾아낸 2곳을 포함하여 32곳을 소개한다.

(2) 황종원의「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양계초(梁啓超)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그 견해들이 박은식의 유교 근대화 및 종교화 모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한 글이다.

황종원의 설명은 이렇다. "양계초는 이 시기에 서구 열강의 제국주

의적인 침탈에 맞서 중국의 봉건적인 국가체제와 사회문화를 근대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강한 중국을 재건하려 했다. 그는 동서양사상의 선택적 종합을 통해 실천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유위(康有爲)는 양계초의 스승이다. 강유위는 유학의 인(仁), 민본주의, 대동사회의 이상, 불교의 자비와 중생 제도의 정신, 춘추공양학의 삼세설(三世說) 등을 서구 기독교의 박애와 구세정신, 근대민주정치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 발전적 역사관 등과 결합하여 자신의 사상체계를 정립했다. 양계초는 전반적으로 스승의 사상을 계승했다. 박은식은 청년기에 정통 주자학도로서 위정척사론의 입장에 기울어 있다가 40세 무렵부터 개화사상가로 변모하고 일제에 의해 망국이 가시화되는 1905년부터는 애국계몽운동과 유교개신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한다. 이 시기 양계초 논저와의 접촉은 사상적, 실천적 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유교의 근대화에 대한 양계초의 견해는 박은식에게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유교의 종교화에 관해서는 중요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양계초가 주로 근대화에의 유용성을 준거로 종교화의 가치를 판단한 반면, 박은식은 도덕종교로서 유교의 이상이 근대에도 여전히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3) 김우형의 「주자학과 양명학, 그리고 '국학'의 형성-주체성과 실심(實心)의 계보학」은 정인보의 국학 사상에 나타나는 주체성과 실심(實心, 참된 마음) 정신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하고 그 특징을 조명한 글이다. 김우형은 주자 인식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로서 본 논문은 연구의 영역을 확대한 성과물이다.

김우형의 주장은 이렇다. "근세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주체성과 실

심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송대(宋代) 신유학(新儒學)에서 비롯된다. 정이(程頤)는 주체의식을 강조한 최초의 사상가이며, 주희(朱熹)와 왕양명(王陽明)은 정이의 주체성의 원리에 입각한 사상을 계승하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조선시대 정제두(鄭齊斗)와 강화학파는 신유학의 주체성과 실심의 정신을 발휘한 하나의 사례이다. 정인보(鄭寅普)는 학맥에 있어 강화학파에 속하지만, 양명학이 실심의 자각과 실천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체성의 원리가 정인보로 하여금 주희 도덕이론(인심도심론)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따르도록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기적인 욕구(자사심)를 옳고 마땅한 것을 자각한 마음(실심)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심(감각욕구)과 도심(도덕심)의 갈등상황에서 도심을 선택하여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받도록 제어하라는 주희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 같은 윤리학은 행위의 내적 동기나 의무감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사실상 주희와 왕양명에 있어서도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이점에서 근현대 한국학을 유교전통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양명학의 근본정신과 체계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인보의 한국학이 유교전통과의 단절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평가는 사족처럼 보인다.

(4) 박태옥의 「위당 정인보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과 '실심'의 문제」는 정인보의 문학론을 검토한 글이다. 정인보는 양명학자와 역사학자일 뿐만 아니라, 힘이 넘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린 글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박태옥은 정인보의 미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의 미의식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실심을 토대로 강유(剛柔)를 포용한 미의식이다. 정인보는 실심을 통해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전일한 노력을 기울였다. 강고한 의지와 부드러운 인간적 정서가 겸비되어 나타난다. 둘째, 청진(淸眞)함의 미감을 강조하는 미의식이다. 미추(美醜)나 청탁(淸濁)의 미적 감각도 마음의 조작이 없이 실심에 의해 저절로 구별된다. 그의 시문에서 아름다움은 청진하고 고졸한 미의식의 형태로 표현된다. 셋째, 감통의 인격미이다. 정인보가 강조한 실심은 개인과 세계의 영역을 아우르는 감통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경지로 발전해 나간다."

(5) 한정길의 「난곡(蘭谷) 이건방(李建芳)의 양명학 이해와 현실 대응 논리」는 한국 근대 대표적인 양명학자인 이건방의 양명학 이해와 그의 현실 대응 논리 및 사회진화론과의 접변 양상을 탐구한 글이다.

한정길은 이렇게 정리한다. "이건방의 양명학은 하곡학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건방은 하곡과는 달리 양명학을 하나의 경세학으로 읽어내는 특징을 보인다. 이 점은 정인보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이건방은 양명학을 사상적 토대로 하여 현실인식과 대응논리를 마련한다. 그는 당대의 현실을 약육강식의 생존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인식한다. 그리고 조선의 멸망 원인을 이 시대적 추세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서 찾고, 당대의 개화파와 수구파를 모두 비판한다. 그는 도의의 실질을 밝히고 민중들을 깨우쳐 도의의 실천 방향인 구국의 길로 나서게 함으로써 당시 조선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건방은 사회진화론이 지배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사회의 정론(正論)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론은 강자가 모질고 사납게 구는 것을 꾸짖을 뿐 아니라 약자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 뒤에야 비로소 수립된다. 이것은 힘의 논리에 저항하는 일종의 평화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방은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통학문에서 사용하던 기본 개념들에 변용을 일으킨다."

(6) 김세정의 「한국 근대 양명학에 관한 연구 현황과 전망」은 2016년까지 지난 60여 년간 진행된 한국의 근대양명학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근대양명학 연구의 과제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했다.

김세정의 분석은 이렇다. "한국 근대의 대표적인 양명학자로는 이건창(李建昌:1852-1898), 박은식(朴殷植: 1859-1925), 정인보(鄭寅普: 1892-미상)를 들 수 있다. 먼저 지난 60년간 진행된 이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서 저서 박사논문 석사논문 연구논문 이건창 7종 2종 1편 13편 34편, 박은식 12종 7종 9편 54편 165편, 정인보 3종 1종 3편 6편 84편이다. 이건창은 1987년 『이건창문집(李建昌全集)』이 간행되고, 『당의통략(黨議通略)』 번역본 7종이 있다. 박은식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가장 많고 질적으로도 가장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975년 〈박은식전서(朴殷植全書)〉가 간행되고, 주해작업을 거친 『왕양명실기』(2010)와 『왕양명선생실기』(2011)가 출간되었다. 『한국통사(韓國通史)』 번역본 7종을 비롯하여 총 15종의 번역서가 있다. 정인보에 관한 연구물은 박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담원국학산고(薝園國學散藁)』(1955), 『담원정인보전집(薝園

鄭寅普全集)』(1983), 『양명학연론(陽明學演論)』(1972)이 간행되었다. 단행본의 경우에는 김삼웅의 『위당 정인보 평전』 단 한 권뿐이다. 한국근대양명학 연구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한국양명학자들에 대한 철학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박은식과 정인보의 경우 근대 중국과 일본의 양명학과의 영향 관계와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근대양명학의 현대적 만남과 현대적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기타(2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향림	노수신과 허균의 욕망론과 수양론 – 양명학 수용과 관련하여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	김용재	韩国阳明学研究的本质问题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연구원

(1) 신향림의 「노수신과 허균의 욕망론과 수양론: 양명학 수용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노수신과 허균의 사상이 유사하며 이들의 사상적 유사성이 양명학 수용의 결과임을 논증한 글이다. 허균과 양명학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많이 소개되었지만 노수신과 양명학을 연결 지은 논의는 많지 않다.

신향림은 이렇게 정리한다. "노수신은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니 예교로 닦아서 도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균은 식욕과 성욕이 본성이라고 주장했고, 예교가 자유로운 삶을 구속할 수 없다고 했다. 노수신은 『효제부』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지는 만물의 이치

를 다 포괄하고 있는 자족한 것이라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서 성인이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양지를 들어 행하는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허균은 신분에 관계없이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평등하다고 하였고 성인만이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 『중용』의 구절은 사람을 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말이라고 했다. 허균과 노수신은 미발, 심체, 본성을 체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발 심체 본성을 체인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노수신은 마음 양지는 천지만물의 모든 이치를 포괄하고 있는 자족하고 무외(無外)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마음 밖의 이치로 마음을 닦는 주희의 격물 공부는 불가능하다. 노수신과 허균이 말한 미발 심체 본성을 체인 공부는 마음이 본성이자 천리인 마음의 본체를 스스로 지각하여 흐려진 마음을 되돌리는 양명학의 공부법이다. 욕망이 본성이고 본성을 체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양지를 실천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양명학을 수용한 노수신과 허균이 공유하는 독특한 견해들이다."

신향림의 독해는 상당히 편향적이고 양명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혐의를 준다. 노수신이 자족하고 무외한 양지를 주장했다고 하여 주자의 즉물궁리 공부를 부정했다는 주장도 상당히 의심이 간다.

(2) 김용재의 「한국양명학 연구의 본질적 문제(韩国阳明学研究的本质问题)」는 하곡학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그 의의와 한계를 지적한 글이다. 특히 한국사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문집 등의 원전자료를 도외시한 채, 연구논문(2차 자료)이나 저서(3차 자료)에만 몰입한 채, 스스로 원전자료 내에서의 가치를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상누

각(沙上樓閣)과 같다는 비판을 개진한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수립하는 과제는 한국 양명학 연구자들의 숙명과도 같은 사명이다. 이 작업은 중국 양명학과의 동이를 따지는 작업을 필히 거치게 된다. 게다가 정제두가 임정종욕 네 글자를 양명학의 폐단으로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자학에서 양명학을 비판했던 창광방자의 폐단을 극복한 정제두 식의 양명학 수립이 요청된다. 물리(物理), 생리(生理), 진리(眞理) 프레임이 대표적이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물리는 주자학, 생리는 양명학, 진리는 하곡학이다.

생리와 진리 프레임은 체용일원을 이론적 틀로 사용한다. 박현정이 "정제두의 체용관은 왕수인의 기본적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즉체즉용(卽體卽用), 즉용즉체(卽用卽體)를 기반으로 한다. 정제두는 즉체즉용의 바탕 위에 다시금 본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을 띤다. 작용에 대한 본체의 우선성과 질적 차별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본체 중심의 체용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제두는 즉체즉용, 즉용즉체를 말하면서도 다시 본체를 중심으로 하는 체용관을 전개하였다."

박현정의 주장은 이 논리를 본격적으로 학계에 소개한 김교빈의 말과 동일하다. "왕양명이 양지를 완성시키는 학문[致良知學]이 매우 정밀하기는 하지만, 그 폐단이 혹 정에 맡겨서 욕심을 좇을 걱정이 있음을 깨달았다.(이 넉자는 양명학의 병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양명과 달리 '이'를 구조적으로 나눈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

러므로 하곡이 양지를 체용으로 구분한 근본적인 이유도 정에 맡겨서 욕심을 좇을[任情從欲]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김교빈,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1995년 147쪽)

정제두는 김교빈이나 박현정이 분석한대로 체용을 사용했을까? 김교빈의 관점을 확대재생산한 이상호(「정제두 양명학의 주왕화해적 특징」, 『동양철학연구』 40집, 2004)는 리의 중층구조(물리, 생리,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지심(眞理之心)과 생리지심(生理之心)을 나누고 이들이 체용관계가 된다고 본다. 또 진리(眞理)와 생리(生理)는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관계와 유사하고 진리지심과 생리지심은 체용관계로 주자학의 성정체용(性情體用) 구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상호의 입장과 다르다. 〈양지체용도〉는 민이승의 양지 이해를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용은 일원이며 용을 통해 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양지를 체용으로 밝힌 이유는 체용을 구분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용이 일원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에 있다. 김윤경(「16 – 17세기 한국 양명학 성립과정의 공부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179쪽)은 이상호와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정제두가 리를 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본지가 리를 구분하여 진체(眞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주자학의 성정 관계에서는 주재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제두의 체용관념과는 다르다. 또 진리와 생리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며, 진리의 개념에서 기(氣)가 제외된 것도 아니다.'

양지를 체용론으로 설명하면 천리명각(天理明覺)이다. 천리는 본체이고 명각은 작용이다. 천리는 주자학의 성(性)에 해당하고 천리명각이

양지(良知)에 해당한다. 성과 양지의 차이는 직관적으로 보이듯이 명각이 있는냐 없느냐다. 양지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천리와 명각의 상즉성을 긍정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양명학은 즉체즉용을 제창할 수밖에 없다. 창광방자의 양지학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즉체즉용을 버린다면 이른바 교왕지과(矯枉之過)를 면할 수 없다.

4. 평가와 전망

한국양명학 논문 편수는 14년도 8편, 15년도에 12편, 16년도 15편, 17년도 16편, 18년도는 19편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양명학 연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조선유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명학의 비중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18년도에 전체 편수가 늘기는 했지만 이른바 문제작은 보이지 않는다.

매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향후 조선 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헌의 제약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18년도 논문 저자 중에서 김윤경이 눈의 띈다. 현재 강화학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연구 편수를 발표했다.

18년도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한 편을 꼽으라면 김윤경의 「하곡학(霞谷學)과 다산학(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시론(試論)－사덕(四德)·사단론(四端論)을 중심으로」를 추천한다. 정제두와 정약용이 사덕과 사단을 논하는 유사점에 착안한 본 논문은 아직은 시론 수준이지만 양명학과 실학을 비교 검토하는 중요한 매개 고리를 제공한다.

제6장

한국 실학 및 근대 연구

이행훈

1.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18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과 전망' 가운데 한국 실학과 한국 근대유학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2018년도 한 해 동안 발표된 한국 실학과 한국 근대유학 관련 논문의 목록을 수집하여, 인물별, 학파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중 주요한 논문 몇 편에 대한 설명과 비평을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논문 색인은 한국교육학술정보(RISS)를 활용했다. 제목, 주제어 항목에 '실학(자)', 근대 유학(자), 학파 등을 표제어, 주제어로 검색하였다. 실학자 가운데 연구 비중이 높은 정약용의 경우, '다산' 또는 '정약용' 검색에 해당하는 결과만 150여 편이 나온다. 실학과 근대유학 가운데 주제 관련성이나 적거나 중복 항목, 유학과 무관한 연구를 추려내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후 실학과 근대유학 관련 연구성과를 인물별, 학파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도표로 제시했다. 분류 도표 아래에는 눈에 띄는 연구성과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분석 및 비평'에서는 이전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논의나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한 사례, 향후 연구 흐름을 이끄는 연구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그 의의를 검토하였다. 이후 2018년도 한국실학과 한국 근대유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토대로 평가와 향후 전망을 간략히 덧붙였다.

2018년도 국내에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은 약 91편, 박사학위논문이 약 5편으로 전체 약 96편을 검색 · 수집하였다. 전체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논문을 크게 인물(학파)별, 주제별로 나누었다. 인물(학파)별 분에서는 유형원, 성호학파, 북학파,

정약용, 최한기, 기타 순서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분류는 경학, 철학, 정치 및 경제, 기타로 분류하였다. 2018년도 국내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 근대유학 관련 논문은 약 28편, 박사학위논문이 약 3편으로 전체 약 31편이 수집 · 검색되었다. 분류는 크게 학문별, 주제별로 나누었다. 학문별 분류는 성리학, 양명학, 기타 순서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분류는 철학, 유교개혁, 문명담론, 기타 순으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1) 유형원(柳馨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도혁	유교의 정치적 평등의 전개 – 유형원과 이익을 중심으로 –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14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국가재정 개혁구상과 녹봉제 실시론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3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관제개편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86	조선시대사학회
4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敎選論과 貢擧制 구상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5	함영대	『반계수록』의 전승과 『잡동산이』	한국실학연구 35권	한국실학학회
6	함영대	『우서(迂書)』 토지제도의 현실성 연구 – 반계수록 · 전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유형원의 실학사상은 사회제도개혁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유형원과 이익을 중심으로 유교의 정치적 평등의식을 살펴보고 유교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 대동법을 통한 국가재정 개혁, 비변사의 혁파와 의정부 기능 강화 등 관제개혁론, 학제개편과 공거제(貢擧制) 시행, 유수원의 『우서』와 유형원의 『반계수록』의 전제 비교를 통한 토

지제도 개혁안의 현실성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기타 안정복의 『잡동산이』에 수록된 『반계수록』을 통해 유형원의 개혁안이 전파 · 수용된 양상을 지성사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2) 성호학파(星湖學派)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순남	신후담의 〈小學箚疑〉연구 – 분절체계를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78	한국문학회
2	서근식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사칠신편(四七新編)』에 나타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연구	율곡학연구 37	(사)율곡학회
3	오진솔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東洋哲學研究 96집	동양철학연구회
4	허윤진	성호 이익 시 비평 연구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5	김윤정	星湖 李瀷의 國恤 중 喪 · 祭禮 예론과 실천	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6	구만옥	조선후기 서학(西學) 수용과 배척의 논리 –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서학관(西學觀)을 중심으로 –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7	李姃玟	17~18세기 학계의 소학 담론 검토 – 이익(李瀷)의 소학질서(小學疾書) 편찬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8	정은진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의 『백가의(百家衣)』 연구	한문교육연구 50	한국한문교육학회
9	이명제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 성호가문의 서학관 고찰 – 『벽이연원록(闢異淵源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0	윤재환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시경』 이해의 양상	東方漢文學 77	동방한문학회
11	김경남	조선시대 『소학』 주석사에서의 『소학질서』의 위상	人文研究 8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	金炳愛	河濱 愼後聃의 『주역』 해석 – 『周易象辭新編』의 효변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이익을 위시한 성호학파 연구는 퇴계의 사단칠정론을 변증 · 정리한 『사칠신편』 연구와 주희의 경문과 주석을 새롭게 해석한 『소학질서』 그리고 신후담의 『소학차의』 연구, 의리를 바탕으로 한 고례 인식과 국휼(國恤) 중 사가(私家)의 상 · 제례 시행, 명의 고문사파 영향 속에서도 조선 시에 주목한 비평 등 이익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성호학파의 서학관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인인 이삼환의 아동교육론과 윤동규의 『시경』 이해, 신후담의 『주역상사신편』에 나타난 『주역』 이해를 다룬 연구가 새롭게 발표되었다.

3) 북학파(北學派)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劉婧	洪大容所編《乾淨衕筆譚》異本研究	열상고전연구 66	열상고전연구회
2	인현정	홍대용의 『소학』이해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	남호현	『熱河日記』 黃敎 관련 서술을 통해 본 박지원의 淸朝 인식	한국학연구 65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4	이종성	연암 박지원의 철학사상에 나타난 장자 제물론의 사유방식	동서철학연구 87	한국동서철학회
5	이현정	湛軒 洪大容의 樂論에 관한 小考 –『湛軒書』를 중심으로 –	한국음악문화연구 12	한국음악문화학회
6	이인화	18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과 중국의 국제인식 – 홍대용의 「연기」와 「항전척독」을 중심으로 –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7	주광순	동서 문화 교류의 입장에서 본 홍대용과 신채호	코기토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8	姜春華	性理學與脫性理學關於認識主體與客體問題上的差異 – 以朱熹與洪大容比較爲中心	중국학 64	대한중국학회
9	한상일	북학파 癖 · 癡추구의 사상적 배경	동양예술 40	한국동양예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0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해석 방법론 연구(Ⅰ)－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6	(사)율곡연구원
11	강진선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중용』 독서와 그 의미－'용(勇)'의 주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12	한윤숙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예술의 조선풍(朝鮮風)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硏究 93	동양철학연구회
13	이은지	박제가의 사족문제 인식－유식자(遊食者)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9	한국사상사학회
14	인현정	홍대용의 정치철학과 물학(物學)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학파 관련 연구는 홍대용 7건, 박지원 2건, 박제가 3건, 이덕무 1건, 북학파 일반 1건으로 홍대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먼저 홍대용은 『건정동필담(乾淨衕筆譚)』에 대한 서지학적 탐구, 수양과 실천의 병행·육예 공부를 강조한 『소학문의(小學問疑)』 연구, 「주해수용(籌解需用)」에 보이는 악론 고찰. 대청 인식과 소중화주의 비판, 상호문화철학적 관점에서 홍대용과 신채호 비교, 인식 주체와 객체에 대한 홍대용과 주희의 관점 비교 그리고 정치철학과 물학의 관계를 고찰한 박사논문 등이 발표되었다. 박지원에 관한 연구는 티베트 불교를 숭배한 청나라 지배층의 이적성 비판, 명분론적 차별의식 비판의 장자 제물론적 사유방식이 있었다. 박제가에 대해서는 『주역』 주석을 근기 남인과 비교, 예술론의 조선풍과 북학론적 특징, 과거제도 개선안과 유식자의 상(商) 직분 권면 등이 연구되었다. 이덕무는 '용(勇)'에 주목한 『중용』 이해가 있다. 북학파 일반에 관한 연구로는 성리학의 완물상지 대신 기예와 완물을 통해 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격물론 탐구가 주목할 만하다.

4) 정약용(丁若鏞)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일균	다산 정약용의 '천天' 개념에 대한 재고찰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2	백민정	정약용의 사족(士族) 인식과 그 의미 – 다산 경세서(經世書)에 나타난 사족(士族)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	民族文化研究 8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3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공자 십익(十翼)에 관한 신해석	泰東古典研究 4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맹자학과 혈기론	民族文化 52	한국고전번역원
5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후생론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6	송기중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지방 軍政論	역사와실학 67	역사실학회
7	李向俊	서(恕), 황금률을 만나다 – 정약용(丁若鏞)의 경우 –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8	엄연석	정약용의 소옹과 주희 『주역周易』 수리설 비판에 대한 재조명 – 『역학서언』의 「주자본의발미」와 「소자선천론」을 중심으로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9	이숙희	정약용의 영성 – 천관의 두 측면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10	임부연	정약용이 발견한 '천명天命'과 '교제交際'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11	전성건	儒教共同體與公議的公論性 一以茶山(丁若鏞)二律背反的儒教共同體論爲中心	儒教文化研究(中文版) 30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12	김문용	정약용의 국가론의 논리와 성격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13	김호	조선후기 흠휼(欽恤)의 두 가지 모색 – 윤기와 정약용의 속전론(贖錢論)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14	李永慶	맹자의 '孺子入井 – 惻隱之心'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윤리적 입장 – 退溪, 栗谷, 茶山, 惠岡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15	김윤경	하곡학(霞谷學)과 다산학(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시론(試論) – 사덕(四德) · 사단론(四端論)을 중심으로 –	東洋哲學研究 93	동양철학연구회
16	이봉규	『목민심서』에 빈영된 에제와 살학의 공공성	다산과현대 11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17	이기봉	다산 정약용의 형률론 – 『흠흠신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學林 41	연세사학연구회
18	고승환	다산 정약용의 감정론(情) 연구	철학논집 54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9	이기원	정약용의 심법론 – 이예제심(以禮制心)을 둘러싼 소라이학파와의 충돌 –	人文科學 71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	고명문	정약용의 성 기호설의 한계와 그 이후 – 신체화 된 성 기호 –	哲學論叢 91	새한철학회
21	임재규	정약용(丁若鏞)과 주진(朱震)의 『주역(周易)』해석 방법론 비교	孔子學 36	한국공자학회
22	이난숙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	철학탐구 52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3	김동진	정약용의 주희 서법筮法 개량과 그 의의 – 음양노소 불균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24	金聖才	정약용 『상서고훈』의 구성 체재와 案說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4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5	장승구	정약용의 윤리교육론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26	방인	정약용의 역학관 형성에 미친 모기령의 영향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27	김호	조선후기 흠휼(欽恤)의 두 가지 모색 – 윤기와 정약용의 속전론(贖錢論)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28	ZHANG YUE	다산역학에서 象數와 義理의 통합적 경향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29	정호훈	『목민심서』군현(郡縣)으로부터의 정치개혁 구상	다산과현대 11	연세대학교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30	미번, 르엉	레뀌돈과 정약용의 정치사상 비교연구 : 『尙書』 해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31	장열	茶山 『周易』解釋의 思想的 特徵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국 실학 인물 가운데 정약용을 다룬 연구는 압도적이다. 주제어 검색으로 학술논문만 150여 편 가량 나온다. 그중 관련성이 높은 것만 추린 위의 목록만 보아도 한국 실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경전해석학적 탐구가 계속되면서 박사논문도 발표되었다. 특히 『주역』 해석에 관한 연구가 늘고, 경학적 성취와 경세론의 상관성을 고찰하는 등 연구가 심화하는 추세다. 철학사상 분야는 성기호설을 중

심으로 심성론 연구가 많은 가운데 천관과 윤리론 그리고 다산학과 하곡학이나 소라이학과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졌다. 경세론은 후생론에 주목해 성리학과 실학의 차이를 특징짓는 연구와 국가론, 신분제론, 형률론, 군현제 등 정치 · 사회제도개혁론이 다루어졌다.

5) 최한기(崔漢綺)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창욱	惠岡 崔漢綺의 氣論과 近 · 現代科學의 相關關係 연구	汎韓哲學 90	범한철학회
2	최정묵	혜강 최한기의 기학적 세계관과 인간 이해	儒學硏究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金淑卿	西歐 認識論의 系譜에서 바라 본 惠岡 認識論의 位相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4	손승남	혜강 최한기의 『인정(人政)』에 관한 교육해석학적 고찰	교육문화연구 24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5	이명수	최한기의 존재와 인식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6	이명수	최한기의 존재론적 관계성 성찰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7	Hee-Whan Yun	Chuchik(推測) in Choi Han-gi(崔漢綺)'s Ki-philosophy[氣哲學]	東洋古典硏究 71	동양고전학회
8	서욱수	최한기의 소통론과 활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9	백민정	주자학적 독법에서 본 최한기 철학의 특징	大東文化硏究 10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0	이창욱	惠岡 崔漢綺의 氣運化論的 世界觀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1	김경수	최한기 기학의 정치철학적 함의 :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자신의 학문을 기학으로 일컬으며 운화기를 핵심 개념으로 독창적인 철학체계를 완성한 최한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운화론적 세계관

과 기학의 정치철학적 함의 등 박사논문 발표에서 보듯이 꾸준하다. 의리경세학을 특징으로 하는 최한기 이전의 실학이 대체로 성리학의 자장 안에 있는 데 반해, 기학은 신기와 운화기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을 아우르는 세계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목록에서처럼 인식론과 존재론 등 철학사상에 관한 관심이 주축을 이루며 과학적 성과나 소통이론으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6)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주희	조선후기 저술에 나타난 『지봉유설(芝峯類說)』의 인용 양상과 특징	韓國思想史學 59	한국사상사학회
2	함영대	서계 박세당의 학술정신과 『맹자사변록』	韓國漢文學研究 72	한국한문학회
3	김용흠	서계 박세당의 『대학사변록』에 보이는 '경세' 지향 학문관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4	김선희	도(道), 학(學), 예(藝), 술(術) – 조선 후기 서학의 유입과 지적 변동에 관한 하나의 시론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5	손혜리	成海應의 送序를 통해 본 경세의식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6	이헌창	실학(實學)의 개념과 학술사적 · 현재적 의의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7	김덕진	실학자 李如樸의 數學 연구와 『理數源流』편찬	南道文化研究 34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8	윤사순	신실학의 의미와 구성 방향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9	구만옥	조선후기 과학사 연구에서 '실학'의 문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0	노관범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사
11	김성수	조선후기, 의학(醫學)과 실학(實學)의 관계에 대한 재고(再考): 18세기 전반까지를 중심으로	의료사회사연구 2권1호	의료역사연구회
12	채석용	조선 실학의 두 기원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8권 4호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3	유지웅	여암 신경준 실학사상의 지향점	동서인문학 54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	임종태	과학사 학계는 왜 실학을 저평가해 왔는가?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5	황인옥	朝鮮後期『中庸』解釋의 獨創性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6	노용필	안정복 · 이규경의 이마두《천주실의》인용 양상 비교 검토	敎會史硏究 52	한국교회사 연구소
17	전상욱	농암 유수원의 진상제(進上制) 인식과 개혁 구상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8	송웅섭	유수원(柳壽垣)의 관제개혁론(官制改革論)에 대한 검토－권력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9	김경래	농암 유수원의 관제(官制)개혁안과 대신론(大臣論)－삼공(三公) · 육경(六卿)의 직제(職制) 개편과 역할론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20	崔錫起	旅軒 張顯光의『大學』해석 연구	南冥學硏究 5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1	김대중	애민사상의 정신분석－성호(星湖) 이익(李瀷)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2	하우봉	호남실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기타에서는 주요 인물과 학파 외의 실학자와 실학의 사상적 특징을 시기별로 고찰하거나 지적 체계의 변환,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의미론과 실학의 현대적 전망을 고찰한 연구 등을 분류에 포함했다. 이수광, 박세당, 유수원, 장현광, 안정복, 이규경, 성해응, 신경준, 이여박 등이 연구되었고, 경전 해석의 실학적 특성, 제도개혁론, 서학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학 · 과학 · 의학적 성취와 평가 등이 주제였다. 실학이 조선후기 경세학적 학풍을 지칭하는 용어로 발명되었다는 역사의미론적 탐색이 호응을 얻는 가운데 근기실학과 구분하여 호남실학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나왔다. 실학의 의미를 캐묻고 지역별 실학의 특징을

규명하는 등 개별 실학자와 학파를 벗어나 실학 연구가 심화 · 확장하였다.

3. 한국실학 주제별 분류

주제별로 분류하면, 경학 관련 논문이 13편, 철학 분야가 49편, 정치와 경제 분야가 17편, 기타가 15편 등이다. 경세론 분야 연구가 실학 연구의 뚜렷한 특징을 이루는 가운데, 경학과 철학 분야 연구가 증대하는 추세다.

1) 경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재환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시경』 이해의 양상	東方漢文學 77	동방한문학회
2	金炳愛	河濱 愼後聃의 『주역』 해석 – 『周易象辭新編』의 효변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3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해석 방법론 연구(Ⅰ) –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6	(사)율곡연구원
4	강진선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중용』 독서와 그 의미 – '용(勇)'의 주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5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공자 십익(十翼)에 관한 신해석	泰東古典硏究 4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6	엄연석	정약용의 소옹과 주희 『주역周易』 수리설 비판에 대한 재조명 – 『역학서언』의 「주자본의 발미」와 「소자선천론」을 중심으로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7	임재규	정약용(丁若鏞)과 주진(朱震)의 『주역(周易)』 해석 방법론 비교	孔子學 36	한국공자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8	金聖才	정약용 『상서고훈』의 구성 체재와 案說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4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9	장열	茶山 『周易』解釋의 思想的 特徵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0	함영대	서계 박세당의 학술정신과 『맹자사변록』	韓國漢文學硏究 72	한국한문학회
11	김용흠	서계 박세당의 『대학사변록』에 보이는 '경세' 지향 학문관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12	崔錫起	旅軒 張顯光의 『大學』 해석 연구	南冥學硏究 5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3	황인옥	朝鮮後期 『中庸』 解釋의 獨創性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학을 다룬 연구는 역학 분야가 6편, 시경 1편, 서경 1편, 중용 2편, 맹자 1편, 대학 2편이다. 정약용의 역학 관련 연구는 박사논문을 포함하여 4편으로 가장 많고, 이덕무의 중용 독서기 외에 조선후기 『중용』 해석의 독창성을 다룬 박사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 박세당의 『사변록』과 장현광의 『대학』 그리고 성호 문인 윤동규의 『시경』 해석이 발표되었다.

2) 철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순남	신후담의 〈小學箚疑〉연구 – 분절체계를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78	한국문학회
2	李姃玟	17~18세기 학계의 소학 담론 검토 – 이익(李瀷)의 소학질서(小學疾書) 편찬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3	서근식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사칠신편(四七新編)』에 나타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연구	율곡학연구 37	(사)율곡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오진솔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東洋哲學硏究 96집	동양철학연구회
5	김윤정	星湖 李瀷의 國恤 중 喪 · 祭禮 예론과 실천	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	구만옥	조선후기 서학(西學) 수용과 배척의 논리 –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서학관(西學觀)을 중심으로 –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7	김대중	애민사상의 정신분석 – 성호(星湖) 이익(李瀷)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8	이명제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 성호가문의 서학관 고찰 – 『벽이연원록(闢異淵源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9	김경남	조선시대 『소학』 주석사에서의 『소학질서』의 위상	人文硏究 8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	인현정	홍대용의 『소학』이해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1	남호현	『熱河日記』 黃敎 관련 서술을 통해 본 박지원의 淸朝 인식	한국학연구 65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2	이종성	연암 박지원의 철학사상에 나타난 장자 제물론의 사유방식	동서철학연구 87	한국동서철학회
13	이인화	18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과 중국의 국제인식 – 홍대용의 「연기」와 「항전척독」을 중심으로 –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14	주광순	동서 문화 교류의 입장에서 본 홍대용과 신채호	코기토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5	姜春華	性理學與脫性理學關於認識主體與客體問題上的差異 – 以朱熹與洪大容比較爲中心	중국학 64	대한중국학회
16	한상일	북학파 癖 · 癡추구의 사상적 배경	동양예술 40	한국동양예술학회
17	인현정	홍대용의 정치철학과 물학(物學)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8	정일균	다산 정약용의 '천天' 개념에 대한 재고찰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19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맹자학과 혈기론	民族文化 52	한국고전번역원
20	李向俊	서(恕), 황금률을 만나다 – 정약용(丁若鏞)의 경우 –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21	이숙희	정약용의 영성 – 천관의 두 측면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22	임부연	정약용이 발견한 '천명天命'과 '교제交際'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3	전성건	儒教共同體與公議的公論性－以茶山(丁若鏞)二律背反的儒教共同體論爲中心	儒教文化研究(中文版) 30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4	李永慶	맹자의 '孺子入井－惻隱之心'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윤리적 입장－退溪, 栗谷, 茶山, 惠岡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25	김윤경	하곡학(霞谷學)과 다산학(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시론(試論)－사덕(四德)·사단론(四端論)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93	동양철학연구회
26	고승환	다산 정약용의 감정론(情) 연구	철학논집 54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7	이기원	정약용의 심법론－이예제심(以禮制心)을 둘러싼 소라이학파와의 충돌－	人文科學 71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8	고명문	정약용의 성 기호설의 한계와 그 이후－신체화 된 성 기호－	哲學論叢 91	새한철학회
29	이난숙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	철학탐구 52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30	김동진	정약용의 주희 서법筮法 개량과 그 의의 ―음양노소 불균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31	방인	정약용의 역학관 형성에 미친 모기령의 영향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32	ZHANG YUE	다산역학에서 象數와 義理의 통합적 경향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33	미번, 르엉	레뀌돈과 정약용의 정치사상 비교연구 : 『尙書』 해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34	이명수	최한기의 존재와 인식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35	이명수	최한기의 존재론적 관계성 성찰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36	Hee-Whan Yun	Chuchik(推測) in Choi Han-gi(崔漢綺)'s Ki-philosophy[氣哲學]	東洋古典研究 71	동양고전학회
37	서욱수	최한기의 소통론과 활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8	백민정	주자학적 독법에서 본 최한기 철학의 특징	大東文化研究 10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9	이창욱	惠岡 崔漢綺의 氣運化論的 世界觀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0	김경수	최한기 기학의 정치철학적 함의 :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41	최정묵	혜강 최한기의 기학적 세계관과 인간이해	儒學硏究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2	金淑卿	西歐 認識論의 系譜에서 바라 본 惠岡 認識論의 位相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43	노관범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사
44	채석용	조선 실학의 두 기원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권 4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45	유지웅	여암 신경준 실학사상의 지향점	동서인문학 54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6	윤사순	신실학의 의미와 구성 방향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47	김선희	도(道), 학(學), 예(藝), 술(術)-조선 후기 서학의 유입과 지적 변동에 관한 하나의 시론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48	손혜리	成海應의 送序를 통해 본 경세의식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49	이헌창	실학(實學)의 개념과 학술사적 · 현재적 의의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철학 분야 논문은 총 49편이다. 정약용과 최한기를 주제로 한 연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산의 철학사상 관련 논문은 16편이며, 천관, 심성론, 서법을 다룬 논문 외에 하곡학과 소라이학 그리고 베트남 학자 레뀌돈과 비교 논문이 있다. 최한기는 9편인데 주자학의 관점에서 최한기 철학의 특징을 고찰한 논문이 눈에 띈다. 인식론, 존재론, 정치철학, 세계관 등을 주제로 한 연구 가운데 박사논문도 2편 발표되었다. 그밖에 성호학파의 사단칠정론 변증과 조선후기 『소학』 해석, 서학 유입과 지적 변동 연구가 있고,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의미론과 학술사적 의의를 탐색한 연구가 있다.

3) 정치 · 경제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도혁	유교의 정치적 평등의 전개－유형원과 이익을 중심으로－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14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국가재정 개혁구상과 녹봉제 실시론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3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관제개편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86	조선시대사학회
4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敎選論과 貢擧制 구상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5	함영대	『우서(迂書)』 토지제도의 현실성 연구－반계 수록 · 전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6	이은지	박제가의 사족문제 인식－유식자(遊食者)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9	한국사상사학회
7	백민정	정약용의 사족(士族) 인식과 그 의미－다산 경세서(經世書)에 나타난 사족(士族)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硏究 8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8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후생론	다산학 32	다산학술문화재단
9	송기중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지방 軍政論	역사와실학 67	역사실학회
10	김문용	정약용의 국가론의 논리와 성격	다산학 33	다산학술문화재단
11	김호	조선후기 흠휼(欽恤)의 두 가지 모색－윤기와 정약용의 속전론(贖錢論)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12	이봉규	『목민심서』에 빈영된 예제와 실학의 공공성	다산과현대 11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13	이기봉	다산 정약용의 형률론－『흠흠신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學林 41	연세사학연구회
14	정호훈	『목민심서』군현(郡縣)으로부터의 정치개혁 구상	다산과현대 11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15	전상욱	농암 유수원의 진상제(進上制) 인식과 개혁 구상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6	송웅섭	유수원(柳壽垣)의 관제개혁론(官制改革論)에 대한 검토－권력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7	김경래	농암 유수원의 관제(官制)개혁안과 대신론(大臣論)－삼공(三公) · 육경(六卿)의 직제(職制) 개편과 역할론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정치와 경제 등을 다룬 논문은 17편이다. 철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약용이 8편으로 절반 가량된다. 그 외 유형원 5편, 유수원 3편, 박제가가 1편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흠흠신서』를 중심으로 국가론, 예제론, 형률론이 논의되었고, 유형원은 관제, 전제, 조세 제도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고, 유수원도 세제와 관제를 고찰한 논문이 있다. 실학자의 경세론을 비교한 연구로는 유형원과 이익의 정치적 평등론, 윤기와 정약용의 속전론이 있으며, 박제가와 정약용의 사족 인식을 다룬 논문도 발표되었다.

4)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반계수록』의 전승과 『잡동산이』	한국실학연구 35권	한국실학학회
2	하우봉	호남실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실학연구 36권	한국실학학회
3	정은진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의 『백가의(百家衣)』 연구	한문교육연구 50	한국한문교육학회
4	劉婧	洪大容所編《乾淨衕筆譚》異本研究	열상고전연구 66	열상고전연구회
5	이현정	湛軒 洪大容의 樂論에 관한 小考 –『湛軒書』를 중심으로 –	한국음악문화연구 12	한국음악문화학회
6	한윤숙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예술의 조선풍(朝鮮風)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研究 93	동양철학연구회
7	이창욱	惠岡 崔漢綺의 氣論과 近, 現代科學의 相關關係 연구	汎韓哲學 90	범한철학회
8	손승남	혜강 최한기의 『인정(人政)』에 관한 교육해석학적 고찰	교육문화연구 24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9	장승구	정약용의 윤리교육론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최주희	조선후기 저술에 나타난 『지봉유설(芝峯類說)』의 인용 양상과 특징	韓國思想史學 59	한국사상사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1	김덕진	실학자 李如樸의 數學 연구와 『理數源流』 편찬	南道文化研究 34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2	구만옥	조선후기 과학사 연구에서 '실학'의 문제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3	김성수	조선후기, 의학(醫學)과 실학(實學)의 관계에 대한 재고(再考): 18세기 전반까지를 중심으로	의료사회사연구 2권1호	의료역사연구회
14	임종태	과학사 학계는 왜 실학을 저평가해 왔는가?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15	노용필	안정복 · 이규경의 이마두 《천주실의》 인용 양상 비교 검토	教會史研究 52	한국교회사연구소

기타로 분류한 논문은 총 16편이다. 내용을 일별하면, 실학 관련 저술의 서지학적 · 지성사적 고찰, 근기실학에 대비한 호남실학의 지역적 특성 연구, 이삼환, 이여박 등 실학자 연구, 실학의 문학론, 예술론, 교육론을 다룬 논문과 수학, 의학, 과학 분야 논의와 성과에 대한 학술사적 의의를 분석하여 실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4. 한국 근대 유학

한국 근대 유학 분야 논문은 먼저 성리학 10편, 양명학 7편, 기타 11편으로 분류하고, 주제별로는 철학 21편, 유교개혁론 3편, 문명담론 2편, 기타 2편으로 분류했다. 조선후기 성리학의 연장에 있는 인물들은 대체로 위정척사를 표방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을 펼쳤는데 한주학파의 곽종석과 그 문인들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강화학파를 위시한 양명학 계열의 현실 대응은 상대적으로 유교개혁 논의가 활발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기타 논문에서 다뤄진 인물도 대개는

성리학 계열에 속한다. 다만 연구주제가 교육, 종교, 서구 문명 인식과 관련한 것이어서 성리학에 포함하지 않았다.

1) 학문별 분류

(1) 성리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병한	艮齋 田愚의 海上散筆에 대한 연구 간재의 '敬'字 · '誠'字 工夫論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1	동양한문학회
2	안유경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연구 – 한주 이진상과 만구 이종기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3	심도희	공산 송준필의 성리사상과 사회적 실천 운동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4	김기주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의 학문 활동과 성리학적 특징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5	김봉곤	호남유생 경회(景晦) 김영근(金永根)의 화서학(華西學) 수용과 위정척사사상의 전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7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6	유지웅	한말 기호학계와 심설논쟁 – 기호학계의 상황과 심설논쟁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7	최영성	사상사(思想史)의 맥락에서 본 19세기 심설논쟁(心說論爭) – 사칠논쟁(四七論爭)에서 심설논쟁(心說論爭)까지 –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8	김현우	이항로의 심설과 서학(西學) – 벽사록변(闢邪錄辨) · 아언(雅言) 양화(洋禍)를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9	안유경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교 연구	영남학 6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0	김낙진	重齋 金榥의 心卽理說 옹호와 활동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1	김순현	19세기 嶺南 儒學者의 孟子 解釋 硏究 – 崔象龍, 李震相, 郭鍾錫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성리학 분야는 이항로, 전우, 이진상, 송준필, 하겸진, 곽종성, 이종기, 김황 등이 논의되었고,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과 전개를 집중 조

명하는 가운데, 전우의 공부론, 송준필과 하겸진의 성리학 사상, 이종기와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교와 심설 논쟁 등이 연구되었다. 심설논쟁은 사단칠정논쟁과 호락논쟁과 함께 조선 성리학 3대 논쟁으로 평가될 만큼 그 사상사적 의의가 인정되는 추세다. 심설논쟁의 핵심 쟁점은 심을 리로 볼 것인가 기로 볼 것인가, 심과 명덕은 같은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 명덕은 리로 보아야 하나 기로 보아야 하나 등이다. 김순현의 박사논문은 신라로부터 조선에 이르는 영남 지역 유학자들의 경학 관련 저술을 토대로 영남경학의 성립가능성을 타진하고, 최상룡, 이진상, 곽종석의 맹자 장구 석의와 해석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2) 양명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한정길	19세기 강화학파 학자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논리 – 이시원(李是遠)과 이건창(李建昌)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10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	한정길	蘭谷 李建芳의 양명학 이해와 현실 대응 논리	陽明學 51	한국양명학회
3	박태옥	위당 정인보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과 '실심'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87	한국동서철학회
4	김용구	白巖 박은식 『王陽明先生實記』의 내용과 특징 분석	陽明學 50	한국양명학회
5	황종원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 –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 –	儒學硏究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	김민재	백암 박은식 사상의 양명학적 특징과 도덕교육적 함의: 『왕양명선생실기(王陽明先生實記)』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7	임부연	박은식의 '종교' 담론	종교와 문화 34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8	이영철	원교 이광사의 학술사상과 예술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9	조은덕	生理와 感通에 관한 연구: 정제두와 정인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양명학은 박은식이 논문이 4편으로 많은 가운데, 강화학파인 이시원과 이건창, 이건방을 다룬 연구, 그리고 정인보 논문이 있다. 『왕양명선생실기』를 통해 박은식의 양명학을 고찰한 논문이 2편이고, 이밖에 종교 담론과 유교 개혁론에 나타난 양계초의 영향 등이 발표되었다. 강화학파에 속한 인물들은 양명학에 대한 이해와 현실 대응이 논의되었고, 정인보의 미의식과 실심 문제를 다룬 논문이 있다. 박사논문은 2편인데, 하곡 정제두의 문인인 이광사의 학술사상과 예술을 다뤘다. 하곡의 심학을 계승한 이광사는 이기심성일물론(理氣心性一物論)의 관점에서 심즉성(心卽性)을 주장하였고, 시문과 서예에서 성속합일(聖俗合一)의 미학을 추구하였음을 밝혔다. 다음 박사논문은 정제두의 생리(生理)와 정인보의 감통(感通)을 주제로 한 것이다. 정제두는 생리설을 토대로 스스로 시비를 자각하고 만물을 아끼는 실천행위를 통하여 천지만물과의 감응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정인보는 '실심(實心)'과 '감통(感通)' 개념을 제시하여, 실심실학을 바탕으로 한 지행합일의 개념을 애국지향의 심혼(心魂)으로 승화시켰음을 논했다.

(3)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요후	김평묵(金平默)의 『벽사변증기의(闢邪辨證記疑)』에 나타난 척사사상(斥邪思想)에 대(對)하여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	이연승	해창 송기식의 유교개혁론에 대한 소고	종교와 문화 3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3	황지원	진암(眞庵)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운동(孔敎運動)과 금문경학(今文經學)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4	임재규	이병헌(李炳憲)의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강유위(康有爲)의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의 영향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김호덕	이병헌(李炳憲)의 천 관념(天觀念) 연구 – 천학(天學)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6	정병석	中山 朴章鉉의 自尊哲學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7	이행훈	省窩 李寅梓의 철학 지평과 실천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8	김현수	심산 김창숙의 유교 인식과 독립운동의 전개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9	이원석	만국공법의 두 가지 지평과 구한말 유학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0	주광순	동서 문화 교류의 입장에서 본 홍대용과 신채호: 근대화 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코기토(Cogito)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	이동기 김정수	석주 이상룡의 교육혁신론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기타는 11편으로 김평묵, 송기식, 이병헌, 박장현, 이인재, 김창숙, 신채호, 이상룡 등의 인물이 다뤄졌다. 이 중 한주학파의 문인들과 영남 유현의 사상과 활동을 조명한 〈일제강점기 '낙중학'〉 학술회의의 성과가 눈에 띈다. 김평묵은 화이의 이분법을 서양으로 확대하여 위정척사와 내수외양을 주장했다. 단일 인물로는 이병헌이 3편인데, 공교운동뿐만 아니라 금문경학에서 공자십익설에 대한 비평과 종교성을 가미한 천 관념에 대한 논의가 있다. 박장현의 자존철학은 유가의 도학정신을 복원하고 민족자존의식을 고취하는 학문체계를 다룬 것이다. 곽종석의 문인인 이인재는 한주학을 계승하여 리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한편 서양문명의 기원인 고대희랍철학과 유학을 비교하여 유학의 우수성과 보편성을 입증하는 데 힘썼다. 그밖에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의 만국공법 인식의 차이,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홍대용과 신채호를 비교한 논문이 있고, 김창숙의 유교인식과 독립운동, 자강론에 기반한 이상룡의 교육혁신론도 발표되었다.

2) 주제별 분류

(1) 철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병한	艮齋 田愚의 海上散筆에 대한 연구 간재의 '敬'字 · '誠'字 工夫論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1	동양한문학회
2	안유경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연구 – 한주 이진상과 만구 이종기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3	심도희	공산 송준필의 성리사상과 사회적 실천 운동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4	김기주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의 학문 활동과 성리학적 특징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5	김봉곤	호남유생 경회(景晦) 김영근(金永根)의 화서학(華西學) 수용과 위정척사사상의 전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7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6	유지웅	한말 기호학계와 심설논쟁 – 기호학계의 상황과 심설논쟁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7	최영성	사상사(思想史)의 맥락에서 본 19세기 심설논쟁(心說論爭) – 사칠논쟁(四七論爭)에서 심설논쟁(心說論爭)까지 –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8	김현우	이항로의 심설과 서학(西學) –벽사록변(闢邪錄辨) · 아언(雅言) 양화(洋禍)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9	송요후	김평묵(金平默)의 『벽사변증기의(闢邪辨證記疑)』에 나타난 척사사상(斥邪思想)에 대(對)하여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 연구소
10	안유경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교 연구	영남학 6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1	김낙진	重齋 金榥의 心卽理說 옹호와 활동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2	정병석	中山 朴章鉉의 自尊哲學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3	이행훈	省窩 李寅梓의 철학 지평과 실천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4	한정길	19세기 강화학파 학자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논리 – 이시원(李是遠)과 이건창(李建昌)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0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5	한정길	蘭谷 李建芳의 양명학 이해와 현실 대응 논리	陽明學 51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6	박태옥	위당 정인보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과 '실심'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87	한국동서철학회
17	김용구	白巖 박은식 『王陽明先生實記』의 내용과 특징 분석	陽明學 50	한국양명학회
18	김민재	백암 박은식 사상의 양명학적 특징과 도덕교육적 함의 : 『왕양명선생실기(王陽明先生實記)』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19	임부연	박은식의 '종교' 담론	종교와 문화 34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	임재규	이병헌(李炳憲)의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 –강유위(康有爲)의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의 영향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1	김호덕	이병헌(李炳憲)의 천 관념(天觀念) 연구 – 천학(天學)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2	김순현	19세기 嶺南 儒學者의 孟子 解釋 硏究 – 崔象龍,李震相,郭鍾錫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23	이영철	원교 이광사의 학술사상과 예술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4	조은덕	生理와 感通에 관한 연구 : 정제두와 정인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주제별 분류에서 철학은 모두 20편이다. 19세기부터 일제강점까지 성리학 관련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철학사연구회는 심설 논쟁을 특집으로 게재했고,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은 낙중학 연구의 일환으로 한주 재전 제자와 영남 유현의 활동과 사상을 특집으로 기획했다. 두 개의 기획 특집에 힙입어 성리학 관련 연구가 크게 늘고, 강화학파와 박은식 등 양명학 관련 연구가 더해져 전체적으로 철학 분야 논문이 증가했다. 조선후기 성리학과 근대 유학의 연속성이 부각되면서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이 증가한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한편 문명개화나 신구학절충론을 펼친 유교 지식인 연구는 예년과 비교하면 현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실학 분야에서 최근 지속한 근

대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2) 유교개혁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연승	해창 송기식의 유교개혁론에 대한 소고	종교와 문화 34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	황지원	진암(眞庵)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운동(孔敎運動)과 금문경학(今文經學)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	황종원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	儒學硏究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교 종교화 운동은 물론이고 한국 근대 유교개혁론에 미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의 영향은 적지 않다. 송기식, 이병헌, 박은식을 다룬 세 편의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정재학파인 송기식은 『유교유신론』(1921)에서 유교의 종교성, 철학성, 과학성을 주장하면서 유교개혁으로 대동세계의 도래를 기대했다. 이병헌은 금문경학 연구를 통해 공교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캉유웨이가 인도(人道)를 강조한 것과 달리 신도(神道)를 공교의 핵심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유교를 근대적 종교로 개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박은식도 량치차오처럼 유교의 민중지향성, 구세정신, 근대 지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교를 근대국가 건설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류의 협력과 자연과의 조화를 유교의 핵심 이념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3) 문명담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만국공법의 두 가지 지평과 구한말 유학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	주광순	동서 문화 교류의 입장에서 본 홍대용과 신채호: 근대화 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코기토(Cogito)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문명담론으로 분류한 2편은 모두 비교연구이다. 첫 번째 논문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계열 지식인의 만국공법 이해를 비교했고 두 번째 논문은 홍대용의 북학사상과 신채호의 민족주의 담론을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비교했다. 서세동점으로 중화질서가 해체된 후 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질서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국공법이 소개되었는데 개화파가 만국공법이나 공법회통의 국가주의적 지평에 호의적이었던데 비해 위정척사파는 자연법적인 요소를 부각하여 유가적 가치로 재해석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동서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볼 때 홍대용의 서구 지식 수용은 전통적 가치체계의 부정을 초래할 수 있고 신채호의 민족주의 담론은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데에 유용하지만 배타성을 지닌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상호문화철학이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4)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기 김정수	석주 이상룡의 교육혁신론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2	김현수	심산 김창숙의 유교 인식과 독립운동의 전개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기타 2편의 논문은 구국계몽과 민족독립운동을 다룬 것이다. 이상룡은 유교 지식인으로서 서양근대학문 수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구 열강의 약탈적 제국주의에 대해 존왕양이의 입장을 취했으나 국망에 이르자 서간도로 망명하여 자강론적 교육 혁신을 토대로 한 구국계몽운동을 진행했다. 김창숙은 한주학파와 교류하면서 유교의 의리정신에 입각하여 일제를 비판하고 국권 회복과 독립운동을 벌였다. 일제강점과 국권 상실로 인해 유교의 본질과 가치는 퇴색됐다. 망국의 원인을 유교로 지목한 데에는 일제의 식민주의도 한몫했다. 민족독립 운동에 앞장서고 현대 민주사회 건설의 초석이 된 한국 근대 유교의 이론적 토대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5.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1) 한국 실학

먼저 한국 실학연구 전문학술지인 『한국실학연구』에 발표된 기획 주제와 접근방식을 통해 실학연구 경향을 살펴보자. 제35호에는 안정복과 이수광 관련 논문이 두드러진다. 박종천의 「조선시대 유서류 연구방법론과 디지털 인문학-지식학적 접근과 지식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박지현의 「『만물유취』 「추관문(秋官門)」과 순암 형법관의 기초」, 김대중의 「안정복의 조선학인(朝鮮學人) 유문(遺文) 수습-잡동산이』 제22책을 중심으로-」, 함영대의 「『반계수록』의 전승과 『잡동산이』」 등 안정복의 『잡동산이』를 중심으로 서지학적 분석, 형법 그리고 조선시대 유서류 연구방법론 등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정호훈의 「지봉

(芝峯) 이수광(李睟光)의 학문관과 정치론」, 김문수의 「지봉 이수광의 베트남 이해」, 임영걸의 「이수광(李睟光)의 산문(散文) 비평(批評)에 대한 일고(一考) – 당송고문(唐宋古文)의 우열비평(優劣批評)을 중심으로-」 등 이수광의 학문관과 정치론, 문학, 베트남 이해를 고찰한 논문 3편이 게재되었다. 제36호에는 송웅섭의 「柳壽垣의 官制改革論에 대한 검토 - 권력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김경래의 「농암 유수원의 官制 개혁안과 大臣論 – 三公 · 六卿의 職制 개편과 역할론을 중심으로」, 전상욱의 「농암 유수원의 進上制 인식과 개혁 구상」, 함영대의 「『迂書』토지제도의 현실성 연구 – 『반계수록 · 전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등 유수원의 관제, 세제, 토지제도 등을 다룬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안정복, 이수광, 유수원 등 비교적 연구가 많지 않은 실학자를 선정하여 학계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문학, 철학, 법학,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류서류 편찬의 실학적 성격과 그 연구방법론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지식을 수집하고 고증과 변증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백과전서식 류서의 편찬은 실학의 전형적인 학문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연구 하나를 소개한다. 한상일의 「북학파 癖 · 癡추구의 사상적 배경」은 실학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주목할 만하다. 18세기 조선에는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서화의 완상 및 수집, 원예와 분재, 산수유기, 독서, 다도의 유행 등 새로운 기풍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벽(癖) · 치(癡)'라고 할만한 이러한 기풍은 백과전서식으로 지식을 재구성하여 다종의 류서를 편찬을 촉진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의 중심에 있었던 북학파의 인물성론과 천기론(天機論), 사민론과 신분차별론 그리고 성리학의 완물상지

론(玩物喪志論)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새로운 문화 흥기의 원인으로 제시한 점은 북학파와 실학의 사상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 할만하다. 그 결과 성리학의 이념 자장에서 완물상지로 여겨졌던 말기(末技)나 잡기(雜技)들을 통해서도 도(道)에 이를 수 있다는 전향적 사유를 발견하고, 완물(玩物)을 격물(格物)로, 그리고 지락(至樂)으로 격상시켰음을 보였다. 다소 아쉬운 점은 이러한 문화 현상을 이끈 북학파의 사상을 탈주자학으로 의미 규정한 것이다. 실학사상에서 본원유학의 정신을 복원하려는 시도나 이기론과 심성론에 치중한 성리학의 세계관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를 탈주자학으로 규정짓고 나면 양자의 상관성은 도외시할 우려가 있다. 어쨌든 자문화 · 자문학의 전개와 양상과 자국의 역사에 관심을 돌린 실학의 특성은 철학뿐만 아니라 이처럼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면 그 면모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다수 연구 가운데 일련의 주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과학사의 측면에서 조선시대 실학을 평가한 구만옥의 「조선후기 과학사 연구에서 '실학'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자연학 분야의 새로운 학문 경향에 나타난 주자학적 자연학과의 차이점을 정리했다. 첫째, 자연학의 독자적 가치를 긍정하는 논의가 출현했다. 둘째, 자연법칙으로서의 물리에 대한 탐구가 모색되었다. 천지만물이 공부의 대상이 되면서 박학의 성격을 띄게 되었고, 최신 물리 지식을 담고 있는 서학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셋째 연구방법론에서 측량과 실측을 중시하게 되었다. 비록 실학의 과학적 성취가 서학에 비춰 미흡하고 비과학적 양태를 상당 부분 지녔다 할지라도 '실사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지향했음은 분명하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는 정치 · 사회제

도 개혁을 모색한 '비판담론'으로서의 학문적 성격과 함께 실학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다만 여전히 과학사가들로부터 외면받는 실학의 비과학성 문제에 대해 사상사나 지성사의 관점에서 어떠한 해답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실학' 개념의 학술사적 의의를 논한 노관범과 이헌창의 논문이다. 사실 실학 개념은 여말선초 불교를 허학으로 성리학은 실학으로 부르거나, 조선시대 경학이나 과거지학을 실학으로 부르는 등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과 의미가 시대마다 일정하지 않다. 또한 조선후기 의리경세학적 학풍을 일으킨 주인공들이 자신의 학문을 스스로 실학으로 지칭한 사례가 많지 않은 까닭에 실학이란 용어의 적용 가능성을 부정하는 주장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노관범의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이 바로 그러한데 실학은 20세기 초까지 한국 지식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학은 학문이 아니라 학풍일 뿐이며, 후대에 사후적으로 구성된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제국기 실용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풍토에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지성사의 전통을 재발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심과 실용을 접합한 한국 최초의 실학은 박은식과 장지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실학은 보통명사에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고유명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근대초기는 잠시 접어 두고 1970년대부터 조선후기 실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발표된 연구만도 상당한데 실학 개념의 정립과 관련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보면 찬반양론의 대립이 팽팽한 듯하다. 어찌 보면 비생산적일 수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자학, 양명학,

퇴계학, 다산학처럼 개별 사상가를 학문으로 지칭하지 않고 다수의 인물과 조선후기라는 매우 긴 시기를 포괄하는 데서 이미 예견된 문제는 아닐까. 더욱이 실학의 현대적 해석과 계승을 주장하는 신실학 논의에 이르면 '실학'은 현재 진행형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노관범의 논의는 학문과 학풍을 구분하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실학 개념의 학술사적 가치를 묻는 것과 연관된다.

이헌창의 「실학(實學)의 개념과 학술사적 · 현재적 의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류의 보편적 도덕인 진리를 추구하는 실학과 역사적 용어로서의 실학 또는 근세 실학을 구분하자는 주장이다. 근세 실학을 내세운 것은 유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자백가와 서양 학문을 수용한 개신유학으로 실학의 의미를 재규정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보면 실학을 서구 근대 여명기 계몽주의와 견줄만한 보편적인 학문으로 재음미할 수 있는 동시에 세계학계에 내세울 만한 동아시아학으로서의 현재적 의의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한기도 인류의 지식 축적과 학문의 발전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새로운 시대의 학문은 전통 유불도와 서양 학문마저 통섭하는 일통의 학문 즉, 기학이라 이름했다. 그런데 근세 실학이 개신유학이라면 본원 유학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답해야 한다. 필자는 실학의 사유양식은 실용주의라기보다 보편 도덕을 진리로서 탐구하는 합리성이고, 근세 실학은 합리적 사유를 진전시켜 유용한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내용을 풍부히 하여 근대 학문에 접근했다고 한다. 이런 논리라면 수기치인, 내성외왕의 유학 이념을 나누어 내적 도덕 수양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수기와 내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합리성은 유학 정신과 어긋난다. 근세 실학이 개신'유학'이

라면 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2) 한국 근대 유학

한국 근대 유학에서 심설논쟁과 낙중학 연구는 19세기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전개된 성리학의 학술 가치를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심설논쟁이 사단칠정논쟁, 호락논쟁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3대 논쟁으로 자리매김할지 지켜볼 일이다. 심설논쟁은 그 세부 논의로 명덕논쟁, 심시기와 심시리, 심무위와 심유위 문제 등 성리학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철학적 토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편 낙동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한 낙중학은 성리학의 지역학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여 영남 유학의 외연을 확대하고 일제강점기까지 성리학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심설논쟁과 함께 한국 성리학 연구를 학술적 의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학논집』은 조선후기 심설논쟁을 다룬 최영성, 김현우, 유지웅, 안유경의 논문을 게재했다. 최영성의 「사상사(思想史)의 맥락에서 본 19세기 심설논쟁(心說論爭) – 사칠논쟁(四七論爭)에서 심설논쟁(心說論爭)까지– 」는 도론에 해당하는 글로서 조선 성리학 사상사의 흐름에서 19세기 심설논쟁이 지닌 위상을 사단칠정논쟁, 호락논쟁과 함께 '조선성리학의 3대 논쟁'으로 규정하고 학술적 의의를 조명했다. 16세기 중반에 시작된 사단칠정 논쟁과 18세기 초에 등장한 호락논쟁(湖洛論爭)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심설논쟁은 18세기 중엽 이래 서양세력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주리론(主理論)이 제기된 것이 발단이었다. 이 논쟁의 와중에 심(心)이 성(性)과 정(情)을 통섭한다는 의미의 심통성정

(心統性情)의 개념으로부터, 심을 '리(理)'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심은 기본적으로 '기(氣)'라는 주장이 나와 대립하였다. 또 심과 명덕(明德)은 같은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의 문제, 명덕은 '리'로 보아야 하는가, '기'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심설논쟁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서세동점과 항일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향후 3대 논쟁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이뤄진다면 조선 성리학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유지웅의 「한말 기호학계와 심설논쟁 – 기호학계의 상황과 심설논쟁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는 호락논쟁 이후 '리무위', '심시기'를 기반으로 하는 기호학계 내부에 다양한 학설들이 제기되면서 나타난 내부적 갈등과 변증 과정을 다룬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심주리의 성리설을 제시한 화서학파와 노사학파 그리고 리무위, 기유위, 성즉리, 심시기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였던 간재, 연재, 의당학파가 있었다. 이처럼 기호학계의 학문적 분화와 학파 분열의 과정에서 한말 기호학계를 비롯한 이 시기 성리학계를 특징짓는 심설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논쟁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도덕적 이상사회 건설의 궁극적 목적은 같았다.

김현우의 「이항로의 심설과 서학(西學) – 벽사록변(闢邪錄辨) · 아언(雅言) 양화(洋禍)를 중심으로–」는 이항로의 심설 형성에 미친 서학(西學)의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이항로에게 서학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원인을 분석하는 도구였다. 그는 기독교에 주안을 두어 서학을 보았다. 기독교를 인간보다는 신을 중시하는 종교로 인식하면서 인간의 도덕 주체성을 중시하는 유학에 대한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 과정에서

心은 인간의 주체성을 담보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갔다.

안유경의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연구 – 한주 이진상과 만구 이종기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는 이진상과 이종기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정재 유치명의 학문을 계승한 이종기와 한주의 논변은 심설논쟁의 발단을 제공한 한주와 정재의 논변의 연장이므로 이를 통해 한주와 정재의 핵심 쟁점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심을 '기의 정상'으로 본 주자 해석에 대해, 한주는 '기의 정상'을 리로 볼 것을 주장하지만, 만구는 '기의 정상'을 이기의 합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한주는 심을 리로 보려고 했으나 만구는 심을 이기의 합으로 보려 한 것이다. 이들 논쟁은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을 장식한 한주와 정재의 논변을 이은 것으로서 퇴계학파 내부에서 전개된 심설논쟁의 발단과 주된 논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은 낙동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하는 일군의 성리학을 '낙중학'으로 표방하며 성리학의 지역학적 가능성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타진해왔다. 2018년에는 그 마지막 주제로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 한주학파 재전 제자들과 영남 유현들의 활동과 사상'으로 특집을 기획하여 『한국학논집』에 총 8편의 논문을 실었다. 앞의 목록에서 제외된 논문도 있기에 전편을 기록해 둔다. 게재순으로 황지원의 「진암(眞庵)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운동(孔敎運動)과 금문경학(今文經學)」, 이행훈의 「省窩 李寅梓의 철학 지평과 실천」, 김낙진의 「重齋 金榥의 心卽理說 옹호와 활동」, 김기주의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의 학문 활동과 성리학적 특징」, 김현수의 「심산 김창숙의 유교 인식과 독립운동의 전개」, 임종진의 「한주학파의 성리학에 대한 심재 조긍섭의 비판」, 심도희의 「공산 송준필의 성리사상과 사회적 실천 운동」, 정

병석의 「中山 朴章鉉의 自尊哲學」이다.

황지원은 이병헌의 공교운동의 사상적 근거와 금문경학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 종교는 문명개화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요소이자 구국의 방도로 인식되면서 유교개혁과 함께 유교종교화운동이 왕성했다. 이병헌의 유교개혁론은 금문경학에 근거하며, 그 기본 과제는 『역경』의 신명론(神明論), 『중용』의 배천론(配天論), 『춘추 · 공양전』의 삼세설(三世說), 『예경』(예기)의 대동설(大同說)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금문경학이란 공교사상의 이론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문경학 체계도 『주역』과 『중용』을 가장 우선시했다. 또한, 공자의 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이나 리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를 성리학의 심성론에 의존했는데 여기서 한주학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행훈은 한주학을 계승한 이인재의 리와 심의 주재성을 검토하고 한주 성리학을 계승하면서도 서양 신학문을 수용에 주저하지 않았던 학문과 실천을 고찰했다. 이인재는 태극과 명덕의 의미를 고증하여, 리의 주재성과 심 본체의 완전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제강점에 따라 보국(保國), 보종(保種), 보교(保敎)를 시대적 과제로 자임한 이인재는 서양 학문을 수용하여 유교 쇄신을 모색했다. 서양 문명의 원동력을 고대희랍철학으로 인식한 것은 수시변동하는 기의 차원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도 변함없는 리를 추구한 철학 지평에서 기인한다. 전통 지식체계를 통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한 이인재의 서양 학술 · 문화 이해는 전파와 수용의 단선적 모형이 아니라 주체의 선택적 전유로 독해할 때 그 의미가 올바로 전달될 것이다.

김낙진은 한주학단의 종지인 심즉리설을 옹호한 김황의 심설논쟁

을 분석했다. 그가 그린 「東儒心學略圖」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온 여러 학파에 대한 한주학단의 평가가 반영된 심법 전수의 계통도이다. 주리학으로 자칭한 영남의 한주 학문을 가장 높이, 주기로 이름한 기호의 심학을 가장 낮게 평가한다. 따라서 기호의 주기학을 대표한 전우가 이진상과 곽종석을 비판한 것에 대응하여 주리학의 본질과 장점을 선양하는 것이 그의 성리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아울러 일상세계로부터 이탈한 20세기 유학의 몰락 양상도 조망했다.

김기주는 하겸진의 생애와 저술에서 성리학적 도통 수호를 국권 회복으로 연결한 학문과 지향에 주안을 두었다. 이를 통해 주자로부터 이황을 거쳐 이진상과 곽종석으로 이어지는 사문의 도통을 계승하는 것이 일생의 과제였음을 밝혔다.

김현수는 김창숙의 독립운동의 사상적 근거와 전개 양상을 고찰했다. 한주학을 계승한 심산은 의리를 중시하여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을 자신의 삶과 사회적 실천의 좌표로 삼았다. 독립운동은 외교적 노력, 경제기반 확충과 군대 양성, 무력 및 의열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임종진은 조긍섭의 한주학파 비판을 살폈다. 조긍섭은 이른바 지리적으로 한주학파와 가까웠으나 이른바 '퇴계학파의 적통'이라 일컫는 김성일을 자신의 사상적 계보로 삼았다. 이진상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성리설이 주희와 이황에 근거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한주학파의 여러 인물과 논쟁한 까닭이 여기 있다. 이진상이 편찬한 『이학종요』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곽종석과 수차례 서신을 통해 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기를 배제하려는 입장을 비판했다.

심도희는 영남 도학자인 송준필의 학문과 실천에 주목했다. 장복추

와 김흥락의 학설을 계승한 송준필은 이진상의 학설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송준필의 학문은 퇴계학을 기반으로 한 이상정과 유치명의 영향을 받았다. 송준필은 주리적(主理的) 관점에서 리기 관계를 인식하고, 심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았다. 심합리기(心合理氣)의 관점에서 한주학의 심즉리설(心卽理說)을 비판하면서 심을 기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폐해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송준필이 이진상과 철학적 관점을 달리했지만, 그의 제자들과 현실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일제에 항거하여 성주만세운동과 파리장서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정병석은 유가의 도학(道學)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자존(民族自尊) 의식을 고양에 애쓴 박장현의 자존철학을 고찰했다. 박장현은 유학의 개혁하여 인의(仁義)와 도덕을 회복하는 한편, 민족사를 확립하여 강건한 국민정신을 고취시켜 패배의식과 절망으로부터 국민을 구출하는 것을 급선무라 생각했다. 박장현은 일제에 의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심노(心奴) 상태를 극복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유가의 도학정신과 민족의식을 결합하여 자존의식을 고취하는 학문을 전개했다.

6. 평가와 전망

1) 한국 실학

한국 실학연구에서 경학사적 접근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경학 분야는 텍스트의 서지학적 연구, 주석사적 영향과 의의, 경학사적으로 주목받아온 용어나 특정 개념의 의미 변화를 다루는 연구가 주로 발표

되었다. 주목할 점은 첫째 사서에서 오경으로 특히 『주역』 해석 관련 연구가 증가한 점이다. 정약용의 『주역』 해석을 필두로 북학파와 성호학파의 해석 경향도 다루어졌다. 둘째는 실학자의 경전 해석이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개혁론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는 점, 즉 경전 해석의 수행성을 규명한 연구다. 박세당 『대학』 해석의 경세 지향적 특성처럼 본래 지와 행을 통합하는 유학 정신의 복원은 실학의 이념과 맞닿는다.

철학 분야에서는 성리학(자) 연구에서처럼 경전 해석학적 접근이나 예제론 분석 등 다양한 접근이 기대된다. 이는 향후 성리학과 실학을 비교 연구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성호학파의 사단칠정론 변증이나 홍대용, 이익, 신후담의 『소학』 해석을 다룬 일련의 연구, 주자학적 독법에서 본 최한기 등이 좋은 예이다. 이처럼 반주자학 · 탈성리학보다는 사상의 연속성 가운데 불연속성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실학의 철학적 특성이 분명해질 수 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흠흠신서』를 중심으로 국가론, 예제론, 형률론이 논의되었고, 유형원은 관제, 전제, 조세 제도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고, 유수원도 세제와 관제를 고찰한 논문이 있다. 실학자의 경세론을 비교한 연구로는 유형원과 이익의 정치적 평등론, 윤기와 정약용의 속전론이 있으며, 박제가와 정약용의 사족 인식을 다룬 논문도 발표되었다. 한동안 실학 경세론 연구의 공통된 근대성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개별 실학자의 저술과 사상을 사회제도개혁론과 연결하는 연구로 전환 추세가 뚜렷하다. 사실 삼정의 문란과 임병양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의 안정을 학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실학(자)의 경세론은 역사 현실에

대응하여 치인에 힘쓴 유학의 모습이다. 그러나 실학의 근대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조선후기 사상사의 일면만 부각함으로써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예를 들면 조선후기 심화된 심설논쟁 등 성리학 전개 양상을 외면하거나 실학을 반주자학 · 탈성리학으로 규정하여 철학사를 구조화함으로써 조선후기 사상의 다양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외에도 실학 관련 저술의 서지학적 · 지성사적 고찰, 호남실학에 주목한 실학의 지역학적 가능성 타진, 새로운 실학자의 발굴, 문학론, 예술론, 교육론 등 분야의 다양화, 수학, 의학, 과학 등 성리학과 비교해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분야의 성과에 대한 학술사적 평가 등을 분석함으로써 실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새로운 실학자의 발굴로 연구의 외연이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정약용을 다룬 연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술의 번역이나 기초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이나 학술적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모자라 실학자를 학회 차원에서 기획연구를 진행하면 여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연구를 촉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자별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는 것도 연구 전망을 밝게 한다. 아쉬운 점은 학자간 비교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점이다. 가령 윤기와 정약용의 속전론을 비교한 사례처럼 국가론, 세제론, 토지제도론 등을 놓고 여러 실학자의 안을 상호 비교한다면 시대별 · 학파별 주장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실학 연구가 심화될 것이다. 나아가 실학과 성리학을 비교하는 연구도 부족한 데, 조선후기 『중용』 해석을 다룬 박사논문처럼 경전 해석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향후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2) 한국 근대 유학

한국 근대 유학에서 성리학 분야는 심설논쟁과 영남 유학 연구가 더해져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더불어 실학과 비교해보면 특정 인물에 대한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새로운 성리학자가 발굴 · 소개되는 등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 또한 연구 심설논쟁과 낙중학 연구 기획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단칠정론과 호락논쟁이 한말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18세기 중엽에 발생한 심설논쟁과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현에 대한 집중적인 조망이 조선성리학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심설논쟁 연구가 보다 체계화되고 관련 문헌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 사단칠정논쟁이나 호락논쟁의 핵심 쟁점과 상호 비교하는 연구도 시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른바 낙중학은 현재까지 영남유학의 전모를 드러내는 데 치중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소개된 것도 하나의 성과이다. 향후 조선후기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근기나 호남 지역의 유학자들의 사상과 비교하면 각 지역의 성리학이 지닌 특성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두 기획 연구가 지속되어 한국 성리학의 깊이가 드러나고 중국 성리학과 다른 학술사적 가치 또한 밝혀지길 기대한다. 양명학 분야는 성리학에 비하면 연구성과가 많지 않은 편이다. 박은식을 다룬 논문이 많은 가운데, 강화학파와 정인보 정도가 있다. 조선시대 사상사의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런 결과이나 정제두를 제외하면 연구 외연의 확대가 아쉬운 상황이다. 이시원, 이건방, 이건창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성리학과 양명학 분야는 물론이고 기타 분야의 연구를 보면, 자신의 학문적 입장과 무관하게 국가적 위기에 대응한 유학의 이념과 실천

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사상적 예속으로 폄훼 · 왜곡되었던 한국 근대 유학의 진상이 밝혀지면 국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누명을 벗고 한국 근대 유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리라 기대해 본다. 철학 분야를 제외한 주제별 연구는 유교개혁론과 문명담론을 다룬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는 가운데 유학자의 독립운동을 고찰한 연구가 눈에 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독립 운동에 헌신한 유학의 정신적 가치와 현대 민주사회를 굳건히 하는 데 바탕이 된 유교 문화의 자원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유학의 현대적 재해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제7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김유곤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8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경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논문 선정 작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간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경학에 관한 주요 논문은 총 35편이 있었다. 경학에 관한 논문으로 선정한 기준은 유교 경전인 십삼경(十三經)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로 한정하였다. 35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민구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의 상서학(尙書學)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학회
2	강보승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대학』 해석과 격물치지론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3	길태은	간재(艮齋)의 경학사상 연구(-「대학기의(大學記疑)」의 주석(註釋) 체제(體制)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6	대동한문학회
4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 사전(四傳)에 대한 비판적 관점(-『춘추사전산오설(春秋四傳刪誤說)』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5	김동민	이진상(李震相) 『춘추집전(春秋集傳)』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6	김병애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주역』 해석(-『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의 효변(爻變)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7	김수경	이황(李滉) 『주역석의(周易釋義)』의 번역학적 고찰 시론(-조선시대 유가경전주석 번역해석학의 연구방법론 모델 탐색을 겸하여-)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8	김희영	박세당(朴世堂)의 『논어사변록(論語思辨錄)』을 통해 본 독자적 경전 주해(-『논어집주(論語集註)』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9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Ⅰ)(－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6	(사)율곡연구원
10	양원석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자학(字學)에 대한 연구(－다산 자학 연구의 범위 및 경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4	대동한문학회
11	엄연석	이언적(李彦迪)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와 『중용구경연의별집(中庸九經衍義別集)』의 경학사상사적 특색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12	엄연석	정약용(丁若鏞)의 소옹(邵雍)과 주희(朱熹) 『주역』 수리설 비판에 대한 재조명(－『역학서언(易學緖言)』의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와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을 중심으로－)	다산학 33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13	유민정	위백규(魏伯珪)의 수사학적 경전해석(－『맹자차의(孟子箚義)』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14	유정연	정제두(鄭齊斗)와 중강등수(中江藤樹)의 『대학』 해석 비교	양명학 50	한국양명학회
15	이동욱	양간(楊簡) 『서경』 주석의 특징 연구(－「가기이(家記二) : 논서(論書)」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이영호	경학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조선경학에서의 '고(古)'의 지향(－조선 논어학의 중요개념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5	대동한문학회
17	이영호	『서경』「홍범(洪範)」 해석의 두 시각, 점복(占卜)과 경세(經世)(－이휘일(李徽逸)·이현일(李玄逸)의 「홍범연의(洪範衍義)」 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18	이원석	이언적(李彦迪)의 『대학』 이해(－『대학』 편장 개정과 격물치지 개념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19	이은호	퇴계(退溪) 직전(直傳) 제자의 『상서』 읽기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1)(－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1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맹자』 해석(1)(－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22	임재규	16－17세기 조선 경학에 있어서 주자(朱子) 중화설(中和說)의 수용과 비판(－조익(趙翼)과 박세당(朴世堂)의 중화설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3	임재규	정약용(丁若鏞)과 주진(朱震)의 『주역』 해석 방법론 비교	공자학 36	한국공자학회
24	임홍태	왕수인(王守仁)과 손응오(孫應鼇)의 사서관(四書觀) 비교 연구(－『전습록(傳習錄)』과 『사서근어(四書近語)』를 중심으로－)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25	정일남 · 이향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문학과 『시경』	동방한문학 74	동방한문학회
26	조정은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경학사상에 나타난 수양관(－『논어천설(論語淺說)』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7	진성수	왕부지(王夫之) 사서학(四書學)의 특징과 청대 실학으로의 전환	동서철학연구 90	한국동서철학회
28	천병돈 노병렬	신작(申綽) 『역차고(易次故)』의 공부론 연구(－『역전(易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29	최석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대학』 해석 연구	남명학연구 5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0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양상과 특징(－도설(圖說)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6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1	한재훈	『대학사변록(大學思辨錄)』에 나타난 박세당(朴世堂)의 격물치지 해석과 주희(朱熹) 비판의 성격	철학탐구 51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32	한정길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대학』관(－주희(朱熹)의 『대학』 해석에 대한 반성의 한 양상－)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3	함영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학술정신과 『맹자사변록(孟子思辨錄)』	한국한문학연구 72	한국한문학회
34	황병기	경학사적 관점에서 본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중용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5	황인석	「대학」과 「학기(學記)」의 연계성 연구	공자학 36	한국공자학회

보고서 구성은 먼저 전체 35편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한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 일본 유학자를 다룬 논문으로 구별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연구 대상 경전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경전별로 의미 있는 논문 8편에 대해 분

석을 하고, 2018년 경학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짧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총 35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32편이다. 그 중에서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5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 일본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 한국 유학자와 중국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이 1편, 한국 유학자와 일본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이 1편이다.

1) 한국 유학자

한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25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룬 인물은 박세당(朴世堂)(서계(西溪), 1629~1703)으로 3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희영	박세당(朴世堂)의 『논어사변록(論語思辨錄)』을 통해 본 독자적 경전 주해(–『논어집주(論語集註)』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한재훈	『대학사변록(大學思辨錄)』에 나타난 박세당(朴世堂)의 격물치지 해석과 주희(朱熹) 비판의 성격	철학탐구 51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3	함영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학술정신과 『맹자사변록(孟子思辨錄)』	한국한문학연구 72	한국한문학회

2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이언적(李彦迪)(회재(晦齋)(1491~1553), 조익(趙翼)(포저(浦渚), 1579~1655), 정약용(丁若鏞)(다산

(茶山), 1762~1836)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엄연석	이언적(李彦迪)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와 『중용구경연의별집(中庸九經衍義別集)』의 경학사상사적 특색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2	이원석	이언적(李彦迪)의 『대학』 이해(-『대학』 편장 개정과 격물치지 개념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정은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경학사상에 나타난 수양관(-『논어천설(論語淺說)』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황병기	경학사적 관점에서 본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중용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양원석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자학(字學)에 대한 연구(-다산 자학 연구의 범위 및 경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4	대동한문학회
2	엄연석	정약용(丁若鏞)의 소옹(邵雍)과 주희(朱熹) 『주역』 수리설 비판에 대한 재조명(-『역학서언(易學緖言)』의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와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을 중심으로-)	다산학 33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13명으로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권근(權近)(양촌(陽村), 1352~1409), 이황(李滉)(퇴계(退溪), 1501~1570), 장현광(張顯光)(여헌(旅軒), 1554~1637), 이수광(李睟光)(지봉(芝峯), 1563~1628), 최명길(崔鳴吉)(지천(遲川), 1586~1647), 정제두(鄭齊斗)(하곡(霞谷), 1649~1736), 신후담(愼後聃)(하빈(河濱), 1702~1761), 위백규(魏伯珪)(존재(存齋), 1727~1798), 박제가(朴齊家)(초정(楚亭), 1750~1805), 신작(申綽)(석천(石泉), 1760~1828), 유희(柳僖)(서

파(西陂), 1773~1837), 이진상(李震相)(한주(寒洲), 1818~1886), 전우(田愚)(간재(艮齋), 1841~1922)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일남 이향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문학과 『시경』	동방한문학 74	동방한문학회
2	김수경	이황(李滉) 『주역석의(周易釋義)』의 번역학적 고찰 시론(－조선시대 유가경전주석 번역해석학의 연구방법론 모델 탐색을 겸하여－)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	최석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대학』 해석 연구	남명학연구 5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4	강민구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의 상서학(尙書學)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학회
5	한정길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대학』관(－주희(朱熹)의 『대학』 해석에 대한 반성의 한 양상－)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6	강보승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대학』 해석과 격물치지론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7	김병애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주역』 해석(－『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의 효변(爻變)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8	유민정	위백규(魏伯珪)의 수사학적 경전해석(－『맹자차의(孟子箚義)』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9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Ⅰ)(－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6	(사)율곡연구원
10	천병돈 노병렬	신작(申綽) 『역차고(易次故)』의 공부론 연구(－『역전(易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11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 사전(四傳)에 대한 비판적 관점(－『춘추사전산오설(春秋四傳刪誤說)』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12	김동민	이진상(李震相) 『춘추집전(春秋集傳)』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학교 동문화연구원
13	길태은	간재(艮齋)의 경학사상 연구(－「대학기의(大學記疑)」의 주석(註釋) 체제(體制)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6	대동한문학회

하나의 논문에서 2명의 학자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3편으로 조목(趙穆)(월천(月川), 1524~1606)과 이덕홍(李德弘)(간재(艮齋), 1541~1596), 조익(趙翼)(포저(浦渚) 1579~1655)과 박세당(朴世堂)(서계(西溪), 1629~1703), 이휘일(李徽逸)(존재(存齋), 1619~1672)과 이현일(李玄逸)(갈암(葛庵), 1627~1704)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각각 1편씩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은호	퇴계(退溪) 직전(直傳) 제자의 『상서』 읽기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임재규	16–17세기 조선 경학에 있어서 주자(朱子) 중화설(中和說)의 수용과 비판(–조익(趙翼)과 박세당(朴世堂)의 중화설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	이영호	『서경』「홍범(洪範)」 해석의 두 시각, 점복(占卜)과 경세(經世)(–이휘일(李徽逸)·이현일(李玄逸)의 「홍범연의(洪範衍義)」 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2) 중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3편으로 양간(楊簡, 1141~1226)과 왕부지(王夫之, 1619~1692)를 다룬 논문이 각각 1편씩 있고, 왕수인(王守仁, 1472~1528(?))과 손응오(孫應鼇, 1527~1584)를 비교한 논문이 1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욱	양간(楊簡) 『서경』 주석의 특징 연구(–「가기이(家記二) : 논서(論書)」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진성수	왕부지(王夫之) 사서학(四書學)의 특징과 청대 실학으로의 전환	동서철학연구 90	한국동서철학회
3	임홍태	왕수인(王守仁)과 손응오(孫應鼇)의 사서관(四書觀) 비교 연구(–『전습록(傳習錄)』과 『사서근어(四書近語)』를 중심으로–)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3) 일본 유학자

일본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 1622~1685)를 다룬 2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 (1) (－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맹자』 해석 (1) (－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3) 한국, 중국, 일본 유학자 비교

한국, 중국, 일본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은 2편으로 한국 유학자인 정약용(丁若鏞)(다산(茶山), 1762~1836)과 중국 유학자인 주진(朱震, 1072~1138)을 비교한 논문이 1편 있고, 한국 유학자인 정제두(鄭齊斗)(하곡(霞谷), 1649~1736)와 일본 유학자인 나카에 도주(중강등수(中江藤樹), 1608~1648)를 비교한 논문이 1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재규	정약용(丁若鏞)과 주진(朱震)의 『주역』 해석 방법론 비교	공자학 36	한국공자학회
2	유정연	정제두(鄭齊斗)와 중강등수(中江藤樹)의 『대학』 해석 비교	양명학 50	한국양명학회

3. 주제별 분류

이 보고서의 다른 분과에서는 주제별 분류의 기준으로 주로 경학 사상, 철학 사상, 교육 사상, 정치 및 경제 사상 등을 삼고 있다. 이 분과에서는 경학 사상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 기준을 연구 대상 경전으로 삼고자 한다. 총 35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33편이 경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연구 대상 경전별로 살펴보면 『대학』 관련 논문이 7편으로 가장 많고, 『역경』 6편, 『논어』 4편, 『중용』 4편, 『서경』 4편, 『맹자』 3편, 『춘추』 2편, 『시경』 1편이 있다. 또한 사서(四書)를 함께 다룬 논문이 2편 있다.

1) 『대학』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이언적(李彦迪)의 『대학』 이해(－『대학』 편장 개정과 격물치지 개념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2	최석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대학』 해석 연구	남명학연구 5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	한정길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대학』관(－주희(朱熹)의 『대학』 해석에 대한 반성의 한 양상－)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4	한재훈	『대학사변록(大學思辨錄)』에 나타난 박세당(朴世堂)의 격물치지 해석과 주희(朱熹) 비판의 성격	철학탐구 51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5	강보승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대학』 해석과 격물치지론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길태은	간재(艮齋)의 경학사상 연구(-「대학기의(大學記疑)」의 주석(註釋) 체제(體制)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6	대동한문학회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유학자와 일본 유학자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유정연	정제두(鄭齊斗)와 중강등수(中江藤樹)의 『대학』 해석 비교	양명학 50	한국양명학회

2) 『역경』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수경	이황(李滉) 『주역석의(周易釋義)』의 번역학적 고찰 시론(-조선시대 유가경전주석 번역해석학의 연구방법론 모델 탐색을 겸하여-)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김병애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주역』 해석(-『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의 효변(爻變)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3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Ⅰ)(-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6	(사)율곡연구원
	천병돈 노병렬	신작(申綽) 『역차고(易次故)』의 공부론 연구(-『역전(易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엄연석	정약용(丁若鏞)의 소옹(邵雍)과 주희(朱熹) 『주역』 수리설 비판에 대한 재조명(-『역학서언(易學緖言)』의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와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을 중심으로-)	다산학 33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유학자와 중국 유학자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재규	정약용(丁若鏞)과 주진(朱震)의 『주역』 해석 방법론 비교	공자학 36	한국공자학회

3) 『논어』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정은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경학사상에 나타난 수양관(-『논어천설(論語淺說)』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김희영	박세당(朴世堂)의 『논어사변록(論語思辨錄)』을 통해 본 독자적 경전 주해(-『논어집주(論語集註)』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이영호	경학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조선경학에서의 '고(古)'의 지향(-조선 논어학의 중요개념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5	대동한문학회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 (1) (-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4) 『중용』

『중용』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엄연석	이언적(李彦迪)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와 『중용구경연의별집(中庸九經衍義別集)』의 경학사상사적 특색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2	황병기	경학사적 관점에서 본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중용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	임재규	16－17세기 조선 경학에 있어서 주자(朱子) 중화설(中和說)의 수용과 비판(－조익(趙翼)과 박세당(朴世堂)의 중화설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양상과 특징(－도설(圖說)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6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5) 『서경』

『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은호	퇴계(退溪) 직전(直傳) 제자의 『상서』 읽기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강민구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의 상서학(尙書學)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학회
3	이영호	『서경』「홍범(洪範)」 해석의 두 시각, 점복(占卜)과 경세(經世)(－이휘일(李徽逸)·이현일(李玄逸)의 「홍범연의(洪範衍義)」 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서경』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욱	양간(楊簡) 『서경』 주석의 특징 연구(–「가기이(家記二) : 논서(論書)」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 『맹자』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학술정신과 『맹자사변록(孟子思辨錄)』	한국한문학연구 72	한국한문학회
2	유민정	위백규(魏伯珪)의 수사학적 경전해석(-『맹자차의(孟子箚義)』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맹자』 해석 (1) (-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7) 『춘추』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 사전(四傳)에 대한 비판적 관점(-『춘추사전산오설(春秋四傳刪誤說)』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2	김동민	이진상(李震相) 『춘추집전(春秋集傳)』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8) 『시경』

『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일남 이향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문학과 『시경』	동방한문학 74	동방한문학회

9) 기타

중국 경학과 관련하여 사서(四書)를 함께 다룬 논문이 2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홍태	왕수인(王守仁)과 손응오(孫應鼇)의 사서관(四書觀) 비교 연구(-『전습록(傳習錄)』과 『사서근어(四書近語)』를 중심으로-)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2	진성수	왕부지(王夫之) 사서학(四書學)의 특징과 청대 실학으로의 전환	동서철학연구 90	한국동서철학회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1) 『대학』 관련

『대학』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대학』 이해를 다룬 「지천 최명길의 『대학』관(-주희의 『대학』 해석에 대한 반성의 한 양상-)」(한정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명길의 『대학』 이해의 특징을 그의 저술인 『대학기의(大學記疑)』와 『대학관견(大學管見)』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기의』는 주희의 『대학장구』 체제와 그 의리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대학관견』은 『대학』에 대한 최명길의 독특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파악한다. 최명길의 『대학』 이해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는 『대학』의 체제에 대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

는『대학』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명길은『고본대학(古本大學)』체제를 수용하고, 주희의『대학장구』체제를 낱낱이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이유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명길이『고본대학』체제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왕수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왕수인이『고본대학』을 정본(定本)으로 본 반면에, 최명길은『고본대학』에 결함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대학』의 철학적 의미에 관한 부분은 삼강령(三綱領)에 대한 이해, 지지이후유정(知止而后有定)장의 안(安)과 려(慮)에 대한 이해, 격물(格物)에 대한 해석, 성의(誠意) 공부 등에 대해, 주희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명길의『대학』해석의 특징을 통해 최명길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대학』을 연구함으로써 자신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당시 조선의 학술 풍토에서 주자학의 권위에 도전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 점에서, 최명길의『대학』이해는 조선 경학사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역경』관련

『역경』과 관련해서는「정약용(丁若鏞)의 소옹(邵雍)과 주희(朱熹)『주역』수리설(數理說) 비판에 대한 재조명(-『역학서언(易學緖言)』의「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와「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을 중심으로-)」(엄연석)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옹과 주희의『주역』수리설과 정약

용의 『역학서언』에 포함된 평론으로서 「주자본의발미」와 「소자선천론」에 나타난 정약용의 수리설을 비교하여, 이들 사이의 상관적 특성과 차이를 재조명하고 있다. 또한 정약용이 소옹의 선천 수리역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반면, 주희의 수리역학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수용하면서 이론적 한계를 비판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옹의 수리설을 중심으로 하는 선천역학 사상이 괘효상을 수리의 연산과 결합하여 자연과 사회역사를 설명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소옹의 학설에서는 태극을 말하기는 하지만, 주희가 말한 도덕적 근원으로서의 리(理)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파악한다. 이에 비하여 주희는 『주역』을 상수역학과 변역(變易)의 관점에서 보았으나, 궁극적 목표에서는 의리역학적 특색을 가지는 만큼, 부분적으로 상수역학 이론을 제시하면서도 기(氣)와 상수에 대한 리(理)의 우선성을 견지한다고 파악한다. 반면에 정약용은 경험주의적 현상론의 관점에서 드러난 괘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괘의 역동적 변화 양상에 대한 여러 이론적 설명체계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길흉회인(吉凶悔吝)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지만, 현상론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때로 14벽괘에 대한 설명과 가일배법(加一倍法)에 대한 설명에서는 정합적이지 않은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정약용은 소옹의 수학은 주로 비판하였으나, 주희의 변역 이론은 옹호하면서도 역리사법(易理四法)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론적 수리역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정약용의 역학을 구성하는 중심개념을 요약한다면 자연의 여러 변화의 수리적 질서와 변화를 뜻하는 '추(推)'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논어』 관련

『논어』와 관련해서는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 (1)(–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임옥균)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코가 『논어』라는 책은 말은 친근하지만 멀리까지 적용된다고 하여 『논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논어』는 『대학』의 효험을 보여주는 책이며, 일상생활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소코는 성인의 학문의 큰 강령인 격물치지를 밝혀준 것은 『대학』이고, 『논어』는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파악하여, 『논어』의 많은 장들을 실제로 대상에 나아가 앎을 이루어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소코는 보통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부귀를 추구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으로, 천하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코는 효제와 인의 관계에 대해서 성인 문하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 있으므로, 효제를 놓아두고 인(仁)을 논하는 것은 일상생활 이외에 인을 구하는 공부를 따로 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효제하면 인의(仁義)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효제가 인의 근본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파악한다. 정자나 주자가 인이 본체이고 효제를 그 작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효제가 인의 근본이라고 해석할 수 없었고,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소코는 인과 효제의 관계를 본체와 작용의 관계로 본 정자와 주자의 견해를 비판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주자는 경(敬)을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 풀이했는데, 소코는 경을 외면적 일과 분명하게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내면적

인 마음과 관련짓는 것을 애초에 부정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코는 『논어』를 해석하면서 일본이야말로 중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코가 일본이 바로 중화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국토는 만방에 우뚝"하고 "인물들이 천하에서 빼어나고 뛰어나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인의 다스림이 이어져서", "문물은 찬란하고 무덕(武德)은 빛났다."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화(華)와 이(夷)를 가르는 기준이 문화[문덕(文德)]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소코가 이처럼 일본을 중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의 하나로서 무덕을 제시한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소코의 이러한 생각은 모토오리 노리나가, 미토학으로 계속 이어지며, 막부 말의 조선침략론이나 명치유신기의 정한론(征韓論)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소코의 『논어』 해석을 통해서 주자학이라는 외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일본이라는 토양에 맞게 토착화하려는 고학파로서의 소코의 모습과 함께, 그것이 보편성을 상실하고 자국중심주의로 흐를 때 갖는 위험한 모습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4) 『중용』 관련

『중용』과 관련해서는 「이언적(李彦迪)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와 『중용구경연의별집(中庸九經衍義別集)』의 경학사상사적 특색」(엄연석)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언적이 지은 『중용구경연의』와 『중용구경연의별집』이 주희의 성리학적 중용관과 비교하여 어떤 경학사상사적 특색과 함께 그의 경학사상의 전체적 체계 속에서 이들 저술이 가지는 경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조선 전기 경학

사상이 문화다원론적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점을 『중용구경연의』와 『별집』의 경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언적이 『중용구경연의』에서 『중용』 가운데 주로 구경(九經)에 초점을 맞추어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요점으로서 구경을 강조하며 이것을 행하기 위한 덕목을 성(誠)으로 보고 이를 위한 수양의 근거를 『대학』의 격치성정(格致誠正)에서 보완해야 함을 주장한다고 파악한다. 특히 이언적이 『중용구경연의』를 임금에게 올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음으로써 여기에 제왕학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언적은 임금이 통치를 행하는 제왕학적 관점에서 재상이나 신하를 등용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또한 하늘이 상서(祥瑞)와 재앙을 내리는 것은 임금의 덕이 한결같은지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이언적이 천리와 인욕을 대비하여 임금의 덕을 말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지만, 또한 이언적이 제왕이 순일한 마음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언적의 『중용』의 구경에 대한 인식이 임금의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는 제왕학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5) 『서경』 관련

『서경』과 관련해서는 「퇴계 직전 제자의 『상서』 읽기」(이은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퇴계의 직전 제자인 조목(趙穆)과 이덕홍(李德弘)의 상서학의 단면을 파악하고 있다. 조목의 『상서의의(尙書疑義)』는 퇴계의 『서석의(書釋義)』의 형식을 그대로 준용하면서도 『서석의』와 중복되지 않게 내용을 부가하였는데, 특히 『서집전(書集傳)』의 채침주(蔡沈注)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퇴계의 『서석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곳은 퇴계학파의 상서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이덕홍은 「홍범(洪範)」을 중심으로 하는 유가적 질서에 주목하였는데, 우주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나,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덕행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이덕홍의 「홍범월행구도(洪範月行九道)」에 잘 나타나 있고, 경전 상호간의 모순을 고민하는 모습은 실천학문의 전제로서의 경전의 의구심을 먼저 해소하려는 진실한 학문적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조목과 이덕홍은 스승인 퇴계 이황의 상서학을 직접 사승(師承)하면서 사설(師說)의 심화를 도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6) 『맹자』 관련

『맹자』와 관련해서는 「위백규(魏伯珪)의 수사학적 경전해석(–『맹자차의(孟子箚義)』를 중심으로–)」(유민정)이 있다. 이 논문은 위백규의 『맹자차의』에 대한 연구로 그 특징과 경학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맹자차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전의 문장에 수사적 비평을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어휘 배열과 문장 구성, 표현 기초 등에 초점을 두고 경전의 문장을 해석하였다는 의미로, 이 논문에서는 이를 '수사학적 경전해석'으로 명명하고 있다. 위백규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은 대부분 객관성과 타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백규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이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고증이 아닌 주관적인 추론이라는 점에서 자의적 요소를 띠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일정한 흐름과 체계를 가지고 조선에서 드물게 '수사학적 경전주석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독자성과

의의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춘추』 관련

『춘추』와 관련해서는 「이진상(李震相) 『춘추집전(春秋集傳)』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김동민)가 있다. 이 논문은 이진상의 『춘추집전』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서, 이진상의 춘추학이 지닌 학문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진상의 『춘추집전』은 『춘추』 분야의 성리학적 이론을 종합함으로써 『춘추』를 통해 조선조 성리학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진상은 주자의 시각에서 기존의 대표적인 주해서의 장점을 선별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자의 이론으로 절충했으며,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주자가 못 다한 뜻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춘추집전』을 구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진상은 주자의 이론에 기반한 성리학적 춘추학의 전형을 확립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진상의 그러한 구상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먼저 이진상은 성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춘추』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책이 성리학에 기반한 춘추학임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자의 이론에 근거하여 『춘추』의 대표적인 주해서인 사전(四傳)의 장점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춘추』의 주자적 해석을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진상이 성리학적 관점과 주자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성리학적 춘추학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8) 『시경』 관련

『시경』과 관련해서는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문학과 『시경』」(정일남 · 이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권근의 『시경』 이해 및 권근의 시(詩)와 『시경』의 관련 양상을 파악하고 있다. 권근의 『시천견록(詩淺見錄)』은 『시경』을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비롯하여 성정지정(性情之正), 감발선심(感發善心)의 시로 인식하였다면, 기타 시문(詩文)에서는 특히 『시경』의 비흥(比興) 예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사장학에 관심을 가졌던 양촌의 문학관과 맥이 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촌의 시는 『시경』의 성리학적 내용에 주목하여 『시경』의 시지(詩旨)나 시어(詩語)를 원용 내지 변용함으로써, 시의 함축성 내지 언어의 세련미에 대한 추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양촌이 『시경』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여말선초의 혼란한 시국 및 그에 따른 윤리적인 타락을 치유하고, 문학적으로는 시문의 재도(載道)적 역할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중시된 사장학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 평가와 전망

앞으로 한국 경학 연구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각 경전별로 경학사가 서술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한국 경학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18년 경학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 측면에서 기존에 많이 연구 되지 않았던 최명길의 『대학』, 위백규의 『맹자』, 신작의 『역경』, 유희의 『춘추』, 이진상의 『춘추』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제8장

한류 관련 연구

임태홍

1. 머리말

'한류'는 중국과 대만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한류는 그동안 아시아지역에 전파된 뒤,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북남미로, 그리고 인도, 중동지역을 넘어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이 보고서는 '한류와 유교문화'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논문을 소개하였으나 한류는 이미 유교문화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버렸다. 유교문화는 사실 기껏해야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한국, 베트남에 전해진 것으로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4개국의 아주 작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지금 한류는 그런 유교문화권의 범위를 넘어 유교를 전혀 접하지 못한 더 많은 세계인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금년 보고서는 이러한 한류를 좀 더 넓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한류 연구와 함께, 일본과 중국 그리고 영어권의 한류 연구를 살펴보고 지금 한류가 어디에 서 있는지 가늠해보기로 한다.

2. 한국의 '한류' 연구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에서 키워드로 '한류'를 검색해 보면(초록 · 목차 · 본문 제외조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검색된다. (2019년 11월 10일 기준)

자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서자료	47	36	37	26	20
학위논문	92	101	107	83	68
학술기사	477	555	708	484	340
합계	616	692	852	593	428

이러한 통계 자료는 작년에 보고한 「2017년 '한류와 유교' 연구 동향」의 검색 결과와 약간 다르다. 예를 들면 학술기사의 경우 작년에는 2014년이 331편, 2015년이 396편, 2016년이 527편이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작년 이후로 새로운 자료가 꾸준히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금년에 검색한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국내의 한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보인다.

첫째, '한류'관련 단행본 출판은 2014년도 이래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둘째, 학위논문과 학술기사(일반 논문)도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었다.

셋째, 2018년의 한류 연구 성과는 2016년의 1/2정도로 줄어들었으며 2014년과 비교해도 2/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일까? 혹시 한류 자체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까지 진출하여 성공한 BTS의 활약이나 2017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여국에 개봉하고 그해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에 7번째로 이름을 올린 것을 생각해보면 한류가 아직 침체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연구 성과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이것은 아마도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서 호기심을 일으키는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화, 생활화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말하자면 초기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화제성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이제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로 한류를 연구하기가 갈수록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류'라고 하는 단어 개념이 이미 너무 커져버려서 연구자들이 키워드로 '한류'를 선택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류가 K-pop,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 뷰티, 음식 등 다양하게 확산, 발전하면서 한류 전체를 하나의 연구에 담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즉 전체보다는 각 분야를 더욱 세밀하게 연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은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면 K-pop의 경우를 살펴보자.

자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서자료	12	16	9	7	6
학위논문	31	26	22	22	22
학술기사	58	56	62	49	59
합계	101	98	93	78	87

표는 'K-pop'을 키워드로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다. 표를 보면 2014년 이래로 'K-pop'연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자료는 2014년에 비교하여 2018년에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학술기사 편수를 비교해보면 2016년에 비해 2018년의 발표 건이 단지 6편이 줄었으며 2018년은 2017년보다 9편의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위논문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모두 22편으로 변화가 없다.

2018년에 단행본으로 발표된 K-pop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제목
1	『아이돌의 작업실 – 케이팝 메이커 우지, LE, 라비, 방용국, 박경의 음악 이야기』(박희아, 위즈덤하우스, 2018)
2	『케이팝의 작은 역사 : 신감각의 미디어』(김성민, 글항아리, 2018)
3	『K팝 메이커스 – K팝의 숨은 보석, 히든 프로듀서』(민경원, 북노마드, 2018)
4	『K–pop live : fans, idols, and multimedia performance』(Suk–Young Kim,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8)
5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 농지개혁에서 K–pop까지』(최광 편저, 북앤피플, 2018)
6	『문화력으로서 한류 이야기』(최창현 등, 박영사, 2018)

위의 6번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목에 '한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는 '한류'로 검색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한류 연구 중에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18년의 K-pop 관련 학위논문의 주제를 보면 중국 관련 연구가 6편, 방탄소년단 관련 3편, 발전방향 2편, 멜로디 관련 2편, 댄스관련 2편, 노래 가사, 뮤직비디오, 공연, 뷰티, 일본 등 관련 연구가 각각 1편 그리고 기타가 2편이다. 중국 관련 연구가 많은 것은 한국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이 K-pop을 주제로 연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한류' 연구 결과로 돌아가서 2018년 20권이 발간된 단행본의 출판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주요 서적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제목
1	『(2018) 지구촌 한류현황 1–4』(한국국제교류재단, 2018)
2	『한류와 문화정책 : 한류 20년 회고와 전망』(김정수 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편, 2018)
3	『(2017) 한류백서』(김영수 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편, 2018)
4	『동남아시아 한류스토리』(김용락외 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5	『(2018) 글로벌 한류 트렌드 – 전 세계로 스며드는 한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남상현 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6	『(2017) 한류 파급효과 연구 – 융복합시대 新성장동력 : 한류의 가치분석 연구보고서』(전종근 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편, 2018)
7	『(2018)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이들 서적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편집하거나 출판한 것으로 한류 현황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단행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간되었다.

번호	제목
1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박장순, 북북서, 2018)
2	『문화력으로서 한류 이야기』(최창현 외, 박영사, 2018)

여기에 들지 않은 11권은 한류 자체 현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서적들이다. 예를 들면 교육한류 실현 방안과 관련된 책 1편, 연예산업 현장 르포 1편, 한류 빅데이터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책 1편, 한류 스토리콘텐츠 관련 연구 1편, 이너뷰티후드 개발 관련 1편, 동남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서적 1편, 고구려 관련 서적 1편, 다문화 관련 1편, 쇼핑관광 관련 1편, 산업한류 관련 서적 1편 등이다. 2018년의 단행본 중에 한류에 담긴 사상이나 철학 혹은 한류 현상의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박장순의 저서 외에는 거의 없다.

2018년 한류 관련 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총 68편 중에 중국 관련 연구가 26편을 차지한다. 그리고 베트남 관련 연구가 8편, 화장품 혹은 뷰티 관련 연구가 7편, 드라마 관련 연구가 4편, 관광이 4편, 일본 관련 연구가 3편, 마케팅, 몽골, K-pop 관련 연구가 각각 2편이다. 이 외에 한국어, 한식, 입양인, 산업 트랜드, 우즈베키스탄, 대만 관련 연구가 각 1편씩이다. 이 중에 중국 연구나 베트남 관련 연구가 많은 것은 한국에 유학 온 두 나라의 유학생들이 그러한 주제를 선호하여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때문이다. 이들 학위 논문도 대개의 연구는 신문방송학이나 관광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 혹은 예술학에 속한 것들로 철학사상이나 역사 등 인문학적인 시각의 연구는 거의 없다.

3. 일본의 '한류' 연구

지난 2016년의 '한류와 유교문화' 연구동향 보고서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논문 발표수를 그래프로 제시한 적이 있다. 일본의 학술 논문사이트(http://ci.nii.ac.jp/)에서 검색어 '韓流'로 검색한 결과인데 한류 연구가 가장 많을 때는 2005년에 180편 정도였다. 〈겨울연가〉가 2003년에 일본에서 크게 성공하고 이어서 나타난 한국 드라마 붐이 초래한 결과였다.(제1차 한류붐) 그 이후로 점차 줄어서 2009년에는 20여 편으로 줄었다가 2011년에 다시 80편으로 급증하고 그 이후로 2015년에는 20여 편으로 줄었다. 2011년경에는 소녀시대, 카라, 동방신기, 빅뱅 등이 일본에 진출하여 K-pop붐을 일으킬 때였다.(제2차 한류붐)

그렇다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가? '한류'와 'K-pop'으로 앞서 언급한 일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2014년부터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검색 결과는 일반잡지 기사도 포함된다.)

검색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한류'	26	18	14	6	13
'K-pop'	2	3	4	2	37
합계	28	21	18	8	50

'한류' 관련 논문이나 기사는 2014년 이후 조금씩 줄고 있다. 다만 2017년에 6편까지 줄었던 것이 2018년에는 다시 13편으로 늘어났다. 주요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에서 '한류'방송 콘텐츠의 변용과 한중관계의 영향」(松田春香, 『コミュニケーション文化論集 : 大妻女子大学コミュニケーション文化学会機関誌』16, 2018)
2. 「진화하는 한류 드라마가 재미있다」(『週刊朝日』123(15), 2018.3.23.)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현상과 과제: 오카야마현 대학 · 고등학교의 '제2차 한류붐'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朴珍希, 『岡山県立大学教育研究紀要』2(1), 2018.3.31.)
4. 「한일관계는 최악, 그렇지만… TWICE, SEVENTEEN 제3차 한류붐은 대단하다!」(『サンデー毎日』, 97(26), 2018.5.20.)
5. 「'한류드라마'에 속은 미국 : 진화하는 한국의 '북조선화'」(石平 등, 『Voice』(487), 2018.7)
6. 「제3차 한류붐도 허망하게 자멸!?」(『KAZUYA Japanism』46, 2018.12)

이외 7편 정도의 기사가 더 있는데, 한류와 별로 관련되지 않는 글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위의 자료 중에서도 5번과 6번 자료는 반한 혹은 반한류 자료이다. 그 외는 한류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류에 대해서 본격적이고도 제대로 된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K-pop'관련 연구가 평균 그동안 3편정도 발표되었는데, 2018년에 37편으로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중에 33편은 하나의 잡지(『유리카(ユリイカ)』)에 특집으로 실린 논문이나 기사들이다. 나머지 4편은 다른 잡지에 실린 것들이다. 그 면면을 주요한 것들만 골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K-pop 팬과 그 Twitter 이용에 관한 고찰」(清水暁子, 『早稲田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別册』(26-1), 2018

2.「붐이 다시, 한류 K-pop 최전선 2018」(『週刊朝日』123(4), 2018.1.19.)
3.「트랜드 K-pop은 세계를 노린다 : BTS뿐만이 아니다! 지금 주목하는 '차세대'」(酒井 美絵子, 『Aera』31(51), 2018.10.29.)

위에 소개한 기사들은 게재된 잡지들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이 다음에 소개할 기사들은 모두 세이도샤(青土社)가 발간하는 잡지 『유리카(ユリイカ)』(2018.11)에서 K-pop특집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특집은 'K-pop 연구: BTS, TWICE, BLACKPINK에서 'PRODUCE 101'까지… 지금 〈한국음악〉에 무엇이 일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K-pop이라고 하는 현상', '음악이 가져오는 행운', '대담', '피 · 땀 · 눈물', '확장하는 양식', '메일 인터뷰', '한일을 왕래한다', '기적의 궤적'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K-pop 현상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

4.「K-pop 걸그룹의 일본진출, 그 격동의 20년과 현재」(まつもと たくお, 『ユリイカ』50(15), 2018.11)
5.「K-pop 팬덤의 사회학 : 일본 여성들의 '놀이'의 변천」(吉光 正絵, 『ユリイカ』 50(15), 2018.11)
6.「Soul과 Seoul을 이어주는 것 : 블랙 뮤직 전문가의 K-pop론」(丸屋 九兵衛, 『ユリイカ』 50(15), 2018.11)
7.「힙합 아이돌: K-pop과 힙합의 복잡한 관계」(soulitude , 鳥居 咲子 『ユリイカ』 50(15), 2018.11)
8.「미국문학 박사의 이상한 애정: 나는 어떻게 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K-pop을 사랑하게 되었는가」(大和田 俊之, 『ユリイカ』 50(15), 2018.11)
9.「TWICE의 댄스 사운드에 보이는 'EDM화하는 팝스'와 어울리는 법」(imdkm, 『ユリイカ』 50(15), 2018.11)

10.「음악공간의 자율과 타율 : 'BTS×아키모또 야스시(秋元康) 코라보' 중지소동으로 묻는 K-pop의 장소」(金成玟, ハン トンヒョン,『ユリイカ』50(15), 2018.11)
11.「BTS라고 하는 공통선과 팬덤 : K-pop의 '소셜 메디아적인 상상력'을 생각한다.」(金成玟,『ユリイカ』50(15), 2018.11)
12.「바깥을 보는 팬덤: 어떤 ARMY의 이야기에서」(巣矢 倫理子,『ユリイカ』50(15), 2018.11)
13.「K-pop과 디자인」(Erinam,『ユリイカ』50(15), 2018.11)
14.「젠다의 규범을 뒤흔드는 K-pop 아이돌의 가능성 : 동성애적인 키와 패권적인 보아」(鈴木 みのり,『ユリイカ』50(15), 2018.11)
15.「복합적인 미의식」(倉田 佳子,『ユリイカ』50(15), 2018.11)
16.「국제-POP의 공간을 꿈꾸며」(藤原 倫己,『ユリイカ』50(15), 2018.11)
17.「'PRODUCE 48'에서 보인 'K-pop과 J-POP의 진정한 차이'」(君塚 太,『ユリイカ』50(15), 2018.11)
18.「한국음악의 변경에서 : 혹은 하위문화로서 K-pop」(古家 正亨,『ユリイカ』50(15), 2018.11)
19.「대중음악이 비추는 한국의 1990년대」(平田 由紀江,『ユリイカ』50(15), 2018.11)
20.「K와 POP을 둘러싼 감염력의 100년」(影本 剛『ユリイカ』50(15), 2018.11)
21.「팬 픽션(Fan Fiction)문화가 K-pop씬에 초래한 일」(宣 政佑,『ユリイカ』50(15), 2018.11)
22.「현대 K-pop가이드 : 다섯 가지 키워드로 듣고 보는 50곡」(金成玟,『ユリイカ』50(15), 2018.11)
23.「일본에서 K-pop 수용의 역사적배경에 관한 고찰 :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를 중심으로」(山本 浄邦,『ユリイカ』50(15), 2018.11)

연구의 면면을 보면 매우 심층적이고도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학계의 수준 높은 안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은 1990년대 아시아에서 '일류(日流)'라고 불리던 유행음악의 선두주자였다. 그런 경험이 음악연구에 잘 축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성이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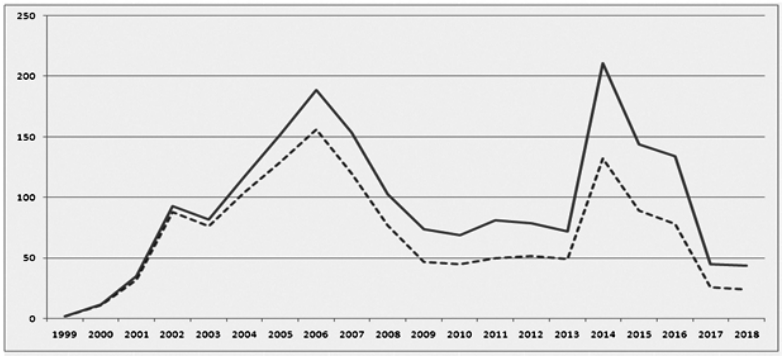
일본의 한 잡지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K-pop을 조망하는 특집을 꾸민 것은 최근에 BTS 등이 서구권에서 쟁취한 K-pop의 성과가 그만큼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 K-pop이 해냈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는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욕을 엿볼 수 있는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K-pop그룹인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의 활약으로 제3차 한류붐이 일어나고 있다. 10대, 20대들이 주축이 되어 K-pop과 한글, 음식, 패션, 뷰티,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사정은 '제3차 한류붐'이라 불리며, 다음과 같은 기사에 잘 소개되어 있다.

1. 「여자 고등학생이 빠진 제3차 한류붐의 정체」
(『東洋經濟online』, 2018.5.18.https://toyokeizai.net/articles/-/220437)
2. 「제3차 한류 붐 - 젊은 여성이 K-Culture에 빠지는 이유」(日經 X TREND, 2018.5.2., https://xtrend.nikkei.com/atcl/trn/pickup/15/1003590/042401672/)
3. 「제3차 한류 붐이 들끓는 코리아타운 신오쿠보의 빛과 그림자」(桐島クジャク,『マネー現代』, 2018.8.25.,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6570)

4. 중국의 '한류' 연구

다음 표는 중국의 학술 논문사이트(中國知網, http://www.cnki.net/)에서 '한류(韓流)'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를 표로 그려본 것이다.(이 사이트는 신문기사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한류'관련 논문 편수 추이(검색사이트: CNKI, 검색일: 2019.11.13.)

검색 기간은 1999년에서 2018년까지이며, 실선은 '주제(主題)'로 검색한 결과이며, 점선은 '제목명(篇名)'으로 검색한 결과다.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주제'로 검색할 경우, 논문이나 기사 제목에는 '한류'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용은 한류를 언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논문 제목에 '한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한류를 연구주제로 삼아 글을 썼다는 의미다. '한류'가 들어가 있지 않는 글은 부차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한류를 논한 경우에 속한다. 그래프를 보면 2006년의 경우는 논문 제목에 한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33편이 있는데, 2014년에는 그 두배 가까운 79편이나 된다.

예를 들면 2014년에 '한류'를 타이틀에 넣지 않고 한류를 논한 경우

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한국 드라마는 왜 중국에 풍미하는가?(韓劇為何風靡中國?)」(文婕,『中國品牌』, 2014.12.08)
2.「의료 관광 산업: 한국 경제의 새로운 매력(醫療觀光產業:韓國經濟新魅力)」(蘇貝,『中國品牌』, 2014.12.08.)
3.「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의 한국 전승과 발전(中國儒, 釋, 道思想在韓國的傳承與發展)」(『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11.15.)

3번 자료와 같은 경우는 중국 유교 사상 등을 한류와 연계시켜 논한 글이다. 한류가 중국인들의 자기 사상을 바라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문화입국의 시각에서 본 한국 드라마 열풍(文化立國視野下的韓劇熱潮)」(王爽,『新聞研究導刊』, 2014.10.25)
5.「〈강남스타일〉의 유행으로 본 중국의 문화전략 선택(透過《江南style》的流行看中國的文化戰略選擇)」(孫海龍,『韓國研究(第十二輯)』, 2014.10.1.)
6.「한국문화 수출 패턴과 영향 연구(韓國文化輸出模式及影響研究)」(孫巖,『吉林大學』, 2014.5.1)
7.「한국정부는 어떻게 판권 거래를 추진하는가(韓國政府如何推動版權交易)」(裴秋菊,『中國文化報』, 2014.4.5)

이와 같이 2014년의 경우 한류 자체를 논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주제를 한류와 연계시켜 연구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류가 중국 지식인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인 자극이 되었다는 것

이다.

중국에서 소위 '한류'에 관한 문장은 199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류'라는 단어 역시 중국에서 시작했다. 표를 보면 중국의 한류는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1차 붐이 있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차 붐,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제3차 붐이 있었다. 2002년에는 〈가을동화〉가, 2005년 말에서 2006년 초에는 〈대장금〉이 중국 전역에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4년에는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붐을 일으켰다.

2018년 현재는 그러한 붐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서 '붐'이란 연구자들의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붐이다. 말하자면 연구 결과 수치를 보고 판단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한류 분위기는 또 다를 수 있다.

2017년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사일방어 시스템(사드)을 배치를 하자 중국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문화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여파가 표에 2017년과 2018년의 그래프 추이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표를 보면 2015년, 2016년에 이미 중국 연구자들 가운데에서 한류 연구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초에는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크게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그런 추세가 사스사태를 계기로 더 심화된 것이다.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조치가 나오기 전부터 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 한류를 연구 주제로 삼는 사례가 줄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8년 중국의 '한류' 연구 중에는 대만정치가 '한국유(韓國瑜)'가 까오슝시(高雄市) 시장선거에서 일으킨 돌풍도 '한류(韓流)'하고 칭하

며 집필한 기사도 5편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사는 어떻게 보면 한류를 외면하고자 하는 중국 지식인들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해볼 수 있다.(참고로 한국유는 친중파 대만 정치인이다.)

2018년의 한류 연구관련 주요 논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대중국어 단어의 '악성 한국어화' 현상 고찰(現代漢語詞匯的"惡性韓化"現象探析)」(于婧, 『紅河學院學報』, 2018.9.27.)
2. 「한류의 중국 고교학생에 대한 영향 연구(韩流对中国高校学生的影响研究—以重庆大学城为例)」(左崚倩, 『今传媒』, 2018.12.5.)
3. 「한류의 문화산업 수출이 중국 청년층 가치관에 미친 영향 - 우리 문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계시로서(浅谈"韩流"文化产业输出对中国青年层价值观的影响-以此启示我国文化产业发展方向)」(马赫 등, 『新闻传播』, 2018.10.23)
4. 「한류가 여자대학생 가치관의 영향에 미친 영향과 그 대책 연구("韩流"对女大学生价值观的影响及对策研究)」(李洋, 武汉工程大学 석사학위 논문, 2018.5.22.)
5. 「한류가 현시대 대학생에게 미친 영향 분석("韩流"对当代大学生的影响分析)」(赵思奇 등, 『产业与科技论坛』, 2018.3.13.)
6. 「한류 영향하의 중일 대학생 소비행위 대비연구("韩流"影响下的中日大学生消费行为对比研究)」, 王瑞 등 『知识文库』, 2018.8.8.)

위 자료들은 모두 한류가 중국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중국 사회는 공산사회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공산당이 정치를 독점하여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문화를 중국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으로 위와 같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연구들은 그렇게 편협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번 자료는 중국 학생들이 한류에 접한 뒤의 태도를 분석하고 학생들 중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많은 학생들이 한류를 통해서 미용이나 의상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여행을 꿈꾸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논자는 한류가 오락성이 강하고 중국문화와 친연성이 강하다는 장점과 함께 역사문화의 기반이 약하고 지속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팬들 상호간의 교류가 가능하며 지구단위의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지적하였다.(85쪽)

3번 자료는 한류의 장점을 개방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흡수하여 중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한다. 논자는 한류의 장점이 다원적이고 융합적이며, 종합적이고 대중적 소비와 첨단을 지향하며, 정부 주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건강한 대중문화 소비를 창도하고 청소년들이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문화산업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한다.(59쪽)

4번 자료는 마르크스주의 대학원의 석사논문이다. 이 논문은 중국 내륙의 9개 학교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한류의 긍정적 영향으로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가치적 측면에서 주체의식을 높여주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향락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세속적인 미의식을 갖게 하고 외국 물건을 좋아하는 소비관과 현실을 무시한 애정관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좋은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가치관 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쪽)

이어서 계속 2018년에 발표된 한류 관련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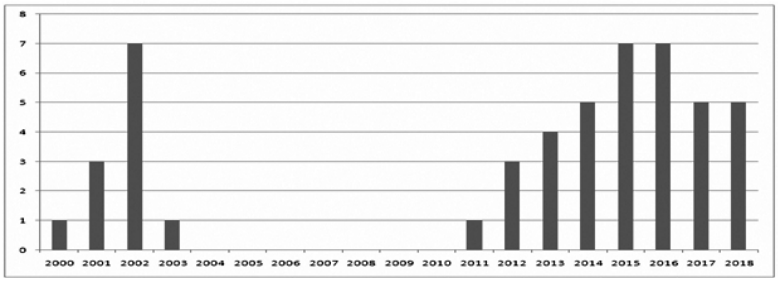
7.「한류효과: 한국의 이미지가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전파된다는 사상(“韓流”效應:韓國影像跨文化傳播之思, ‘Korean Wave’ Effect: Thoughts on th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of Korean Images)」(董娟,『电影评介』, 2018.10.15.)
8.「공공외교의 새로운 사유: 국가 마케팅 — 한류를 사례로(公共外交新思維:國家營銷—以“韓流”為例)」(吴瑾,『现代营销(下旬刊)』, 2018.8.15.)
9.「한류음악 앨범 가운데의 개념 전달과 창의적 전략(韓流音樂專輯中的概念傳達與創意策劃)」(聂佳琳,『艺海』, 2018.8.15.)
10.「음악한류와 문화 소프트파워 - ‘2017년 아시아음악학회국제학술토론회’ 종합 서술(音樂“韓流”與文化“軟實力”-“2017亞洲音樂學會國際學術研討會”綜述)」(喻辉,『人民音乐』, 2018.7.1)
11.「전파학의 시점에서 보는 “한류”소식 전파 초탐—시나 웨이보 계정 “韩国me2day”를 사례로(傳播學視閾下的“韓流”信息傳播初探—以新浪微博賬號“韓國me2day”為例)」(赵瑞楠,『传媒论坛』, 2018.2.10.)
12.「한국문학의 국제 영향력은 왜 한류에 미치지 못하는가?(韓國文學國際影響力為何不敵“韓流”?)」(薛飞翼,『小康』, 2018.1.11.)

‘한류’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시작하여 거의 20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20년간 중국에서는 2,000여 편 가까운 한류 관련 논문과 기사가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연구 수치는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는 공자 관련 논문이 1년에 3천편 이상이 발표되고, 주자 논문은 1천편에 가깝고, 모택동과 관련된 논문은 1년에 4천편이 넘는다. 이러한 수치에 비하면 한류는 매우 조금 연구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도 이제는 그리워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몇 년 지나면

1년에 10편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중국의 연구자들이 한류를 연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거의 20년간 진행되고 있는 '한류'가 이미 연구주제로서 식상해버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아니면 한국문화가 더 이상 매력이 없어져 버려서 중국의 일반 대중들이 한국문화를 외면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아마도 이것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렇다. '한류'란 한국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문화를 즐기는 중국인들의 문화다. 그런 '한류'에 대한 연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한류를 소비하는 중국 대중들에 대한 연구 혹은 관심이 줄고 있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의 'K-pop'관련 논문 편수 추이(검색사이트: CNKI, 검색일: 2019.11.13.)

참고로 위 그래프는 'K-pop' 혹은 '한국유행음악(韩国流行音乐)'으로 CNKI에서 검색한 결과다. 왼쪽 세로축은 논문 편수를 나타낸다. 2000년에는 1편, 2001년에는 3편, 2002년은 7편이다. K-pop이라는 단어는 이해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에서 2011년까지 긴공백기를 거친 뒤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많지는 않으나 매년 5편정도의 연구가 나오고 있다.

1999년에 베이비 복스의 공연 소식을 전하는 뉴스(「세찬 '한'류가 내륙을 습격했다(强勁"韩"流袭击内陆)」(『音乐世界』, 1999.12)에서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그만큼 중국에서 음악 '한류'는 일찍부터 시작했으며 그 영향력 역시 매우 큰 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연구는 적었다. 중국 학계에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 K-pop과 관련하여 주요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이두(百度) 게시판 K-pop팬들의 자금모집 응원에 관한 연구(情感勞動與收編ー關于百度貼吧K-pop粉絲集資應援的研究)」(陈璐, 『文化研究』, 2018.12.31.)
2. 「중국의 K-pop 블러그 팬클럽현상 분석-시나 웨이보 팬클럽을 사례로(淺析中國K-pop微博粉絲站現象ー以新浪微博粉絲站為例)」(魏玮, 『现代交际』, 2018.6.30.)
3. 「한국 유행음악 산업의 국제경쟁 우세에 관한 연구(韓國流行音樂產業國際競爭優勢研究)」(徐媛媛 등, 『艺术百家』, 2018.7.15.)
4. 「한국 유행음악 문화가 청년여자 대학생에 미친 영향—화남사범대학을 사례로(韓國流行音樂文化對青年女大學生的影響ー以華南師范大學為例)」(陈鸿佳 등, 『广东青年职业学院学报』, 2018.5.10.)

이중에 K-pop자체에 대한 분석은 3번 자료 1건 뿐이며 다른 3건은 모두 K-pop을 둘러싼 중국팬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4번 자료는 K-pop이 중국의 청소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앞서 보았듯이 중국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주제중 하나다.

3번 자료는 K-pop이 경쟁전략을 수립할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지적하였다. 문화 수출이라는 전략 목표를 세우고, 소비자의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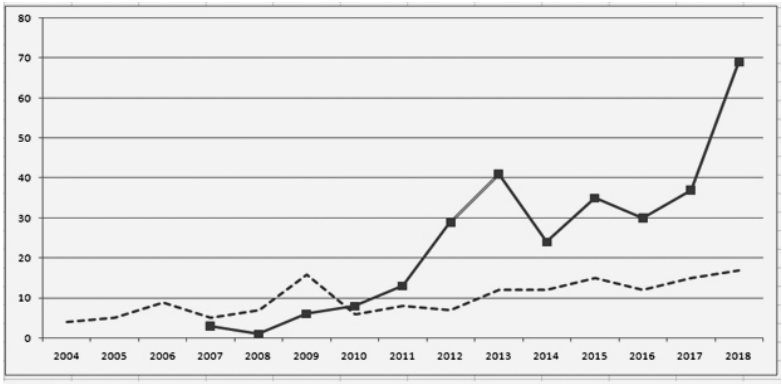
구에 근거하여 시장 조사를 깊이 있게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거기에 맞는 문화적인 내용을 만들어내 현대적인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전세계로 확장해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중국도 유행음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한다고 보았다.(106쪽)

물론 한국 정부가 문화를 진흥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이 없지는 않다. 외국의 한류 전문가들은 이 점을 과대평가하는 점이 있는데, 내부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한류의 생성과 발전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뒤를 쫓아가면서 그 성과를 이용을 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한류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를 받는 김대중 정부(1998~2003)도 K-pop의 시작으로 보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음악적으로 성공을 거둔 뒤에 등장하였으며, 반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탄압하며, 창작의욕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에 대항하면서 한류는 성장해온 것이다. 우리가 1980년대 홍콩 영화계의 발전이나 1990년대 일본 문화의 흥성, 나아가 미국문화의 영향력을 논할 때, 각국 정부의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듯이 한류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을 과대평가를 하면 한류를 정확히 볼 수 없다. 정치가들이 개입하여 만들어낸 문화는 그것이 '정치'이지 '문화'일수가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5. 영어권의 '한류'연구

남북미와 유럽의 한류는 최근에 아시아 지역 못지않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영어권 논문 사이트 EBSCOhost를 검색하여 그러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이트는 각 분야의 저널 초록, 원문 등을 모은 곳으로 인문사회과학 자료는 ASC(Academic Search Complete)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논문 외에도 일반 잡지의 기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검색 결과를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들었다.



'한류'와 'K-pop' 관련 논문 연도별 편수(EBSCOhost ASC, 2019.11.13조사)

점선은 '한류(Korean wave 혹은 Hallyu)'라는 단어를, 실선은 'K-pop'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다.(2019년 11월 13일 조사) 기간은 2004년부터 2018년이다.

2004년 이전에는 '한류' 검색 결과가 없다. 한류(Hallyu, Korean wave)라는 단어가 중화권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4년에 서구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학술잡지 『Korea

Focus』에 중국인 학자 마상위(Ma Xiangwu)가 「한류의 중심에 있는 역동성(Dynamism at the Heart of Hallyu)」이라는 논문을 투고한 것이 맨 처음으로 추정된다.(May/Jun2004, Vol. 12 Issue 3). 이 잡지는 2004년에 계속해서 한류와 관련하여 「아시아 문화공동체를 향한 움직임(Moving toward an Asian Cultural Community)」(Kim Moo-Kon, 『Korea Focus』 Jul/Aug, 2004, Vol. 12 Issue 4), 「한류를 활용하기(Taking Advantage of the Hallyu Wave)」(Hyun Oh-Seok. 『Korea Focus』, Nov/Dec2004, Vol. 12 Issue 6)등 한국학자들의 글을 실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한국에서 발간된 Korea Journal에 4편의 논문이 실렸고 Korea Focus에 역시 1편이 실렸다. Korea Journal에 실린 「싱가폴의 한류(Hallyu in Singapore: Korean Cosmopolitanism or the Consumption of Chineseness?)」(Kelly Fu Su Yin; Kai Khiun Liew, Winter2005, Vol. 45 Issue 4)외에는 모두 한국 학자들의 논문이었다. 이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편 가까이 발표되었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보면 영어권 논문의 추이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편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100편이 넘게 대량으로 집필되었다가 최근에는 관심이 줄어 10여 편으로 축소된 것과는 매우 대비된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한류를 접하면서 천천히 그 나라의 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음을 인식해나가는 과정이 표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논문을 쓴 필자들이나 게재된 잡지를 보아도 초기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서구권의 학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게재 잡지들도 지역적으로 다양해졌다.

'한류'와 관련하여 2018년의 주요한 논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동에서의 한류: 과거와 현재(The Korean Wave in the Middle East: Past and Present)」(Elaskary, Mohamed, 『Journal of Open Innovation』, Dec2018, Vol. 4 Issue 4)
2. 「한류와 그 이론의 답보(The Korean Wave and the Impasse of Theory)」(Paik, Peter Yoonsuk, 『Telos』, Fall2018, Vol. 2018 Issue 184
3. 「한류의 수용에 있어서 뒤바뀐 민족지(Reversed Ethnography in the Reception of the Korean Wave)」(Hyeri Jung,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Fall/Winter2018, Vol. 22 Issue 2)
4. 「한류: 혁신, 팬덤, 초국가주의(THE KOREAN WAVE: Evolution, Fandom, and Transnationality)」(PARC, JIMMYN, 『Pacific Affairs』, Dec2018, Vol. 91 Issue 4
5. 「한국의 문화 소프트파워(Cultural Soft Power of Korea)」(Valieva, Julia, 『Journal of History, Culture & Art Research』, 2018, Vol. 7 Issue 4
6. 「아프리카에서 누가 한국 TV드라마를 보는가?(Who watches Korean TV dramas in Africa? A preliminary study in Ghana)」(Kim, Suweon, 『Media, Culture & Society』, Mar2018, Vol. 40 Issue 2

표로 되돌아가서 'K-pop'을 검색한 결과를 나타내는 실선을 살펴보면 K-pop연구는 '한류' 연구와는 달리 상당히 역동적이다. K-pop연구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의 1차 급상승을 거쳐 2018년에는 70편으로 치솟았다 2012년 싸이 〈강남스타일〉의 성공과 2017년 방탄소년단(BTS)의 활약 덕분이다. 중국에서 K-pop연구는 지금까지 많아야 10편을 넘지 못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싸이의 성공 이전인 2011년에 이미 10편을 넘어섰다. 그 후로는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과 비

교해보면 중국은 한국의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영어권에서는 K-pop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권 연구자들이 K-pop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2007년의 논문을 보면 태국의 K-pop유행 관련 1편, 가수 비에 대한 논문이 2편이었다. 2008년에는 1편이 발표되었는데 일본에서 활동하던 가수 보아와 관련된 연구였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발표된 K-pop관련 주요 논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떻게 K-pop은 서구를 격파하였는가(How K-pop Broke the West: An Analysis of Western Media Coverage from 2009 to 2019)」(Gibson, Jenn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Fall/Winter2018, Vol. 22 Issue 2
2. 「K-pop의 글로벌 창의성(Global Imagination of K-pop: Pop Music Fans' Lived Experiences of Cultural Hybridity)」(Yoon, Kyong, 『Popular Music & Society』, Oct2018, Vol. 41 Issue 4)
3. 「K-pop 남자 그룹은 어떻게 만드나(How to Make a K-pop Boy Band)」(KIM, BORA 등, 『Journal of American Studies』, Nov2018, Vol. 52 Issue 4)
4. 「2018년을 휩쓴 새로운 종류의 팝 스타(New Kind of Pop Star Took Over in 2018)」(Caramanica, Jon. 〈New York Times〉 12/23/2018, Vol. 168
5. 「K-pop: 한국음악산업의 국제적 약진(K-pop:The International Rise of the Korean Music Industry」(Saeji, Cedar Bough T., 『Journal of Asian Studies』, Nov2018, Vol. 77 Issue 4)
6. 「BTS: K-pop을 세계화하다(BTS: Taking K-pop worldwide)」(BRUNER, RAISA. 『Time International (Atlantic Edition)』,

10/22/2018, Vol. 192 Issue 16)

7. 「K-pop활동이 국경을 넘다(K-pop Acts Take Show Beyond The Border)」 (RICH, MOTOKO; SU-HYUN LEE, 『New York Times』, 3/31/2018, Vol. 167

요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 개봉할 때는 3곳이던 개봉관 수가 이제는 603개로 늘어났다. 미국에서 외국 영화 흥행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하며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작으로도 언급된다. 이러한 것을 보면 K-pop으로 확장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영화와 드라마 등 다른 영역으로 넓어가면서 그 전체를 조망하는 '한류'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전망된다.

6. 맺음말: '한류와 유교'

1999년에 '한류'라는 이름을 갖게 된 한국문화 붐은 그런 이름을 가진 지 벌써 21년이 되었다.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한류가 유행의 단계를 거쳐 생활의 한 영역 혹은 소일거리나 취미의 한 종류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는 학문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이 줄어든 것 같다.

일본의 Wikipedia는 한류를 설명하면서 "한류란, 200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한국대중문화의 유행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2003년경부터 한국드라마 〈겨울 연가〉 방송이 계기가 되어 시작했다."고 하였다. '동아시아'의 유행 현상으로 한류를 들었다.

그런데 요즘 한류는 이미 동아시아를 벗어나고 있다. 중동아시아를 포함하여 서구권에서 한류는 이제 막 시작한 분위기다. 영어권 연구 추이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초기에 보여주었던 그런 관심과 기세가 보인다.

'유교문화'는 한류가 중국과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등지에서 유행할 때 한류의 확산을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한류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한류는 '유교'로만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다. 유교문화를 전혀 모르는 지역 사람들에게도 한류는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류를 이해하는데 유교사상이나 문화가 전혀 쓸모없다고 결론을 짓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한국인들은 적어도 조선시대 600여년을 통해서 유교문화, 특히 성리학의 세례를 흠뻑 받았다. 국가 운영의 기본 사상이 유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혹시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서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국적과 민족과 인종을 떠나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보편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바탕이 된 것은 아닐까? 유교의 긍정적인 측면 혹은 부정적인 측면과 한류의 상관성은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유교를 접해보지 못한 영어권과 남미, 그리고 동남아 지역 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를 기대해본다.